

2019

기본연구 2019-01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진 조경옥 · 이주연 · 전아람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19-01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연 구 진

연구 책임 조 경 욱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 연구 이 주 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아 랍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18GI03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제2장 노후준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
1. 노후준비 필요성 : 고령사회 위험과 노년기 인식변화.....	13
2. 노후준비 선행연구 검토	24
3. 노후준비영역과 관련 요인.....	34
제3장 노후준비 현황 및 지원정책	45
1. 노후생활 실태	47
2. 노후준비 실태 및 문제점	61
3. 노후준비 지원정책 및 사례	77
제4장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83
1. 전라북도 중고령여성 현황 및 특성	85
2. 설문조사 분석결과	112
3.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187
4. 소결	221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229
1. 주요결과 및 논의	231
2. 정책제언.....	243
부 록	251
참고문헌	269

표 목 차 | Contents

〈표 2-1〉 인구 추이	13
〈표 2-2〉 인구규모 및 구조변화	14
〈표 2-3〉 기업 규모별 평균 정년연령(단일정년제)	15
〈표 2-4〉 65세 이상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17
〈표 2-5〉 연금1) 수령 현황(55~79세)	20
〈표 2-6〉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의 차이	21
〈표 2-7〉 성공적 노화의 영역	22
〈표 2-8〉 성공적·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3
〈표 2-9〉 공적연금 수급자 특성	24
〈표 2-10〉 은퇴 및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검토	25
〈표 2-11〉 베이비부머 대상 관련 연구 검토	28
〈표 2-12〉 여성대상 관련 연구 검토	31
〈표 2-13〉 여성대상 관련 질적연구 검토	32
〈표 2-14〉 선행연구의 노후준비 관련 지표 및 변수	33
〈표 3-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주관적 노후시작 시기	48
〈표 3-2〉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주관적 노후시작 사건	49
〈표 3-3〉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최소 및 적정노후생활비	51
〈표 3-4〉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주관적 노후해당자의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52
〈표 3-5〉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주관적 노후비해당자의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53
〈표 3-6〉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독립적 경제력 보유 여부	54
〈표 3-7〉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 주체	56
〈표 3-8〉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본인의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57
〈표 3-9〉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향후 노후시기 자녀 동거 의향	57
〈표 3-10〉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자녀와 동거하고 싶은 이유...	59
〈표 3-1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자녀와 동거하고 싶지 않은 이유...	60
〈표 3-12〉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지역...	60

〈표 3-13〉 노후준비의 주된 방법 : 2002-2017	62
〈표 3-14〉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2002-2017	63
〈표 3-15〉 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중 노후준비수준의 상중하 분포	66
〈표 3-16〉 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중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67
〈표 3-17〉 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중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유형	68
〈표 3-18〉 연령대별 고용률	69
〈표 3-19〉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55~64세)	70
〈표 3-20〉 고령화 추세와 전망(1960-2060)	70
〈표 3-21〉 노후준비교육 경험	72
〈표 3-22〉 노후준비지원법 주요내용	77
〈표 3-23〉 노후준비지원 분야별 주요 4대 서비스	78
〈표 3-24〉 단계별 노후준비서비스	78
〈표 4-1〉 전라북도 인구변동 현황 및 고령인구수 추이	86
〈표 4-2〉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2018년)	87
〈표 4-3〉 전라북도 인구수 및 고령인구수 변동추계	89
〈표 4-4〉 전국 및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 인구현황(2017)	91
〈표 4-5〉 전국 및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 인구 비율(2017)	92
〈표 4-6〉 전라북도 시·군별 중고령 세대 인구 비율(2017)	93
〈표 4-7〉 중고령 세대의 혼인상태(2015)	94
〈표 4-8〉 중고령 세대의 학력 현황(2015)	95
〈표 4-9〉 중고령 세대 가구의 가구원수 비교(2017)	96
〈표 4-10〉 전라북도 도농지역 중고령 세대의 학력분포(2015)	97
〈표 4-11〉 전라북도 도농지역 중고령 세대 가구의 가구원수 비교(2017)	98
〈표 4-12〉 중고령 세대의 종사상 지위(2015)	100
〈표 4-13〉 중고령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2015)	101
〈표 4-14〉 중고령 세대의 종사상 지위(2015)	102
〈표 4-15〉 시도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2015-2017)	103
〈표 4-16〉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2015-2017)	106
〈표 4-17〉 시도별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2017년 4월 기준)	108

〈표 4-18〉 최근 5년간 성별 연금 수령 여부 (55~79세)	109
〈표 4-19〉 최근 5년간 월평균 연금 수령액 (55~79세)	111
〈표 4-20〉 세부 설문조사 항목	113
〈표 4-2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5
〈표 4-22〉 인구특성별 주관적인 노후시작 사건	117
〈표 4-23〉 주관적인 노후시작 연령	118
〈표 4-24〉 인구특성별 최근의 가장 큰 관심사	120
〈표 4-25〉 노후생활에서 걱정되는 문제	121
〈표 4-26〉 노후생활에서 걱정되는 문제의 집단 간 차이	122
〈표 4-27〉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모습	125
〈표 4-28〉 인구특성별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모습 (종합순위 기준)	126
〈표 4-29〉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	130
〈표 4-30〉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인식 - 1)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한 노후준비 필요성	131
〈표 4-31〉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인식 - 2)노후준비에 대한 불안함	132
〈표 4-32〉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인식 - 3)자녀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	133
〈표 4-33〉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인식 - 4)배우자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	134
〈표 4-34〉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인식 - 5)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	135
〈표 4-35〉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영역	136
〈표 4-36〉 인구특성별 노후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점	138
〈표 4-37〉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의 집단 간 차이	141
〈표 4-38〉 노후준비 역량의 집단 간 차이	142
〈표 4-39〉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1)경제적 노후대비 정보와 방법	144
〈표 4-40〉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2)노후에 일을 하는 정보와 방법	145
〈표 4-41〉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3)노후 건강관리 정보와 방법	146
〈표 4-42〉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4)노후 사회적 관계 유지 정보와 방법	147
〈표 4-43〉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5)노후 자기계발 정보와 방법	148
〈표 4-44〉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6)노화과정의 특징 이해	149
〈표 4-45〉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7)노후 봉사활동 참여 정보와 방법	150
〈표 4-46〉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8)노후 여가활용 정보와 방법	151
〈표 4-47〉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의 집단 간 차이	153

〈표 4-48〉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의 집단 간 차이	156
〈표 4-49〉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의 집단 간 차이	158
〈표 4-50〉 가구소득원	160
〈표 4-51〉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	161
〈표 4-52〉 인구특성별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	162
〈표 4-53〉 경력단절여성의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	163
〈표 4-54〉 인구특성별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이 있는 이유	165
〈표 4-55〉 인구특성별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이 없는 이유	167
〈표 4-56〉 인구특성별 65세 이후 근로시 선호하는 근로조건	169
〈표 4-57〉 공적/사적 연금 가입 현황 (응답자 기준).....	170
〈표 4-58〉 공적/사적 연금 가입 현황 (부부 기준).....	171
〈표 4-59〉 노후 예상 연금 수령액의 집단 간 차이.....	173
〈표 4-60〉 노후대비 금융상품 및 소득마련 수단	174
〈표 4-61〉 인구특성별 노후대비 금융상품 및 소득마련 수단 (종합순위 기준)	175
〈표 4-62〉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이용경험	176
〈표 4-63〉 인구특성별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이용 기관	178
〈표 4-64〉 인구특성별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180
〈표 4-65〉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의 집단 간 차이	182
〈표 4-66〉 영역별 노후준비 필요도	183
〈표 4-67〉 중고령여성 대상 심층면접 조사내용	185
〈표 4-68〉 심층면접 참여자 일반적 특성	187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2-1〉 연령별 빈곤율	16
〈그림 2-2〉 고령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18
〈그림 3-1〉 주관적 노후시작 시기의 차수별 비교	48
〈그림 3-2〉 주관적 노후시작 사건의 차수별 비교	50
〈그림 3-3〉 최소 및 적정노후생활비 차수별 비교	51
〈그림 3-4〉 독립적 경제력 보유 여부 차수별 비교	55
〈그림 3-5〉 노후시기 자녀 동거 의향 차수별 비교	58
〈그림 3-6〉 노후준비 여부 : 2002-2017	61
〈그림 3-7〉 지역별 노후준비 비율 : 2002-2017	64
〈그림 3-8〉 성별 노후준비 비율 : 2002-2017	65
〈그림 3-9〉 고령자의 성별 기대여명	71
〈그림 3-10〉 노후준비 교육을 받은 횟수	72
〈그림 3-11〉 노후준비 교육 주관기관	73
〈그림 3-12〉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 형태	73
〈그림 3-13〉 노후준비 정책 발전 과정	75
〈그림 3-14〉 전 국민 노후준비 수준	76
〈그림 3-15〉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운영조직도	80
〈그림 4-1〉 전국 및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구조 비교 (1970 vs 2017)	90
〈그림 4-2〉 중고령 세대의 혼인분포(2015)	94
〈그림 4-3〉 중고령 세대의 학력분포(2015)	95
〈그림 4-4〉 중고령 세대의 가구의 가구원수 비교(2017)	96
〈그림 4-5〉 전라북도 도농지역 중고령 세대의 학력분포(2015)	98
〈그림 4-6〉 전라북도 도농지역 중고령 세대의 가구의 가구원수 비교(2017)	99
〈그림 4-7〉 주관적인 노후시작 사건	116
〈그림 4-8〉 최근의 가장 큰 관심사	119

〈그림 4-9〉 노후생활에서 걱정되는 문제	121
〈그림 4-10〉 자아존중감	127
〈그림 4-1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128
〈그림 4-12〉 노후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점	137
〈그림 4-13〉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139
〈그림 4-14〉 노후준비 역량	143
〈그림 4-15〉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154
〈그림 4-16〉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	157
〈그림 4-17〉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	159
〈그림 4-18〉 가구소득원	161
〈그림 4-19〉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이 있는 이유	164
〈그림 4-20〉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이 없는 이유	166
〈그림 4-21〉 65세 이후 근로시 선호하는 근로조건	168
〈그림 4-22〉 노후 예상 생활비	172
〈그림 4-23〉 노후 예상 연금 수령액	172
〈그림 4-24〉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이용 기관	177
〈그림 4-25〉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도움 정도	179
〈그림 4-26〉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179
〈그림 4-27〉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	181
 〈그림 5-1〉 전라북도 중고령여성 노후준비 지원체계	 249

I.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공공차원의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통해 노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기초자료의 구축이 절실함
- 전북은 2015년 기준 중고령층(50~65세)인구는 총 4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1%를 차지하고 있고 2025년에 24.8%까지 증가 예측되는 가운데 전북의 높은 고령화율·노인부양비와 낮은 재정자립도·고용률 등과 같은 지역특성과 환경은 전북에서의 중고령층의 노후진입과 이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의 중요성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정책적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중고령여성으로 이들은 100세 시대 사회에서 더욱 취약한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큼. 그 이유는 여성이 청장년기에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고 경력단절 등 불연속적인 경제활동참여를 하기 때문이며 이는 연금수혜 및 복지기반의 불충분으로 이어져 여성의 빈곤화의 원인이 됨. 또한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길고 경제적 부양을 받는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배우자 은퇴와 사별은 여성노인의 누적적 빈곤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노후는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중고령여성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에 관한 도·농간의 격차가 심하고 연령, 학력, 직업유무, 결혼상태 등에 따라 여성 내부에서도 그 차이가 다양하므로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

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점 등에 관한 지역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60세대에 해당하는 중고령여성들의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여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년기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노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 노후생활 실태 및 노후준비 현황분석
- 노후준비 정책현황 및 대응 사례분석
- 전북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전북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자부가조사 등을 통해 노후실태 및 노후준비 자료 분석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데이터 분석
- 설문조사: 전북지역 거주하고 있는 50~65세에 해당하는 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노후인식과 기대, 노후준비 현황, 각 영역별 노후준비정도, 노후준비 여건과 역량,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 및 욕구 등의 실태 파악
- 심층면접조사: 지역, 직업, 배우자 유무, 연령 등을 안배하여 18명을 대상으로 노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노후기대, 노후준비 행위와 수준, 노후준비 정책욕구 등 노후준비에 관한 다차원적이고 다각적인 맥락을 분석
- 연구방향, 정책방향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Ⅱ.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 전북 중고령여성 임금근로자 비율 낮고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높음

○ 전북은 임금근로자 비율이 50.2%(전국 61.0%)이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5.1%(전국 14.7%)로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무소득배우자)되는 비율이 높음. 중고령층의 미취학 학력자는 남성(28.4%)에 비해 여성(71.6%)의 비율이 높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은 여성(33.8%)보다 남성(66.9%)이 높음

○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변인 중 하나는 소득과 학력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는 전북 여성은 노후소득보장 취약계층이 많고 그로 인한 노후의 여성 빈곤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 노후준비 관련 정책은 노인복지정책에서도 정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

□ 공적연금 가입률과 수령액은 낮고 노후 적정생활비와 격차 큼

○ 2017년 현재 전북 중고령여성 국민연금 가입률은 50~54세는 47.6%, 55~59세는 48.4%, 60세 이상은 70.9%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부 둘 다 가입을 해야 하지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부부 중 한명만 가입’한 비율은 27.3%이고 ‘둘 다 가입 안한 경우’는 8.9%로 36.2%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해당하고 있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자부가조사에 의하면 2018년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57만원임. 최근 5년 동안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에서 여성은 10~24만원의 소액 연금수령자가 61.4%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 이상에서는 남성 14.8% 여성 4.2%로 연금수령액에서의 성별 격차가 컸음. 본 실태조사에서는 가구 당 노후 예상연금수령액은 50만원 이하가 3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1/3이 넘는 응답자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연금수령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편 2017년 국

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의하면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 1,313천원, 개인 856천원이고,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1,897천원, 개인 1,238천원으로 조사됨. 따라서 공적연금 수령액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상황은 최소한의 개인 노후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있어 노후빈곤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노후시작 연령은 64.6세, 퇴직에서 노후진입까지 10년간 gap극복 방안 필요

-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를 본 설문조사에서는 64.6세, FGI 조사에서는 70세부터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음(국민노후보장패널 제7차는 68.5세). 노후로 인식하는 사건도 절반이 넘는 57.0%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시기’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로 보고 있어 소득상실이나 건강상태의 악화와 같은 취약한 상태에 들어서는 시점을 노후의 시작 시점으로 인식함
-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우리 사회 현실은 평균 퇴직연령은 57세로(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8) 대부분 50대 중반에 은퇴를 한다고 보면 노후진입시기까지 10년간의 gap이 생김. 따라서 50대 중반에 은퇴해서 노후진입시기까지 10년간의 gap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경제·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교육과 경력을 살려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인력으로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함

□ 자녀의 의미와 부양책임 의식 높아 노후준비보다 우선

- 본 실태조사에서 중고령여성의 최근의 관심사는 ‘자녀의 교육과 취업, 결혼’이 41.1%이고 본인의 ‘노후준비 관심’정도는 14.9%에 지나지 않았음. 또한 FGI 조사에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후나 행복한 노후는 ‘자녀의 안정적인 취업과 결혼’으로 인생에서 자녀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부양의 책임의식이 매우 높았음

- 중고령여성은 자녀의 졸업, 취업, 결혼 등 성인기의 전이를 완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교육비와 자녀 결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노후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자녀부양으로 인한 노후준비금 부족과 노후준비 유보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지원방식과 재무설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음

□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높지만 전반적인 노후준비는 미흡, 장애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척도에서 4.6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노후준비 불안도는 3.2점으로 대체로 불안하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은 편임.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 불안도는 높았고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은 반면 불안도는 낮았음
-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총 점수는 100점 만점에 59.1로 매우 낮았음.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음'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고연령, 저학력 등 저소득가구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 점은 중년기의 경제적 계층의 차이가 이들이 맞이할 노년기에도 계층적 차별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노후에도 근로활동 의지 높고, 근로활동 이유는 계층 간 상이

-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62.8%로 여성들의 노후근로의지는 비교적 높았음. 가구소득과 취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고 현재 취업하고 있는 집단에서 근로의지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65세 이후에도 근로할 의향이 높았음
- 65세 이후에도 근로활동을 하려는 이유로는 '소득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고, 자기발전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21.3%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소득 때문에 일할 의사를 갖고 있어 노후의 경제적

생활이 취약함을 시사. 소득을 위해 일하려는 의사는 학력과 가구소득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노후건강에 대한 염려 높아 건강보험 가입률 높지만 건강관리 행동은 미흡

- 노후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으로는 ‘질병 및 죽음 등의 건강관련 문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영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61.5%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 응답함. 노후준비의 다차원적 영역(건강, 대인관계, 경제, 취미·여가생활)에 대해서 현재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를 가장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평점 3.34점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그러나 건강에 대한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이나 치매, 암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을 많이 들어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건강증진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한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노후준비 관련 제도 인지도 낮고 노후설계 서비스 경험 미흡

- 건강, 대인관계, 경제, 취미·여가생활 등 각 영역별 노후준비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수준은 5점 만점에 평점 3.02부터 3.34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높게 인식(4.6점)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후준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높은 인식정도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녀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4.4점)와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3.8점) 등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자립의지는 비교적 높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총 점수는 100점 만점에 59.1로 매우 낮았음

- 노후설계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고령여성은 단 15.9%에 불과하였고 노후설계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가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 때문에 바빠서’가 26.3%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의 수혜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정책제언

□ 노후준비지원 정책의 성인지 관점 반영

- 현 단계의 정부와 지자체 노후준비 지원사업은 ‘남성은퇴자 모델’에 기초하고 있고 ‘재무중심’의 제한적 노후준비 지원과 ‘도시근로자’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성별 특성과 경험을 고려한 성 평등한 노후지원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되며 현 단계에서 노후준비와 관련된 부처별, 분야별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추진하고 노후준비 및 노후설계 관련 성인지 통계생산이 요구됨
- 현재 노후보장과 관련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2015)』가 있음. 향후 중고령여성 노후준비와 관련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통계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장년고용서비스강화방안(16. 고용부)	-소상공인 경쟁력강화방안 (16.중기청)
-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16,농림부)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16, 복지부)
-자원봉사진흥시행계획(17,행자부)	-국민노후보장패널 통계(격년, 국민연금연구원)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에 관한 조례(2017)	

□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과 여성새일센터 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현재의 중고령여성은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며 이들의 사회적 특성은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들로 이들이 꿈꾸는 노후는 이전 노인세대와는 많은 측면에서 차별성이 드러남. 자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배풀며 나누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퇴직이후에 받는 수많은 평생교육이 단순히 교육으로 소비되지 않고 교육-소득창출-사회공헌이 결합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형 은퇴일자리 창출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신중년 참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참여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마을기업 설립을 500개로 확대하고 업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농산물 가공·제조와 관광·교육·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은퇴형 여성친화적 업종 일자리 창출 추진 필요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 구축(2019년)을 위해 폴리텍을 신중년 특화 캠퍼스로 지정, 운영할 계획임(서울강서, 남인천, 대구, 울산, 동부산, 섬유패션 특성화)
 ➡전국에서 3번째로 고령인구가 높은 전북 선제적 대응 필요
 -사회공헌형일자리 : 관광교육·문화·환경 등 여성친화적 마을기업 확대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개발 ➡전북 지역특화여성일자리 창출로 유관 직종 발굴

- 여성새일센터 등 여성취업교육기관은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을 타깃으로 취업지원과 교육을 운영하여 왔으나 ‘경력단절여성’만이 아니라 은퇴자를 포함한 ‘중고령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공헌형 일자리 개발과 지원 등 사업대상을 확대 및 교육기능을 다각화 방안 필요

□ 100세 시대 노후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재무설계 교육

- 중고령여성들의 노후준비 역량에 있어 ‘저축이나 연금, 보험 등 경제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39.6%에 지나지 않아 전국단위 조사의 절반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북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재무교육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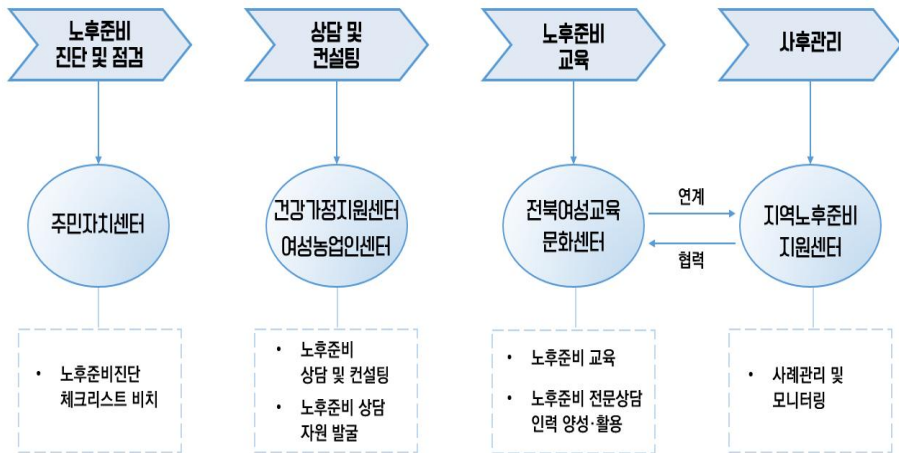
- 지금까지의 노후재무교육이 주로 금융상품 위주로 진행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농지연금 등의 부동산을 활용한 재무교육을 강화하고 자녀의 결혼과 독립으로 인한 주거규모 축소에 따른 금융자산 증대방안 등 중고령세대의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교육과 함께 100세 시대를 겨냥하는 자산축적과 운영설계 등의 구체적인 재무설계 교육이 필요함

□ 노후준비 취약계층을 위한 아웃리치 사업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소득과 학력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와 방법, 노후 건강관리 방법, 노후 사회적 관계 유지 정보와 방법에 관한 노후준비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노후대비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접근 및 역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확산하더라도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준비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임금근로자로 오래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내용임. 저학력과 저소득층 등 노후준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인식과 정보, 인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지원 무료프로그램, 전화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다차원적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기반 시설 연계

- 지방의 경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수가 적어 공간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임. 다차원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노후준비 관련 지역기반시설을 연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노후준비 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노후준비와 노후설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양성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노후준비 상담과 컨설팅 이후의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담당하도록 함



□ 노후준비지원조례 제정 및 확대 등 제도정비

- 전북의 50~65세 중고령인구는 24.1%로 전국 평균 23.9%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인구조건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 대상의 노후준비 지원서비스정책과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이로 인해 기대되는 노인빈곤이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문제의 사전적·예방적 효과도 매우 큼. 따라서 노후지원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각 시군에서는 노후준비지원조례의 제정과 확대를 통해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는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2017.4)가 있으며 14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2019.1)'를 제정함. 향후 노후준비지원조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작업 추진이 필요함

- 각 기초지자체의 노후준비지원 조례 제정
- 조례에 근거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전라북도 노후준비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복지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여성관련 유관기관 등)
-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노후준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지원협의회와 네트워크 구축

1

장

연구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00세 시대의 도래, 노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되면서 은퇴 후 10년 내지 20년을 잔여 인생으로 생각하던 시대에서 40년 내지 50년에 해당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됨
- 이로써 노년기는 정부와 가족에게 의존하던 과거의 수동적 복지정책 대상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적극적이고 자립적 생활양식이 요구되는 “활동적·생산적 노년”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음
-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년기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과거 노년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예비노인으로 대표되는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¹⁾의 본격적인 은퇴기가 시작되고 이들의 노화는 우리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빠르게 진전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중고령층²⁾에 해당하는 50·60세대는 대부분 베이비붐세대들로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노후준비 정도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됨

-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들은 기존 노인세대에 비해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으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로서 노년기의 여가 취미생활이나 사회참여 등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년에 대한 욕구도 상당히 강하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음(장경섭, 2009)

1)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2017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699.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거대 인구 집단은 2020년부터 노인(65세 이상)세대로 진입을 시작하여 2028년 진입을 완료할 것이므로 이들의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에 해당함

2) 중고령층의 명칭과 연령범주는 관련법과 계획에 따라 상이함. ①고령자 고용촉진법은 55세 이상을 ‘고령층’ ②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0~64세를 ‘준고령자’ ③ OECD는 55~65세를 고령근로자(Older Worker)④ 장년고용종합대책(2014)에서는 45~64세를 ‘장년’⑤신중년 인생3모작계획(2017)에서는 50~69세를 ‘신중년’(중장년) ⑥통계청의 준고령통계는 50~64세를 ‘준고령’으로 명칭함

-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낮은 소득대체율, 부모부양과 자녀부양의 긴 세대들로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가 소홀한 경우가 많고 여가취미생활이나 대인관계 등의 비경제적 노후준비 영역에서도 상당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이소정, 2011; 이여봉, 2011; 백옥미 외 2012)

○ 중고령층의 노후준비에 대한 국가정책적 논의는 '노후준비지원법 제정(2015년)'으로 본격화되었지만 지자체의 역할은 여전히 모호하고 국민의 인식수준 또한 낮은 상황임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이 공동으로 관련 법과 제도마련, 관련 서비스를 추진
- 노후준비지원법의 마련으로 노후준비지원 체계와 관련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존에 있던 노인복지정책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대응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이나 상담, 노후준비 진단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고 다차원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지 못한 채 여전히 '재무중심'의 노후준비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임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필요

- 그동안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으로 노후준비 실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노후준비금, 연금수급여부, 취업여부 및 지속정도 등의 재무와 경제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노후준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제한적인 연구
- 재무, 건강, 대인관계, 여가 등의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과 실태조사가 중앙차원에서 2012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지표의 간소화로 인해 심도 있고 실질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 또한 전국적으로 표집은 하였으나 시도별 비교분석이 어려워 전북지역의 실태와 특성 파악이 어려운 가운데 노후준비에 대한 지역차원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임
- 공공차원의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통해 노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경제·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기초자료의 구축이 절실함.

- 특히 전북의 2015년 기준 중고령층(50~65세)인구는 총 4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4.1%를 차지하고 있고 2025년에 24.8%까지 증가 예측되는 가운데 전북의 높은 고령화율·노인부양비와 낮은 재정자립도·고용률³⁾ 등과 같은 지역특성과 환경은 전북에서의 중고령층의 노후진입과 이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의 중요성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노후준비에 취약한 중고령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의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특히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중고령여성인데 이들은 100세 시대 사회에서 더욱 취약한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여성은 청장년기에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며 경력단절 등 불연속적인 경제활동참여는 연금수혜 및 복지기반의 불충분으로 이어져 여성의 빈곤화의 원인이 됨. 또한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길고 경제적 부양을 받는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배우자 은퇴와 사별은 여성노인의 누적적 빈곤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노후는 매우 취약한 상황임
 - 중고령여성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에 관한 도·농간의 격차가 심하고 연령, 학력, 직업유무, 결혼상태 등에 따라 여성 내부에서도 그 차이가 다양하므로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점 등에 관한 지역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60대에 해당하는 중고령여성들의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여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년기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노후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3)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상용직의 비율 등은 지역 빈곤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 고령사회의 사회적 위험과 그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노후준비 실태,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노후준비 관련 주요쟁점 및 논의사항을 정리

○ 노후생활 실태 및 노후준비 현황분석

- 통계청의 사회조사,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보건사회연구원의 노후준비 실태조사 등 전국단위의 노후준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노후생활 실태와 노후준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전북 중고령세대의 인구현황, 고령인구수 변동추계, 혼인상태 및 학력수준, 중고령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종사상 지위, 도농지역의 중고령인구 분포 등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전북 중고령여성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 전라북도 국민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현황, 국민연금 수령현황과 성별격차 등에 관한 분석을 통해 노후준비현황과 문제점 분석

○ 노후준비 정책현황 및 대응 사례분석

- 노후준비 관련 법적 제도적 발전과정과 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고 노후준비 서비스 관련 인프라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 도출
- 노후준비 지원정책은 우리나라 특유의 정책에 해당하여 역사가 짧고 지역사례도 전무하나 최근 서울시와, 부천 등의 지역사례와 경기지역모델 등이 개발되고 있어 이들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탐색

○ 전북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실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 전북지역 중고령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에 대한 인식, 노후준비방법, 노후준비 여건과 역량, 영역별(재무,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 노후준비정도와 노후준비 구체적 행위정도, 노후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 노후준비 관련 교육이나 상담 경험여부 및 요구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 표준화 된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중고령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와 노후준비 문제점 등을 색출하기 위해 지역별, 배우자유무, 직업경험유무, 연령별로 집단을 유형화하여 노후인식과 노후준비 경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문제점 등을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

- 전북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정책방향 및 향후 과제
 - 전북 중고령여성의 다양성과 특성에 기초한 내실 있고 효과적인 노후준비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전북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역기반 중심의 노후 준비서비스 지원 방향 제시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

- 노후준비 관련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검토를 통해 노후생활 실태, 노후준비 현황과 문제점, 노후준비 및 노후설계 정책동향, 현안과제 등의 내용고찰
- 노후준비지원 관련 법과 지자체 정책사례 분석

2) 통계자료 분석

-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자부가조사 등을 통해 노후실태 및 노후준비 자료 분석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데이터 분석

3) 설문조사

- 조사목적 : 노후인식과 기대, 노후준비 현황, 각 영역별 노후준비정도, 노후준비 여건과 역량,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 및 욕구 등의 실태파악
- 조사대상 : 전북지역 거주하고 있는 50~65세⁴⁾에 해당하는 여성 400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로 조사원을 활용한 개별면접조사 및 자기 기입식조사 병행

4) 본 연구에서 중고령층의 연령범주를 50~65세로 정한 이유는 대부분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고령층의 연령범주를 준용하면서 현재 중고령층을 대표하는 1,2차 베이비붐세대의(1차:1955~63, 2차:1964~74)를 포함하면서도 노후준비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연령을 50~65세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 조사내용 : 노후인식과 기대, 노후준비 현황, 재무,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 등 각 영역별 노후준비정도와 구체적 행위, 노후준비 어려움, 노후준비 여건 및 노후 취업활동 의향, 노후준비 서비스 인지도 및 경험, 향후활용 의사 및 욕구 등

4) 심층면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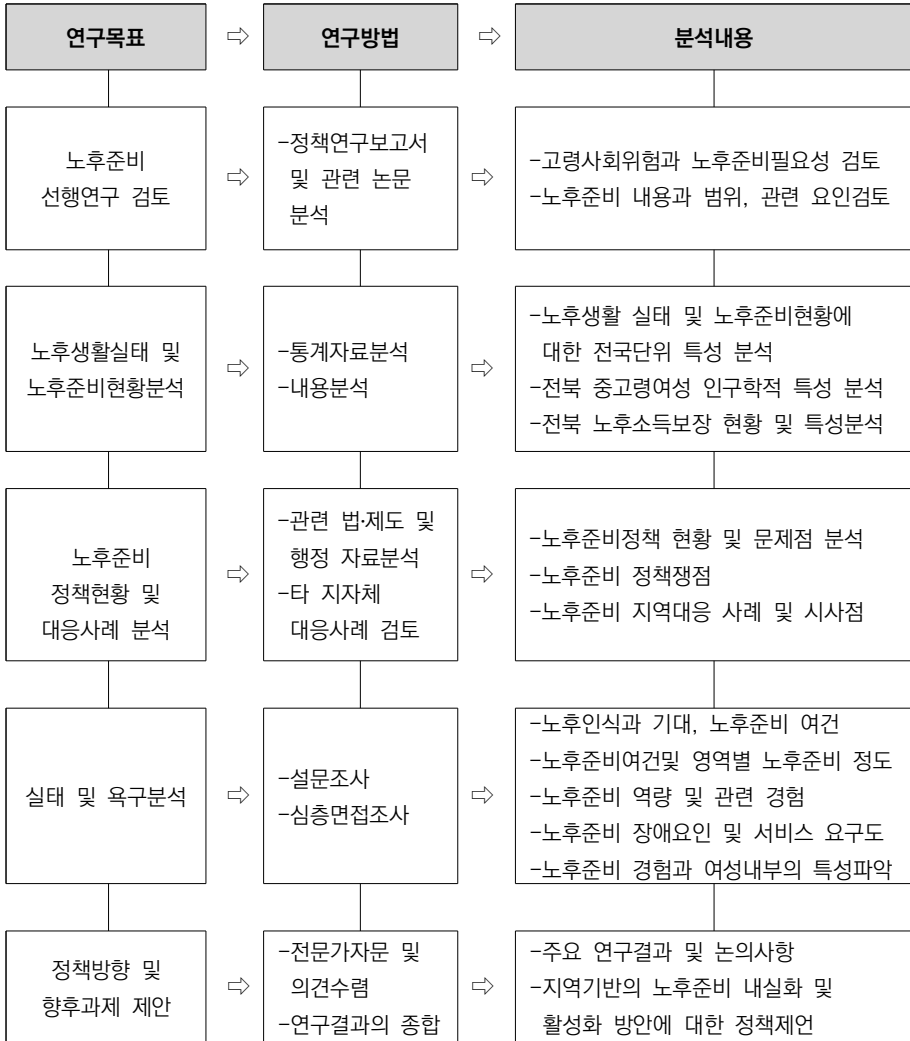
- 조사목적 : 표준화된 설문조사에서 도출되기 어려운 노후준비에 관한 다차원적이고 다각적인 맥락을 분석하고자 노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노후기대, 노후준비 행위와 수준, 노후준비 정책욕구 등
- 조사대상 : 지역, 직업, 배우자 유무, 연령 등을 안배하여 18명
- 조사방법 :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1대1 심층면접조사
- 조사내용 : 생애 직업이력과 향후 직업 활동 의향, 노후준비와 자녀부양관, 노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노후기대, 노후준비 행위와 수준, 노후준비 역량, 노후준비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견해 등

5)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 연구방향, 정책방향 등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특성과 관련 지원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다. 연구추진 절차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진행 절차와 흐름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라. 용어정의

1) 노후준비

- 노후준비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노후준비는 노후에 안녕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상태와 그런 상태를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준비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음
- 2015년 6월에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하면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에서는 ‘노후준비영역’을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공단 산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등을 통해 노후준비로 진단하는 지표 역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4가지 범주에 기초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노후준비의 정책접근 통합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4가지 범주를 노후준비 영역으로 보고자 하였음

2) 중고령여성

- 본 연구의 서론부분에서 기술하였듯이 중고령층의 명칭과 연령범주는 관련법과 계획에 따라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서는 대부분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고령층의 연령범주를 준용하여 50~65세로 보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 연령을 50~65세로 한정하여 보고자 한 의도는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노년기에는 노후준비가 어렵다고 보고, 현재 경제활동 중에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사회보장이 개시되는 직전시기인 65세전 까지를 노후준비가 필요한 시기로 보고자 하였음

2

장

노후준비에 관한 이론적 고찰

Jeonbuk Institute

-
1. 노후준비 필요성 : 고령사회 위험과 노년기 인식변화
 2. 노후준비 선행연구 검토
 3. 노후준비영역과 관련 요인

제 2 장 노후준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노후준비 필요성 : 고령사회 위험과 노년기 인식변화

가. 장수사회와 노년기의 확대

1)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의 심화

- 2018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8만 1천명으로 총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1,853만 6천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41.0%를 차지할 것으로 추계(통계청, 2016, 장래인구추계)
- 이와 같은 노인인구는 2015년 662만 명에서 2030년 1,269만 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2050년에는 약 1,800만 명으로 약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고령화의 심화 및 가속화가 진행 중임

〈표 2-1〉 인구 추이¹⁾

(단위 : 천명, %)

	총인구	65세 이상	구성비	연령대별 인구 및 구성비					
				65~69세	구성비 ²⁾	70~74세	구성비 ²⁾	75세 이상	구성비 ²⁾
2000	46,136	3,375	7.3	1,377	40.8	919	27.2	1,078	32.0
2005	47,279	4,372	9.2	1,683	38.5	1,255	28.7	1,434	32.8
2010	48,580	5,434	11.2	1,817	33.4	1,569	28.9	2,049	37.7
2017	51,423	7,171	13.9	2,315	32.3	1,756	24.5	3,100	43.2
2018 ³⁾	51,635	7,381	14.3	2,360	32.0	1,798	24.4	3,223	43.7
2020	51,974	8,134	15.6	2,661	32.7	1,991	24.5	3,482	42.8
2030	52,941	12,955	24.5	4,081	31.5	3,553	27.4	5,320	41.1
2040	52,198	17,120	32.8	4,242	24.8	4,038	23.6	8,840	51.6
2050	49,433	18,813	38.1	3,770	20.0	3,680	19.6	11,363	60.4
2060	45,246	18,536	41.0	3,612	19.5	3,184	17.2	11,740	63.3

주 : 1) 외국인 포함

2)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구성비

3) 2017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018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자료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초과함에 따라 전국의 17개 시도 중 10개 도시가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 경북, 전북은 20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30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전라북도, 2018, 전라북도 노인복지증진계획)

2) 평균 기대수명 증가와 후기노인 인구의 증가

-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 (남 58.7세, 여 65.6세)에서 2016년 82.4세 (남79.3세, 여 85.4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88.6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07년부터 OECD 평균수준을 상회하여 최장수국가 수준에 근접(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평균수명은 과거 45년간 20세 증가하였으나 향후 45년간 7세 추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9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15년 16만 명에서 2060년에는 약 2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
- 노인인구 중 85세 이상에 해당하는 후기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8.3%에서 2050년 20.6%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고령화도 심화 될 것임

〈표 2-2〉 인구규모 및 구조변화

(단위 : %)

구분	2000	2015	2020	2030	2040	2050
총인구대비 전체 노인인구 비율	7.3	13.1	15.6	24.5	32.8	38.1
노인인구 중 후기노인인구 (85세 이상) 비율	5.1	8.3	10.0	10.4	12.6	20.6

주 : 1) 2015년 이전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2020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자료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3) 평균 퇴직연령 53세, 퇴직 이후의 장기화 된 노년기

- 2013년 5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8.6세에 불과하여 6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기업 규모별 평균 정년연령(단일정년제)

(단위: 세, %, 개소)

구분	평균정년	전체	54세 이하	55세	56세	57세	58세
전체	58.6	188,443 (100.0)	1,298 (0.7)	46,006 (24.4)	3,635 (1.9)	10,560 (5.6)	41,289 (21.9)
300인 이상	57.5	1544 (100.0)	4 (0.3)	455 (29.5)	76 (4.9)	145 (9.4)	452 (29.3)
300인 미만	58.6	186,899 (100.0)	1,294 (0.7)	45,551 (24.4)	3,599 (1.9)	10,415 (5.6)	40,837 (21.8)
구분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상
전체	2,602 (1.4)	54,014 (28.7)	5,231 (2.8)	3,632 (1.9)	1,479 (0.8)	123 (0.1)	18,573 (9.9)
300인 이상	61 (4)	301 (19.5)	7 (0.5)	0 (0.0)	14 (0.9)	4 (0.3)	24 (1.6)
300인 미만	2,541 (1.4)	53,712 (28.7)	5,224 (2.8)	3,632 (1.9)	1,466 (0.8)	118 (0.1)	18,549 (9.9)

자료 :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013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5년 매경이코노미 조사⁵⁾에 의하면 희망하는 정년 나이는 65세가 가장 많았지만 실제 체감하는 정년은 50~55세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은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60세 미만의 조기퇴직이 심각한 현 시점을 고려할 때 평균수명은 82.4세이고 평균 퇴직연령이 53세에 불과하다면 퇴직 후 29.4년의 긴 시간을 보내야하며 2060년에는 평균수명이 88.6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퇴직 후 35.6년을 보내게 됨
- 향후 인생 100세 시대를 구가한다면 퇴직 이후의 35.6년의 시간이 전체 생애의 40.1%를 차지하게 됨. 이와 같은 점이 시사하는 바는 퇴직 후에 남는 '여분'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에 해당한다는 것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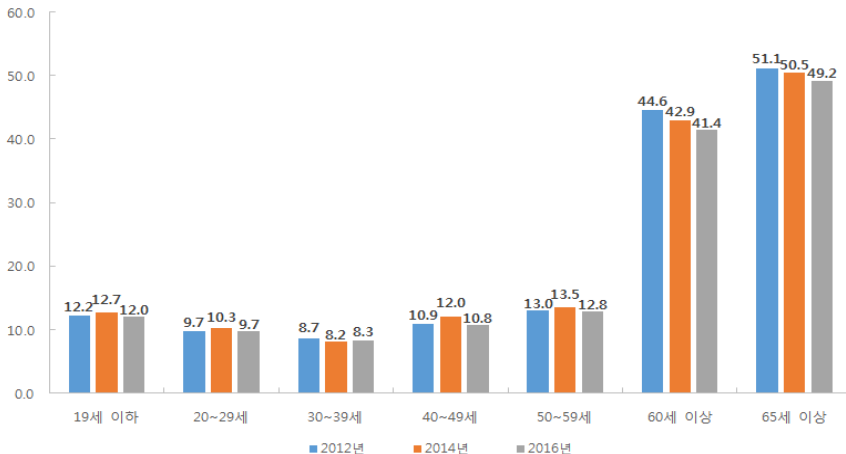
5) 매경이코노미는 2015년 전국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의식조사의 일환으로 희망하는 정년나이와 체감하는 정년 나이를 조사함

6)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상태의 개선으로 더욱 더 길어진 노년기에 대해 마크 프리드만은 '일하기에는 너무 늙고, 죽기에는 젊은 나이인 사람들'로 표현함으로써 노년기가 '역할없는 역할'의 시기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세월을 보낼 수도 없고 마땅히 할 일도 없어 노인들은 심리적 압박감과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에 주목함(마크 프리드만, 2007)

나. 노인빈곤과 노인자살

1)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가운데 최고수준

- OECD에서 정의하는 중위소득 50% 미만 비중을 빈곤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4%로 OECD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임.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19.4%, 독일 9.4% 프랑스 3.8%이며 OECD평균은 12.6%임
- 문제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정책이나 관련 재원규모는 확대추세 일로에 있으나 노인빈곤 문제는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노인빈곤은 2006년 42.8%에서 2010년 46.3%로 상승, 2013년 48.1%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4년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에는 다소 완화되어 2015년 44.8%까지 낮아졌으나 2016년 다시 증가하여 46.5%로 나타남(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 연령별 빈곤율은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40~50대에 소폭 증가하다가 60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등의 제도시행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빈곤율은 2012년 51.1%에서 2016년 49.2%로 1.9%p 소폭 하락하였지만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해당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2-1〉 연령별 빈곤율

2) 노인의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자살율은 높은 수준임

- 노인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은 2014년 기준 5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34.8명, 오스트리아가 32.9명 순임
-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율은 2010년 80.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1년 77.9명에서 2014년 54.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OECD 평균 자살률 18.4명에 비하면 약 3배로 노인자살률이 매우 높은 나라에 해당
-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건강악화가 27.6%, 경제적 어려움이 27.7%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건강 25.2%와 경제적 어려움이 40.4%로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2-4〉 65세 이상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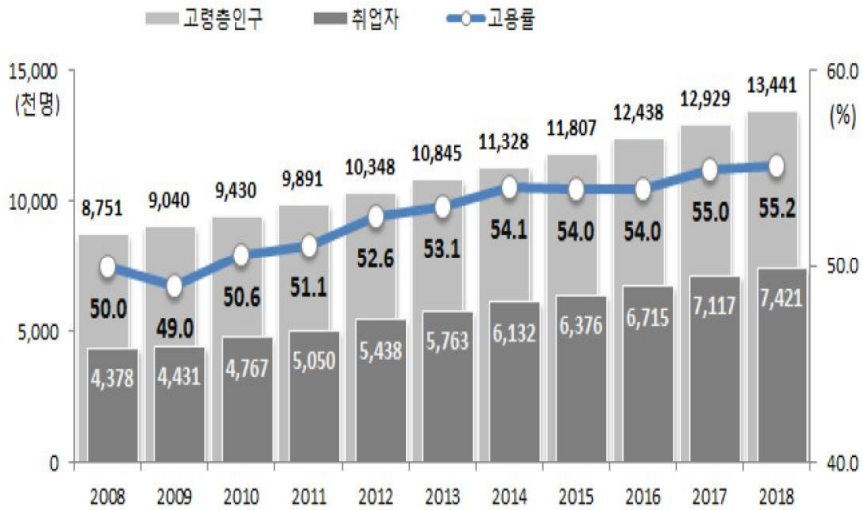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변인 사망	주변인과의 갈등	배우자 가족건강	기타
2014년도	24.4	40.4	13.3	5.4	11.5	4.8	0.2
2017년도	27.6	27.7	12.4	8.3	18.6	4.9	0.6

자료: 통계청(2014, 2017), 노인실태조사

다.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미흡한 노후준비

1) 부족한 노후소득으로 인하여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참가

- 한국의 법적 정상퇴직연령은 61세인 반면, 실제 퇴직연령은 남성 72세 여성 73.2세로 나타남. 반면 OECD의 법적 정상퇴직연령은 남성 64.3세, 여성 63.4세이지만 실제 퇴직연령은 65.1세와 63.6세로 법적장치와 실제적 운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정경희, 2019)
- 2018년 5월 기준 55~79세의 고령층 인구는 1,344만 1천명이고 이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742만 1천명, 비경제활동 인구는 602만 명임. 고령층의 고용률은 55.2%이며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는 매년 증가 추세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18)



자료: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재인용

〈그림 2-2〉 고령층 인구,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64.1%로 이들의 근로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59.0%)'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일하는 즐거움(33.9%)'임. 한편 최근 5년 동안 근로희망 이유로 '생활비 보탬'은 증가 추세이며 '일하는 즐거움'은 감소 추세임
- 근로희망여부는 성별로 남자가 75.6%로 여자 53.6%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중고령자들이 증가함

2)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 의존율이 높고 소득금액은 성별 격차가 큼

- 2012년 기준 노후소득보장실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72.7%, 개인연금 가입자 20.0%, 퇴직연금 가입자는 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지은정, 2013). 이는 퇴직 후 소득원천이 다양하지 못하고, 연금 수령액이 낮은 국민연금 의존율이 높아 노후의 경제적 준비수준이 낮음을 반증하고 있음
- 55~79세 고령자 중 연금수령자는 2018년 기준 612만 9천명으로 4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금수령액은 평균 57만원이고 성별로는 남자 76만원, 여자 37만원으로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 수령금액별로도 성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는 10~100만원에 78.3%가 분포되어 있지만 여자는 61.4%가 10~25만원에 분포되어 있음
- 연도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1988년~1998년에 70%였으나 2028년 이후에는 단 4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경우 저연금으로 인한 노인빈곤이 우려되나 이외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⁷⁾ 무연금으로 인한 노인빈곤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표 2-5〉 연금¹⁾ 수령 현황(55~79세)

(단위 : 천명, %, 만원)

	연금		금액대별 구성비							평균 수령액
	수령자	구성비 ²⁾	소계	10만원 미만	10~25 만원미만	25~50 만원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만원 이상	
2008	2,624	30.0	100.0	32.0	36.9	12.3	5.6	3.6	9.6	41
2011	4,641	46.9	100.0	44.7	25.3	13.8	6.6	2.8	6.8	36
2012	4,696	45.4	100.0	43.1	23.6	15.9	7.4	2.7	7.2	38
2013	5,046	46.5	100.0	36.1	27.3	18.2	8.3	3.1	7.0	39
2014	5,117	45.2	100.0	21.1	39.2	19.7	9.1	3.3	7.7	42
2015	5,251	44.5	100.0	1.5	50.4	24.9	11.1	3.7	8.4	50
2016	5,379	43.2	100.0	0.9	49.2	24.9	12.3	4.0	8.7	51
2017	5,763	44.6	100.0	0.7	46.6	26.2	13.7	4.0	8.8	53
2018	6,129	45.6	100.0	0.6	42.9	27.6	15.0	4.3	9.7	57
남 자	3,181	49.7	100.0	0.5	25.8	29.7	22.8	6.4	14.8	76
여 자	2,947	41.8	100.0	0.7	61.4	25.3	6.5	2.0	4.2	37

주 : 1)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금액

2) 55~79세 인구 중 연금수령자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각년도. 5월 보도자료 재인용

7) 국민연금 통계에 의하면 2015년 7월 기준 장기체납자 112만 명, 납부예외자 458만 명, 적용제외자 1.049만 명 등 이들을 모두 합치면 1,600만 명 정도가 여전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2016)

라. 활동적 노년의 중요성 증가

1) 100세 시대 도래, 노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유엔의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보고서(2009)에 의하면 향후 100세까지 사는 인구는 2009년 기준 455,000명에서 2050년이 되면 410만 명으로 9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경제 인문사회연구소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도 이후 매년 1년씩 최빈사망 연령이 증가하고 있어 2020~2025년에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추정(이수영,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에서 재인용)
- 인생 100세 시대가 예견되면서 은퇴 후 10~20년을 잔여인생으로 생각하는 수동적 노인복지 정책은 은퇴 후 40~50년의 장기화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적극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100세 시대는 단순히 노인이 급증하는 위기의 시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인간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사회·문화·경제·정치 등 전 영역에서의 변혁이 필요한 기회의 시대로 이해하고 기존 80세 시대에서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향후 100세 시대로 진입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사회 전반의 제도와 시스템, 국민인식은 여전히 80세 시대에 머물러 있음

〈표 2-6〉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의 차이

구분	80세 시대	100세 시대
주요목표대상	취약노인, 베이비 붐 세대	전 국민, 특히 장년 중심
정책영역	취약노인의 건강·주거·소득영역	정부 주도형을 넘어선 사회적 협약
인식	사회적부담, 대체의 대상, 보편적 시혜적 복지, 국가책임강조	사회적 자원, 재출발 부양부담을 국가, 개인, 사회가 나눔
정책대응방식	방어적 소극적 대응, 혜택축소를 통한 복지공급조절	적극적 대응, 교육, 근로 등 고령자 참여를 통한 복지 수요조절

자료: 100세 시대 도래의 경제·사회적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11)

2) 생산적·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 증가와 베이비붐세대

-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미래 노인세대는 현세대의 노인과는 매우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질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붐세대가 맞이하는 노년기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은퇴 후 노년기가 20~30여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년기가 장기화될수록 활동적이고 생산적이며 성공적 노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활동적, 생산적, 성공적 노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노년에 대한 담론으로 WHO는 1990년대 후반 '건강한 노년'보다는 포괄적인 '활동적 노년'을 택함(박성정 외, 2013)
- 성공적 노화는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특성을 지니며 특정영역에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삶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인의 삶에서 균형 있게 통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함

〈표 2-7〉 성공적 노화의 영역

영역의 구분		주요사항
신체적 영역	건강한 노화 (health aging)	- 질병, 장애가 없거나 있어도 생활을 최소한도로 방해, - 일상적 활동을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수준을 유지, 신체적 활력을 보유하는 상태로 노화하는 것
심리적 영역	적응적 노화 (adaptive aging)	- 삶의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건강한 인지기능을 유지 - 자신을 수용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고 자신의 성장을 도모 - 환경적 요구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상태
사회적 영역	생산적 노화 (productive aging)	- 사회적 접촉(가족, 친구, 이웃 또는 이전의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강화 -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정도의 노후소득 준비 - 경제활동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활동에 참여

자료: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매뉴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선행연구에서는 성공적·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다양한 차원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 요인들을 범주화 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인적특성, 가치, 활동, 방식 등의 영역과 세부요인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

〈표 2-8〉 성공적·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역	요인
인적 특성	성, 교육수준, 혼인지위, 자녀, 가족, 건강
가치	자율, 수용, 안정, 안녕, 자립, 안전
활동	경제활동, 사회단체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 교육활동, 자기계발활동
방식	참여, 사회통합, 세대, 결속, 고령친화 환경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100세시대 노년기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Ⅰ)

- 총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의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산업화와 경제성장, 고학력화와 민주화, 정보화 지식사회의 도래 등 한국사회의 변동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세대로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매우 이질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음(김도균 외, 2016)
 - 기존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경험과 욕구를 지닌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이들의 노후준비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
- 복지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인식조사’(2016)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정도는 46.3%에 불과하고 노후준비 영역에서도 여전히 자산 등의 경제적 준비(86.4%)에 치우쳐 있으며 정서적 준비(29.6%), 여가·취미생활(21.5%), 사회적 관계(18.8%) 등에 있어서는 노후준비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김도균 외, 2016)

3) 노후준비 취약계층으로서 중고령여성

-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경력단절과 직업경력 등의 부족으로 연금가입 비율 및 수령금액도 낮음. 따라서 여성들은 노후준비도가 남성보다 낮아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큼
 - 다음의 표는 제 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8) 결과로 2017년 기준 60세 이상의 공적연금⁸⁾ 수급률은 37.6%이고 공적연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8) 공적연금종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대별되며 특수직역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있는 국민연금 수급률은 32.6%임

- 한편 수급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의 2배 정도 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공적연금 자체가 기여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오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남성의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임

〈표 2-9〉 공적연금 수급자 특성

(단위: %)

구분		공적연금수급자	국민연금수급자
성별	남	64.7	64.2
	여	35.3	35.8
연령대	60대	59.2	61.2
	70대	35.7	35.0
	80대	5.1	3.8
최종학력	임금근로자	21.4	23.1
	비임금근로자	28.0	30.6
	비취업자	50.7	46.3

주 : 1) 60세 이상의 응답자 중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2) 통합가중치 적용

자료 :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제7차(2017년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이와 같이 노후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들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빈곤 노년여성을 위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과 학습기회 등을 제공하여 노년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2. 노후준비 선행연구 검토

가. 일반인 대상의 노후준비 관련 연구

- 노후준비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영향요인, 노후준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상태,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연금수급 여부, 은퇴 후 필요소득, 필요자금의 적정성이나 충분성 등 주로 경제와 재정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옴
 - 노후준비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재정적 상황은 은퇴준비를 위한 주요한 자원에 해당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변화되기 어려운 구조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은퇴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기에는 부족
- 최근에는 소득과 자산 등 재정 이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반적인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다양한 주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격년으로 실시.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측면에서의 노후시기 해당여부, 경제, 정서, 사회, 신체적 측면에서의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에 따라 노후준비지원 정책의 5개년 수립을 위해 전국의 35세 이상 69세 이하를 대상으로 사회적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활동, 소득과 자산 등에 대한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함
 - 노후준비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다양한 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양한 민간금융기관 등)를 통해 이루어짐. 표집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나 시도별 비교분석이 어렵고 표본수의 제한으로 일반화가 어려움. 다양한 계층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분리 통계 사용이 미흡함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정책함의는 제한적
-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격차와 계층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다수 연구결과의 공통점으로는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노후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고 노후준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들의 직업경력 짧고 이로

인한 연금수급권자가 적으며 일부는 남성 생계부양자에 대한 노후준비의 의존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의 연구결과에서는 중장년층 가운데 약 2/3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 다층적인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계층과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는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은퇴 및 노후준비 관련 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제6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2016)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패널은 제1차 조사 시기인 2005년에 구축된 원표본 패널과 2013년 구축된 추가 표본 패널로 구성 • 가계경제, 경제활동상태, 사회보장 적용 실태, 노후생활, 삶의 질에 대한 제6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분석 • 2005년에 시작된 1차년도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부터 2015년에 시행된 6차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까지 모든 조사데이터를 분석하여 패널조사 차수별 종합 비교분석 실시	• 조사방법 : 패널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의 개인 • 표본 수 : 5,110 가구 8,689 명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국민들의 노후준비 현황 및 노후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현황 파악 • 노후준비 서비스의 특징 및 연혁, 인프라 현황 파악 • 노후준비 실태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 •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책적 방향 및 내용 제시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만 35세이상 69세이하 남녀 • 표본 수 : 1,539명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민연금연구원, 2016)	•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국내외 사례조사 •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수요 및 요구 조사 및 분석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만 40세이상 59세이하 사업장 근로자 • 표본 수: 529명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 장애인의 노후준비와 장애인의 노후준비 지원정책 및 서비스 현황 파악 • 기존에 이루어진 장애인이나 노후 관련 조사(2011 장애인 실태조사, 제3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중 중고령 장애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차분석 • 장애인과 관련 민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문제점과 요구를 도출 •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설정하여 제시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장애인(5명) 실무자(5명) • 표본 수 : 10명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2)	• 노후준비 의의와 유형, 노후준비 방법 분석 • 농업인의 고령화 실태와 전망분석 • 공적 노후보장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 농업인의 국민연금가입 및 수급실태 및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 조사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대상 농업인 • 표본 수 : 2500명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한국보건 사회연구원,2010)	• 노후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노후설계서비스 수행체계 •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방안 • 노후설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 노후설계 관련 서비스 국내 사례조사 • 국민의 노후설계서비스 인식 및 욕구조사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45~64세 남녀 • 표본 수 : 1000명

나. 베이비부머 대상 선행연구

- 노후준비에 대한 베이비부머 대상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경제사회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세대특성에 주목하기 위함과 인구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한 정책차원에서 진행
 -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2017년 기준 전체인구의 13.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2020년부터 노년기에 진입, 이들은 학력수준이 높고 문화활동과 경제적 여유 및 사회참여 등에 있어 기존의 노인세대와 다르다는 세대의 공통된 특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음
 - 베이비붐세대는 오히려 그전 세대에 비해 학력, 직업경력 등 세대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세대 내부의 이질성에 기초한 노후준비 실태를 파악하려는 연구
- 현재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은 주로 남성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이들의 특성에 기초한 정책대응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 베이비붐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방안은 주로 남성은퇴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유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중심으로 함. 따라서 여성베이비부머의 다수는 남성가장의 소득과 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의 여성노인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베이비붐세대 남녀 특성 비교연구(2010)에 의하면 베이비붐세대의 여성 국민연금 가입률은 50% 이하로 나타나 이들 중 다수가 노후를 남성이장이나 가족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별 등으로 이들 여성의 노후생활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부머는 세대구분의 분수령으로 인식되는 바,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추진되고 있지만 노후준비와 관련해서는 노후준비가 전 생애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사후적 복지가 아닌 예방적 복지서비스인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의 연령 확대와 생애주기적 관점, 노후준비 영역의 포괄성 등을 강조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표 2-11〉 베이비부머 대상 관련 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경기도 베이비부머 노후준비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6)	• 베이비붐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징 및 세대 간·세대 내 비교 연구 현황 파악 • 경기도 베이비붐세대(1955년~1970년생)를 대상으로 경제적 영역과 비경제적 영역으로 나누어 노후준비 실태조사 • 노후준비 지원체계의 구성 및 유형비교, 노후준비지원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기도형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지역 : 경기도 • 조사대상 : 베이비부머 세대 • 표본수 : 851명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13)	• 베이비부머 현황과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 보유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와 관련제도분석을 통해 현행의 소득세제가 노년층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5060세대의 여가문화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	• 통계청 및 기존의 각종 조사를 활용한 2차 통계 분석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노후 복지를 위한 종합대책 (부산복지개발원, 2015)	•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의 현황 및 추이 분석 • 기존 실태조사를 활용한 베이비부머의 욕구 및 정책과제 분석 • 초점집단면접 및 심층면접을 통한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욕구 분석 • 베이비부머 관련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 AHP 분석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선정	• 조사방법 : FGI / 심층조사 • 조사지역 : 부산 • 조사대상 : 공공기관 은퇴자, 전문직 은퇴자, 일반기업은퇴자 및 자영업자 등 • 표본수 : 15명 / 5명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10)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베이비부머의 성장배경 및 특징 파악 • 베이비부머의 가족·사회관계, 건강상태 및 행태, 경제상태 및 소비스타일, 경제활동, 사회참여 실태, 노후 가치관 및 정책인지도를 조사 및 분석 • 조사결과를 통한 정책제언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46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 표본수 : 3,027명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울산지역 베이비부머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울산발전연구원, 2014)	• 베이비부머들의 특성 및 울산지역 베이비부머 현황 파악 • 울산지역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조사 및 분석 • 분석을 통한 울산지역 베이비붐세대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지역 : 울산 • 조사대상 : 40세 이상 50세 이하 남녀 • 표본수 : 400명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대전복지재단, 2015)	•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데이터 중 사회복지, 소득·소비, 보건, 문화·여가, 공동체 등의 문항에 대한 베이비붐세대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 • 분석 결과를 통한 베이비부머 지원정책의 방향성 설정	• 2013년, 2014년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데이터 2차 통계 분석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의 관련 요인 탐색; 심리적 요인과 자원 요인을 중심으로 (한경혜·김주현·백 옥미, 2012)	•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인 은퇴전망과 통제감, 자원요인인 물질 자원과 인지적 자원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은퇴준비자의 심리적 요인과 자원 요인이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 및 건강 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연구 결과 및 결과를 통한 사회적·정책적 개선 방향 제시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베이비부머 (1955-63 출생) • 표본수 : 3,783명
베이비붐세대 남녀 특성 비교연구(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0)	• 베이비붐세대의 경제활동 현황 • 가구소득 및 자산 •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취업력 변화 등 베이비붐세대 전체특성을 제시하고 남녀차이를 설명, 베이비붐세대와 전세대, 중간세대, 2차 베이비붐세대 특성을 비교 • 베이비붐세대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성별차이를 설명	• 조사방법 : 통계자료분석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베이비부머 (1955-63 출생)

다. 여성대상 연구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준비에 관한 연구는 성별 격차에 주목
 -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기대여명이 길지만 평균 직업경력이 부족하고 공적연금 수급권자 비율은 낮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적 특성이 노후의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점 등에 주목
 - 노년준비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그간 남성은퇴자를 모델로 하거나 현재 취업 중에 있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여성, 비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와 특징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고령화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여성들의 노년준비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 100세 시대라는 수명 연장과 길어진 노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노화와 성공적 노화 등에 관심을 갖고 중고령여성의 학습·일·여가 등 통합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노후준비 교육 외에 노후준비 진단과 상담, 노후설계 교육 등 구체적인 노후설계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노후설계서비스 참여요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노후설계 인식과 역량강화 방안제시 연구
- 이상의 노후준비 실태 연구 외에 본 연구의 대상연령층인 중고령여성을 대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중고령여성의 재취업과 인력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있음
 -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여성의 취업경험과 취업여부, 재취업의사 등은 주요한 변수에 해당하므로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주요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2-12〉 여성대상 관련 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 : 학습, 일, 여가 참여 실태와 요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3)	• 노년층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과 요구, 직업훈련 참여 경험과 요구, 노후설계교육 참여 경험과 요구 등 학습 참여 실태 조사 • 노년층 여성의 취업 경험, 미취업 사유 및 구직 경험, 은퇴 경험, 취업요구 등 일 참여 실태 조사 • 노년층 여성의 여가활동 경험, 여가에 대한 태도 및 요구 등 여가 참여 실태 조사 • 생산적 노년 욕구와 생활만족도 • 노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전기/중기/후기) 학습, 일, 여가 특성 조망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만 55세이상 여성 • 표본수 : 3,809명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 : 노후설계를 통한 역량강화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4)	• 노년층 여성들의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위한 노후설계의 필요성 및 의미와 노후설계서비스의 범주를 정리 •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노후설계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해외 노후설계 관련 동향 제시 • 노후준비 인식과 노후설계서비스 참여실태 및 요구 조사 • 노후설계서비스 참여자의 경험과 개선요구 분석 •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노후준비에 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제시	• 조사방법 : 설문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만 40세이상 69세미만 여성 • 표본수 : 2,011명 •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조사대상 : 노후설계 이용 경험이 있는 중고령여성 • 표본수 : 33명
대구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방안 : 중고령 여성을 중심으로 (대구여성가족재 단, 2016)	• 대구시 여성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 현황 및 특성 파악 • 대구시 중고령여성 일자리 지원 기관 및 사업, 이용자 현황 파악 • 초점집단면접조사를 통한 대구시 중고령 여성의 특성 및 취업실태 분석 • 대구시 중고령여성 일자리 지원 정책의 방향 제시	• 조사방법 : 초점집단면접조사 • 조사지역 : 대구 • 조사대상 : 50세이상 64세이하 여성 및 취업연계담당자 • 표본수: 26명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경기도베이비붐 세대의 가족생활 및 노후준비 (경기도가족여성 연구원, 2011)	• 베이비붐 코호트에 관한 이론적 논의 • 경기도 베이비붐세대의 현황분석 • 경기도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분석 • 경기도 고령화사회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언	• 통계자료분석 •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경기도 베이비부머 남녀 • 표본수 : 660명

○ 노후준비에 대한 여성 내부의 다양한 차이와 특성을 색출하기 위한
질적 연구

- 패널데이터나 설문조사 등의 양적연구 방법은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전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으나 변수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중고령여성 내부집단의 다양한 차이와 이질성에 기초한 노후준비 실태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려는 연구 등이 추진됨

〈표 2-13〉 여성대상 관련 질적연구 검토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강원도 중고령여성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노후준비실태 사례연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강원도여성가족 연구원, 2015)	• 강원도에 거주하는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현황분석 • 결혼지위, 학력, 직업경험 등의 차이를 고려한 베이비붐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실시 및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의 노후준비실태 분석 • 현재 강원도에서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및 서비스 현황 점검 • 향후 지자체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여성을 지원할 정책적 지원의 방향과 세부 사업 및 프로그램 제안	• 조사방법 : 심층면접 조사 • 조사지역 : 강원도 • 조사대상 : 베이비붐 세대 여성 • 표본수 : 30명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 구원, 2013)	•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을 젠더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성별 정책수혜 정도를 확인 • 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여성노인의 빈곤원인과 실태현황 확인 •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 다양한 노인통계자료 분석과 심층면접 분석을 병행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여성노인의 빈곤 실태를 밝히고 그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를 제안	• 조사방법 : 심층면접 조사 • 조사지역 : 전국 • 조사대상 : 1~3등급의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며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빈곤상태의 노인 • 표본수 : 여성 27명, 남성 5명
중·고령기 여성의 재취업 경험과 생애적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서미경, 2012)	• 국내외 중고령여성의 경제적 상황 및 재취업 현황 분석 • 중고령여성에게 재취업이 주는 생애적 의미 조망 •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중고령기 여성의 재취업 경험 및 재취업 경험이 부여하는 생애적 의미 분석	• 조사방법 : 심층면접 조사 • 조사지역 : 서울, 경기도, 광역시 거주자 • 조사대상 : 조사 시점 취업 중이며 현재 직장에 취업한지 1년 미만인 유배우 50~64세 기혼여성 • 표본수 : 6명
여성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유형화 연구(심우정외, 2016)	• 여성집단 내에서의 개인이 처한 상황과 특성에 따라 퇴직경험이 다양하게 전개됨에 주목 • 은퇴자의 정체성 및 일에 대한 동기유형을 일지향형, 자아실현형, 의미추구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특성을 분석	• 조사방법 : 사전질문과 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 여성은퇴자 • 표본수 : 16명

3. 노후준비 영역과 관련 요인

가. 노후준비 영역

-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한 노후준비 지표와 변수는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연구목적에 따라 상이하게 분류, 사용하고 있음
- 그간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는 ‘재무중심’으로 제한적인 내용을 다루어왔으며 조사대상에 있어서도 은퇴를 앞둔 연령층을 주요 타깃으로 추진해왔다는 비판과 반성을 계기로 노후준비 영역을 확장하고 생애주기적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와 지표를 사용
 - ①지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보험개발원 등 민관협의회를 통해 체계화 된 노후지표를 개발한 것으로 사회적 관계 11개, 건강 12개, 소득과 자산 12개, 여가 7개 등 총 42개 지표로 구성됨
 - 국민연금공단이 2011년부터 마련해 온 초기지표는 수정과 보완을 통해 현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지표의 간소화와 적용대상(40대 중반 이후 적용을 상정하고 마련됨)의 제한으로 문제가 제기됨. 따라서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지표의 세분화와 사회인구학적(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 조건을 반영한 지표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주체(기관)와 연구배경에 따라 관련 변수와 내용은 다소 상이하나 공통된 변수로는 노후준비 영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신체(건강), 경제(재무·경제활동), 사회(여가 및 사회활동)영역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음
- 여성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차원적인 영역의 지표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되 노후준비 역량 및 노후설계서비스 요구 관련 지표까지를 확대하고 있음(④, ⑤해당)
 - 기존의 노후준비나 노후설계프로그램이 남성은퇴자를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지만 여성들의 재무상태, 사회참여역량, 여가자원 활용력 등은 남성과 다른 특성이 많기 때문에 성차를 고려할 수 있는 노후준비와 노후설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노후준비에 관한 공통의 4가지 변수(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사용하면서도 노후준비서비스의 참여경험과 요구도의 차이가 개인의 성공적이고 생산적 노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판단하고 있음

- 남성과 여성의 노후인식에 대한 차이는 '남성-주소득자'와 '여성-돌봄노동제공자'로서의 성별역할 모델이 노후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소영, 2009) 성별차이에 따른 노후준비도 다를 것으로 예측됨
 - 여성들은 생애과정에 따른 직업경력(무급가족종사자, 경력단절, 전업주부, 재취업 등)과 이러한 직업경력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공적연금 수급여부와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다를 것이며 가족돌봄 여부나 가구특성에 따라 여성 내부 안에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다양한 변수까지를 노후준비 지표 영역에 포함하고자 함
 - 특히 노후준비에 따른 구체적인 노후설계 등의 노후준비 역량에 있어서는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과 경험, 관련 서비스의 경험 및 인프라 구축정도와 도-농간의 격차, 학력과 소득수준 등 여성 내부집단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박성정외, 2014) 관련 변수까지를 노후준비 영역으로 포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는 4가지 영역 즉,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을 노후준비 범위로 한정하고자 함
- 2015년 6월에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하면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에서는 ‘노후준비영역’을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4가지 범주에 기초하여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노후준비의 정책접근 통합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4가지 범주를 노후준비 영역으로 보고자 함
 -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4가지 영역은 경제적 준비(소득과 자산), 신체적 준비, 사회적 준비(대인관계), 정서적 준비(취미와 여가) 등의 포괄적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각 영역에 해당하는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목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존재함

〈표 2-14〉 선행연구의 노후준비 관련 지표 및 변수

구분	노후준비관련 진단지표	
① 노후준비지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012)	사회적관계	- 배우자와 대화 충분성 - 배우자와 동반 외출빈도 - 자녀와 대화 충분성 - 자매와 만나는 빈도 - 자매로 부터의 도움이나 지원 가능성 - 친구와 만나는 빈도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의 수 - 친구·이웃으로부터의 도움이나 지원가능성 - 참석하는 모임의 수 - 대인관계 영역의 절대적 및 상대적 중요도
	건강한 생활습관	- 스스로 인식한 건강상태 - 만성질병 유무 및 만성질병수 - 스트레스 정도 - 흡연유무 및 빈도 - 음주횟수 - 정기적인 운동실천정도 - 균형잡힌 식습관 실천정도 - 건강유지를 위한 체중관리 - 피로회복을 위한 수면충분성 -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예방적 건강관리 - 건강상태와 건강생활실천 행위의 절대적 및 상대적 중요도
	소득 및 자산	- 소득활동기간 측정을 위한 은퇴연령 - 소득안정성 - 소득활동 중단 후 제2의 일을 위한 준비 -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또는 장기저축 - 은퇴 이후 필요 생활비 - 공적연금 예상수령액 또는 수령액 - 퇴직연금 예상수령액 또는 수령액 - 개인연금 예상수령액 - 노후자금 활용가능한 금융자산 - 노후자금으로 활용가능한 부동산자산 - 준비여건, 행태, 인식, 자산 현황의 절대적·상대적 중요도
	여가활동	- 노후의 취미여가생활에 대한 고려여부 - 노후를 고려한 취미여가활동 시도여부 - 현재 여가활동의 노후 지속여부 - 현재 취미여가활동 - 현재 하고있는 취미여가활동의 지속성 - 노후여가관여도, 현재여가생활의 적극성에 대한 절대적 중요도 - 노후여가활동관여도, 현재여가생활의 적극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구분		노후준비관련 진단지표	
②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국민연금공단 , 2016)	가계경제	♦ 가계의 소득 현황 ♦ 가계의 지출 현황	♦ 자산 보유 실태 ♦ 부채 보유 실태
	경제활동 상태	♦ 중·고령자의 취업상태 ♦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의 근무형태	♦ 은퇴에 대한 생각 ♦ 은퇴 후 예상 생활비
	사회보장 적용 실태	♦ 공적연금 가입·납부·수급 여부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의료보장 가입·수급 여부
	노후생활	♦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 및 사건 ♦ 노후 생활비 수준 및 준비방법	♦ 개인/사회적으로 중요한 노후대책 ♦ 여가생활 종류 및 소요시간
	삶의 질	♦ 부모의 생존 및 동거 여부 ♦ 가족 구성원 돌봄 여부 ♦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 ♦ 삶의 만족도	♦ 주관적인 신체 건강상태 ♦ 우울 및 장애 여부 ♦ 건강상 문제로 일상·사회활동 제한여부

구분		노후준비관련 진단지표	
③ 노후준비실태 조사 및 노후준비지원 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16)	사회적 관계	- 배우자 및 자녀와의 대화정도 - 배우자와 동반외출 빈도 - 형제자매·친구와의 만남, 접촉빈도	- 형제자매·친구의 도움 정도 -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
	건강한 생활 습관	- 주관적 건강상태 - 알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 - 스트레스 정도 - 비만지수(BMI) - 건강 체중 유지 노력 - 정기적 건강검진	- 흡연 여부 - 음주 정도 - 규칙적 운동 - 균형적인 영양 섭취 - 수면시간
	여가 활동	- 노후 여가활동 고려 여부 - 노후를 고려한 여가활동 참여 경험 - 노후 여가활동 변화 예상	- 여가활동 정도 - 여가활동 지속 기간
	소득과 자산	- 본인 및 배우자 예상 은퇴 연령 -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안정성	- 제2의 일을 위한 준비여부 - 본인의 월평균 예상 노후소득
④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 II ; 노후설계를 통한 역량강화 (한국여성정책 연구, 2014)	노후준비 현황	- 건강 영역 준비도 - 대인관계 영역 준비도 - 여가 영역 준비도 - 재무 영역 준비도	- 노후 연금 수령 여부 및 액수 - 노후준비의 어려움 및 중요성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역량 - 노후준비 활동
	생활만족도	- 삶 영역 생활만족도 - 건강 영역 생활만족도 - 여가 영역 생활만족도	- 가족관계 영역 생활만족도 - 사회관계 영역 생활만족도 - 재무 영역 생활만족도
	노후설계 서비스 경험	- 노후설계서비스 참여 경로 - 노후설계서비스 참여 동기 - 참여한 노후설계서비스 기관	- 노후설계서비스 만족도 - 노후설계서비스 사후서비스 - 노후설계서비스 교육 경험
	노후설계 서비스 요구	- 노후설계서비스 진단 요구도 - 노후설계서비스 상담 요구도	- 노후설계서비스 교육 요구도 - 노후설계서비스 사후지원 요구도

구분		노후준비관련 진단지표	
⑤ 100세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 I ; 학습·일·여가 참여 실태와 요구 (한국여성정책 연구, 2013)	교육 및 학습 활동 실태	♦ 교육 참여 경험 ♦ 평생교육 수요 및 지원요구	♦ 직업교육 경험 ♦ 노후설계 교육 참여 경험
	일 활동 실태	♦ 취업 경험 ♦ 미취업 사유 및 구직 경험	♦ 은퇴경험 및 만족도 ♦ 일 영역에 대한 향후 노후 계획
	여가 활동 실태	♦ 여가활동 경험 및 비용 ♦ 동호회 및 친목회 경험 및 만족도	♦ 봉사활동 경험 및 분야 ♦ SNS 활용 정도 ♦ 여가활동 관련 인식 및 기대

나. 노후준비 관련 요인

1) 개인특성 요인

-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개인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거주지역 등으로 보고 있음. 특히 연령은 노후준비 수준과 노후준비 영역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
 - 연령은 노후준비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노후를 더욱 구체적, 적극적으로 준비하거나 인식하는 것으로 봄(김경아, 2014; 진주영 외, 2015; 이정화, 2009; 변진숙 외, 2016, 김양이 외 2008)
 - 이러한 연령의 영향력은 노후준비의 영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신체적, 정신적 노후준비는 연령이 높을수록 잘되고 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는 나이가 들수록 잘 안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박창제, 2008; 강유진, 2005; 배문조, 2011)
 - 노후준비에 대한 연령효과를 분석하려는 대부분의 연구는 중고령층이나 은퇴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후준비의 불안이나 사회적 경제 부담에 대한 논의와 노후준비의 주체를 개인적 관점에서 보려는 일부 연구들은 노후준비 연령을 집단 간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음(강유진, 2005; 이여봉, 2011; 김경아, 2014)
 - 연령에 대한 노후준비 효과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코호트 분석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베이비부머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와 이후세대 구분하여 세대 간의 차이를 분석하려는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음(변진숙, 2015; 조성숙 외 2011; 고은미, 2018; 변진숙·권찬호, 2016; 김미령, 2011)
-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나 노후생활 계획을 철저히 하고 이로 인해 노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 등이 있음
 -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신체적, 경제적, 취미나 여가 등 사회생활 부분에서의 노후 생활 대비를 더 많이 하거나(박진성, 2010; 변진숙 외, 2016에서 재인용) 노후계획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남(강유진, 2005; 송명숙, 2002, 진주영 외, 2016)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정체감을 확립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긍정성이 높아 성공적인 노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 또한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안정은 노인의 다양한 활동기회를 높여주어 노후생활 적응과 성공적인

노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봄(강유진, 2005; 박진성, 2010). 이러한 결과들은 학력과 소득은 서로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준비나 수준에 일관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성별에 따라 노후준비율과 준비능력, 노후준비 영역 등 노후준비 수준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노후준비에 있어 성 격차에 주목하는 연구는 다수임. 남녀 간 노후준비 실태를 비교한 결과에서 일관되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준비율과 준비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7; 국민노후보장패널 2005년~2017년 제7차, 2018; 보건복지부, 2015)
- 노후준비 영역에 있어서는 성에 따라 일관되지는 않으나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건강관리에 더 적극적이고 노후준비를 잘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정서적 노후준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강유진, 2005; 황승일, 2000; 임경자, 2002; 이정화, 2009에서 재인용)
-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후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고 걱정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 노후준비에 있어 성별격차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남성에 비해 저조하고, 직업경력에서의 차이, 남성중심의 소득보장체계, 남성에 의존하는 가부장적 문화의 흔재 등이 노후준비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임

○ 거주 지역에서는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노후준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이는 도시거주자들이 농촌에 비해 급여가 많은 안정적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 거주여건상 생계비용이 높아 노후준비 필요성이 농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봄(문숙재·김순미, 1997; 이여봉, 2011에서 재인용)

2) 가족특성 요인

- 노후준비에 관련된 가족요인은 부양부담, 부양가족, 동거형태, 결혼상태(유배우 유무) 등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가치와 핵심적인 삶의 원리로 보기 때문임
- 지금의 중고령세대에 해당하는 50~60대 성인들은 가족 안에서 노부모와 자녀세대 등 두 세대 모두에게 정서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에 해당함(김명자, 1988; 강유진, 2005; 강혜원, 2011)

- 그럼에도 가족가치관이나 가족경험 등이 개인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강유진, 2005). 가족관련 요인으로는 노부모세대와의 근접성이나 자원, 규범성 등에서 전통적인 세대관계를 유지하는 중년층일수록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극적인 반면, 노부모와 동거는 하면서도 부양관이 약한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김두섭, 2000)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와 일부 연구에서는 개인의 노후준비 주체(개인, 자녀, 국가 등)를 어떻게 보는지 또는 노후부양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정도가 개인의 노후준비 정도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국민노후보장패널, 2016; 신은식, 2002; 황승일 2000)
- 이외에 부부 간의 결혼만족도 역시 노후준비 정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직업경력 및 노후보장(공적연금 수급 등) 요인

- 젠더적 시각이나 관점 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경력 요인과 공적연금 수급여부가 은퇴시기나 은퇴경험 또는 노후준비나 노후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음
-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의 은퇴경험이나 노후준비를 이해하는데 기존의 '남성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 여성의 일이나 은퇴는 가족상황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가족돌봄 문제나 부모부양 등 여성에게 부과된 성 역할에 의해 여성근로자는 자신의 은퇴시기나 은퇴 과정이 영향을 받기 때문임
- 따라서 여성근로자들의 가족관련 변인과 함께 생애과정동안 이들이 지녀온 직업경력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성미애·옥선화, 2006; 한경혜, 2007; 강혜원, 2011). 이들 연구에 의하면 직업생활로 인한 보상이 적고 가족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성일수록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연령이 빨라진다고 봄
- 노후준비에 있어서의 성차이는 노후 사회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 여성의 '관계중심적' 성향이 나타남. 한편,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남성은 취미활동을 여성은 학습이나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는 중년 남성층에게 요구되어지는 직업몰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년 남성에게 직업활동 이외에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은퇴 후의 남성노년의 고독감, 우울감, 무력감 등을 감소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봄(김백수·이정화, 2010)

- 노후준비에 대한 기대나 수준에 있어서 여성 내부의 이질성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음. 이는 여성의 취업과 비취업 집단의 차이, 베이비붐세대와 이전이후세대 등 세대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고자 함
-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관련 변수'에 주목하는 연구에서는 베이비붐세대가 이전세대보다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책임의식과 경제적 부양대상으로 인식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베이비붐세대의 불균형적이고 장기적인 자녀 지원이 계층에 따라서는 노후의 열악한 삶으로 직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봄(이여봉, 2011)
 - 2030년에 노인인구로 진입하는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4년생)는 전체 인구 중 24.3%를 차지하는 거대집단으로 이들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이전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에 비해 사회참여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직업변수가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직업효과는 미미하여 이들이 지닌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문화여가활동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변진숙·권찬호, 2016)
 - 은퇴기대와 노후준비에 있어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있어서는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 은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취업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성은 은퇴 전후의 삶이 큰 변화를 수반하지만 비취업여성에게는 연속적인 관점에서 은퇴를 받아들이기 때문임(이남·한정란, 2014)
 -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심리적 요인(은퇴전망과 통제감)이 은퇴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짐. 은퇴 후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재정적 준비수준이 높고 은퇴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적 준비와 건강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한경혜, 김주현, 백옥미, 2012)
 -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을 강조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노후준비에 대한 정보와 지식, 노화에 대한 이해 등 은퇴자식의 인지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자원접근에 대한 여성 내부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3

장

노후준비 현황 및 지원정책

-
1. 노후생활 실태
 2. 노후준비 실태 및 문제점
 3. 노후준비 지원정책 및 사례

제 3 장 노후준비 현황 및 지원정책

1. 노후생활 실태

- 중고령 세대의 노후생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분석결과를 차수별로 비교해보고자 함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는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있는 만 50세 이상의 개인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계경제, 경제활동상태, 사회보장 적용실태, 노후생활 실태, 건강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함
- 패널조사의 특성상 2005년 최초 조사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 대상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50대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공백을 채우기 위해 2013년 50~57세의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통합표본을 구축함

가. 노후의 주관적 인식

-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4차와 5차에서 각각 평균 67.6세와 67.5세로 나타났으며 이후 6차 조사에서의 평균은 67.9세, 7차 조사의 평균은 68.5세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노후가 시작된다고 인식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모든 조사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후시작 시기를 늦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시작 시기를 빠르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 취업형태별로는 5차 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비임금근로자가 노후시작 시기를 가장 늦게 인식하였으며 5차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응답한 노후시작 시기가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은 현재 노인복지법 등에서 노인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65세보다 높은 연령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주관적 노후시작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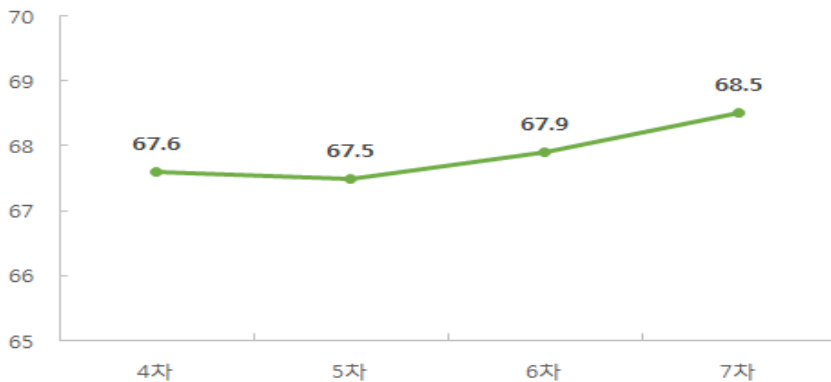
(단위 : 세)

구 분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4차 (2011년)
전 체		68.5	67.9	67.5	67.6
성별	남	69.0	68.4	67.9	68.2
	여	68.1	67.6	67.1	67.2
연령대	50대 미만	67.1	67.0	66.4	66.7
	50대	68.1	67.7	66.8	67.0
	60대	68.5	67.8	67.6	67.5
	70대	69.0	68.5	68.8	68.3
	80대 이상	69.4	69.3	69.4	68.5
최종 학력	무학	69.1	68.5	68.7	68.3
	초졸	68.6	68.2	68.1	67.6
	중졸	68.6	67.9	67.4	67.5
	고졸	68.3	67.9	67.2	67.5
	대졸 이상 (대학 이상)	68.1	67.5	66.5	67.2
취업 형태	임근근로자	68.4	67.9	68.9	68.1
	비임금근로자	69.4	68.8	67.0	68.4
	비취업자	67.9	67.4	67.5	67.2

주 : 주관적 노후시작 시기는 4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6차와 7차 조사에서는 대졸 이상 학력에 대학 재학 이상이 포함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단위 : 세)



〈그림 3-1〉 주관적 노후시작 시기의 차수별 비교

○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에서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노후시작 사건으로 보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노후시작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4차 조사에서 61.1%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최근 조사인 7차 조사에서는 56.3%로 나타남
-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응답은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로 해당 사건을 노후 시작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4차 조사에서 22.5%로 가장 낮았고 6차 조사에서 28.1%로 가장 높았으며 7차 조사에서는 24.3%로 나타남

○ 모든 조사에서 비슷한 응답 경향이 나타나는 인구특성은 연령대와 학력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노후시작 시기로 인식하였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시기’를 노후시작 시기로 인식함.
- 학력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를 노후시기로 인식하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노후시작 시기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많음.

〈표 3-2〉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주관적 노후시작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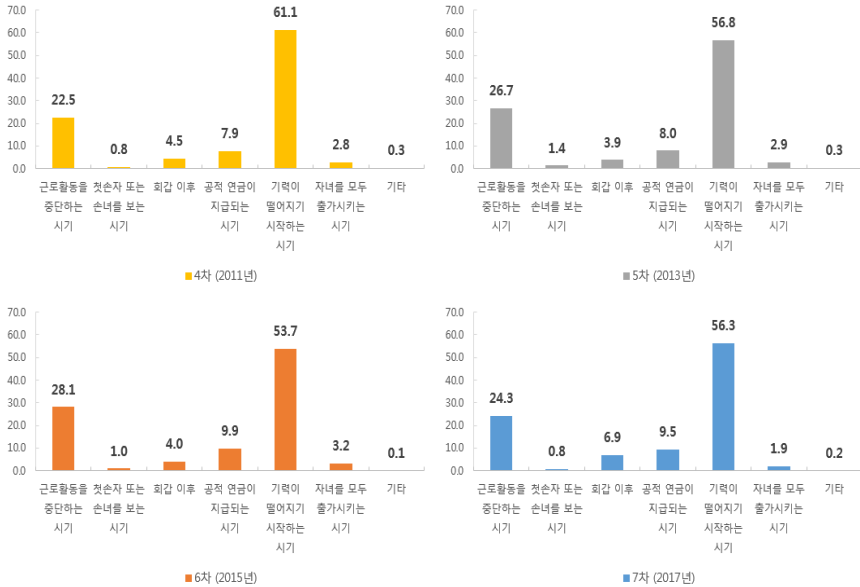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4차 (2011년)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	24.3	28.1	26.7	22.5
첫손자 또는 손녀를 보는 시기	0.8	1.0	1.4	0.8
회갑 이후	6.9	4.0	3.9	4.5
공적 연금이 지급되는 시기	9.5	9.9	8.0	7.9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56.3	53.7	56.8	61.1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는 시기	1.9	3.2	2.9	2.8
기타	0.2	0.1	0.3	0.3

주 : 주관적 노후시작 사건은 4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단위 : %)



〈그림 3-2〉 주관적 노후시작 사건의 차수별 비교

나. 노후생활비

-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최소노후생활비 평균은 부부생활비의 경우 1차 1,313.8천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차 조사에서는 1,569.4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7차 조사에서는 1,535.6천원으로 부부의 최소노후생활비가 다소 감소함
- 개인 최소노후생활비는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조사는 6차 조사 944.4천원이며 가장 낮은 평균은 4차 조사 806.0천원으로 나타남. 가장 최근의 조사인 7차 조사의 경우 최소노후생활비는 944.1천원으로 나타남
- 부부의 적정노후생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3차와 4차는 전년 대비 적정노후생활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5차 조사는 2,089.0원으로 2,000천원대를 넘었고 7차 조사의 부부 적정노후생활비는 2,261.8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개인의 적정노후생활비는 3차와 4차를 제외하면 차수가 진행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차 조사 1,238.9천원에서 7차 조사 1,352.4천원으로 12년 간 113.5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최소 및 적정노후생활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 (2005년)	2차 (2007년)	3차 (2009년)	4차 (2011년)	5차 (2013년)	6차 (2015년)	7차 (2017년)
최소	부부	1,313.8	1,357.4	1,363.1	1,369.2	1,482.3	1,569.4	1,535.6
	개인	856.0	871.4	860.0	806.0	917.0	944.4	944.1
적정	부부	1,897.9	1,971.4	1,957.9	1,931.5	2,089.0	2,159.1	2,261.8
	개인	1,238.9	1,267.9	1,262.1	1,149.6	1,312.2	1,331.5	1,352.4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단위 : 천원)



〈그림 3-3〉 최소 및 적정노후생활비 차수별 비교

- 주관적 노후해당자의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7차 조사 기준으로 정부보조금 24.2%, 근로활동 18.5%, 배우자의 소득 16.7%,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용돈 15.2%,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12.6% 순으로 나타남

- 정부보조금의 응답률은 처음 조사된 4차 조사 이후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 4차 조사에서는 11.0%에 불과했던 응답률이 5차 13.4%, 6차 22.6%, 7차 24.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배우자의 소득을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꼽은 응답도 4차 조사에서는 5.6%에 불과하였으나 7차 조사에서는 16.7%로 나타나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식 및 친척에게 받은 생활비/용돈을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응답한 경우는 4차 조사에서 전체의 29.5%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나 차수가 진행될수록 응답률이 낮아져 7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5.2%만이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응답함

〈표 3-4〉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주관적 노후해당자의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

구 분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4차 (2011년)
일반적금 및 예금	3.9	4.2	5.9	10.7
주식이나 채권 수익	0.1	0.1	0.1	0.1
부동산 관련 수익(투자 등)	4.1	4.5	5.4	5.1
근로활동	18.5	19.2	16.5	15.8
개인연금	0.0	0.0	0.3	0.5
사적보험(개인연금제외)	0.0	0.0	0.2	0.2
퇴직금(퇴직연금)	-	0.1	0.8	2.0
자식 및 친척에서 받는 생활비/용돈	15.2	17.0	28.1	29.5
본인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12.6	10.6	13.0	9.1
본인 및 배우자의 기타 공적연금	4.4	4.2	8.5	9.4
유산	0.0	0.0	0.0	0.1
배우자의 소득	16.7	17.0	7.1	5.6
정부보조금	24.2	22.6	13.4	11.0
사회단체 보조금	0.0	0.1	0.3	0.2
기타	0.1	0.4	0.4	0.8

주 : 주관적 노후해당자의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4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 주관적 노후비해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7차 조사에서는 37.1%, 6차 조사에서는 33.5%, 4차 조사에서는 37.0%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차에서는 19.6%만이 응답하여 다른 차수에 비해 응답률이 적게 나타남
-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을 조사한 결과 4차 조사에서는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던 반면, 5차 조사부터는 국민연금을 통하여 주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 나타났으며 가장 최근의 7차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을 통하여 노후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응답자가 55.7%로 나타남

〈표 3-5〉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주관적 노후비해당자의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

구 분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4차 (2011년)
준비함		37.1	33.5	19.6	37.0
준비하지 않음		62.9	66.5	80.4	63.0
준비하는 응답자의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국민연금	55.7	55.7	50.4	28.6
	기타 공적연금	9.6	9.6	6.4	6.6
	개인연금	4.0	4.0	3.1	3.5
	퇴직금(퇴직연금)	3.1	3.1	7.0	7.8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14.6	14.6	19.6	31.7
	부동산 운용	9.1	9.1	11.4	18.8
	주식, 채권 등	0.5	0.5	0.4	0.9
	기타	3.5	3.5	1.9	2.2

주 : 주관적 노후비해당자의 주된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은 4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다. 노후대책 마련

-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적 경제력 보유 여부는 3차 이후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차수가 진행될수록 독립적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독립적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3차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5.1%, 4차 조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40.7%였으며 5차 조사에서는 49.3%로 나타남. 6차 조사에서는 독립적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50.9%로 독립적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역전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조사인 7차 조사에서는 독립적 경제력을 보유자가 51.5%, 미보유자가 48.5%로 나타남
- 독립적 경제력을 보유한 응답자들은 독립적 경제력을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보다 연령이 다소 낮은 편임
 - 3차 조사에서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이 62.4세,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67.1세로 나타났으며 4차 조사에서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이 63.2세,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의 평균 연령이 65.6세로 나타남. 5차 조사에서는 보유자 평균연령 58.1세, 비보유자 평균연령 63.1세, 6차 조사에서는 보유자 평균연령 60.1세, 비보유자 평균연령 64.4세, 7차 조사에서는 각각 61.3세, 65.8세로 나타남
 - 4차 조사 이후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낮아진 이유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최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부터 조사대상에 50대 가구원이 있는 가구가 추가되었기 때문임

〈표 3-6〉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독립적 경제력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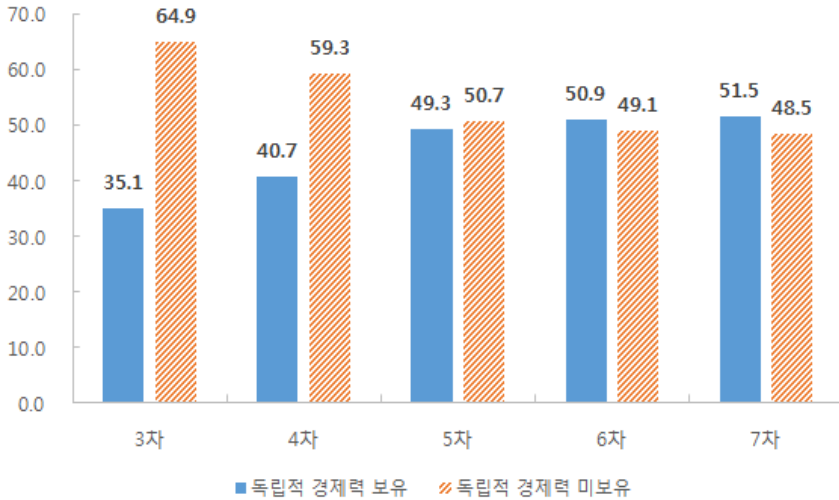
(단위 : %, 세)

구 분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4차 (2011년)	3차 (2009년)
있음	비율	51.5	50.9	49.3	40.7	35.1
	평균연령	61.3	60.1	58.1	63.2	62.4
없음	비율	48.5	49.1	50.7	59.3	64.9
	평균연령	65.8	64.4	63.1	65.6	67.1

주 : 독립적 경제력 보유 여부는 3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단위 : %)



〈그림 3-4〉 독립적 경제력 보유 여부 차수별 비교

- 가장 최근의 조사인 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 주체를 조사한 결과 본인이라는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22.2%, 정부 13.4%, 자녀 3.3%, 사회 0.3% 순으로 나타남
- 해당 문항이 가장 처음 조사된 3차 조사와 7차 조사를 비교한 결과 노후대책의 주체를 본인과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졌으며 자녀와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짐
 - 노후대책의 주된 주체를 본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차 조사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6.5%였고, 7차 조사에서는 다소 증가한 60.8%로 나타남. 배우자라는 응답은 3차 조사에서 15.0%의 응답률을 보인 후 6차 조사까지는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7차 조사에서는 22.2%로 나타남
 - 반면 노후대책의 주된 역할 주체를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은 3차 조사에서 15.8%였으나 7차 조사에서는 13.4%로 2.4%p 줄어들었으며, 자녀를 주된 역할 주체라고 응답한 비율은 3차 조사 12.0%에서 7차 조사 3.3%로 8.7%p 감소함

〈표 3-7〉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 주제

(단위 : %)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4차 (2011년)	3차 (2009년)
본인	60.8	57.2	63.9	59.2	56.5
배우자	22.2	23.8	20.7	16.7	15.0
자녀	3.3	6.2	5.1	7.5	12.0
사회	0.3	0.3	0.4	0.6	0.6
정부	13.4	12.4	9.8	16.0	15.8
기타	0.0	0.0	0.1	0.0	-

주 : 노후대책의 가장 주된 역할 주제는 3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 본인의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의료라는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4차 조사에서 노후시기 해당자의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59.4%였으며 건강/의료 부분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38.0%로 나타남. 경제적 문제의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건강/의료의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장 최근의 조사인 7차 조사에서는 경제적 문제의 응답률은 48.5%, 건강/의료의 응답률은 47.9%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노후비해당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의 응답률이 낮아지고 건강/의료의 응답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노후해당자와 비슷한 응답 경향이 나타나는데 4차 조사에서는 경제적 문제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63.5%, 건강/의료 부분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32.1%였고, 최근 조사인 7차 조사에서는 경제적 문제의 응답률이 50.9%, 건강/의료의 응답률이 43.6%로 나타남
 - 노후비해당자의 경제적 문제가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노후해당자의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차수가 진행될수록 건강/의료 부분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응답자들의 연령대가 차수가 진행될수록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3-8〉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본인의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단위 : %)

구 분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4차 (2011년)
노후시기 해당자	경제적 문제	48.5	51.4	53.8	59.4
	건강/의료	47.9	44.3	44.0	38.0
	일자리	2.6	3.5	1.6	1.6
	주거	1.0	0.8	0.6	1.0
	기타	-	-	0.0	0.0
노후시기 비해당자	경제적 문제	50.9	54.3	59.3	63.5
	건강/의료	43.6	38.3	35.5	32.1
	일자리	4.6	6.5	4.8	4.1
	주거	0.9	0.9	0.4	0.3
	기타	-	-	0.0	0.0

주 : 본인의 노후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4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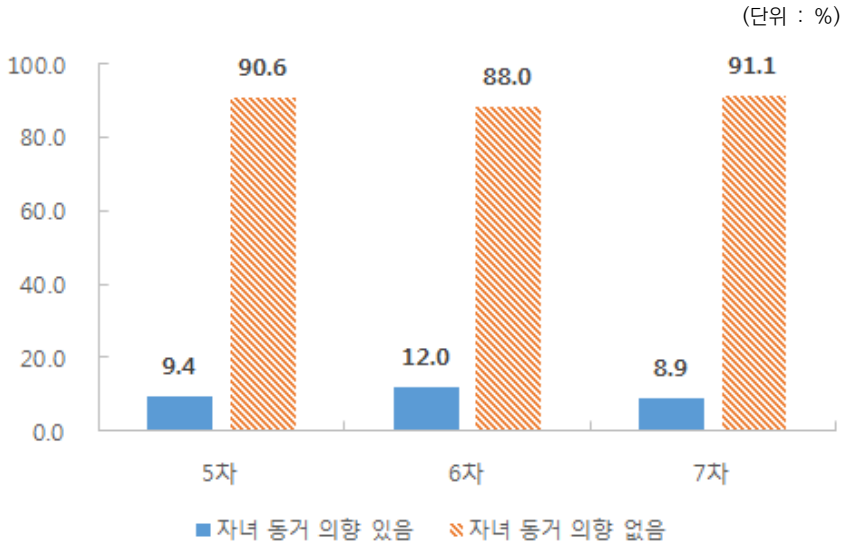
- 향후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지, 자녀 동거 의향을 묻은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응답함
- 7차에서 노후시기에 자녀와 동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에 8.9%에 불과하며 동거 의향이 없는 응답자는 91.1%에 달함. 6차 조사에서는 동거 의향 있음 12.0%, 동거 의향 없음 88.0%로 나타났으며 5차 조사에서는 동거 의향 있음 9.4%, 동거 의향 없음 90.6%로 나타남

〈표 3-9〉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향후 노후시기 자녀 동거 의향

(단위 : %)

구 분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자녀 동거 의향 있음	8.9	12.0	9.4
자녀 동거 의향 없음	91.1	88.0	90.6

주 : 향후 노후시기 자녀 동거 의향은 5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그림 3-5〉 노후시기 자녀 동거 의향 차수별 비교

- 자녀와 동거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거하고 싶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녀와 함께 지내면 외로움이 덜 할 것 같아서 동거하고 싶다는 정서적 이유가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남**
 - 자녀와 함께 지내면 외로움이 덜 할 것 같아서 자녀와 동거하고 싶다는 응답은 5차 조사에서 56.5%, 6차 조사에서 53.7%였으며 7차 조사에서는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두 번째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이고 세 번째 높은 응답은 노환 등의 신체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고 싶다는 응답은 5차 조사에서는 19.9%, 6차 조사에서는 24.2%, 7차 조사에서는 22.6%로 나타났으며 노환 및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불편할 것 같아서 자녀와 동거하고 싶다는 응답은 5차 조사에서 8.7%, 6차 조사에서 13.3%, 7차 조사에서 6.6%로 나타남

〈표 3-10〉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자녀와 동거하고 싶은 이유

(단위 : %)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을 것이기) 때문에	22.6	24.2	19.9
노환 및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불편할 것 같아서	6.6	13.3	8.7
자녀와 함께 지내면 외로움이 덜 할 것 같아서	61.2	53.7	56.5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하므로	3.5	3.6	8.0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5.3	4.5	4.5
기타	0.8	0.7	2.5

주 :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자녀와 동거하고 싶은 이유는 5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 자녀와 동거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거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다는 이유가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남
 -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 자녀와 동거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5차 조사에서 44.7%, 6차 조사에서 48.0%, 7차 조사에서는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7차 조사를 기준으로 자녀와 동거하고 싶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본인이 불편해서이며 세 번째 이유는 관심사가 다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26.1%가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13.3%는 관심사가 다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므로, 11.8%는 자녀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1.7%는 소외될 것 같아서 자녀와 동거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함

〈표 3-11〉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자녀와 동거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자녀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11.8	15.6	14.3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26.1	22.7	30.4
관심사가 다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므로	13.3	12.1	9.5
따로 살아야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	47.1	48.0	44.7
소외 될 것 같아서	1.7	1.6	0.6
기타	0.1	0.0	0.4

주 :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자녀와 동거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5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 향후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는 5차 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중소도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향후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지역은 5차 조사의 경우 농어촌 지역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차와 7차 조사에서는 중소도시가 각각 38.5%,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5차 조사에서는 농어촌 35.2%, 중소도시 32.4%, 대도시 24.9%, 자녀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7.6% 순으로 응답률이 나타났으며 6차 조사에서는 중소도시 38.5%, 농어촌 27.9%, 대도시 23.7%, 자녀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9.9%, 7차 조사에서는 중소도시 41.1%, 대도시 26.7%, 농어촌 24.6%, 자녀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7.6% 순으로 나타남

〈표 3-12〉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차수별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지역

(단위 : %)

	7차 (2017년)	6차 (2015년)	5차 (2013년)
농어촌	24.6	27.9	35.2
중소도시	41.1	38.5	32.4
대도시	26.7	23.7	24.9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자녀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	7.6	9.9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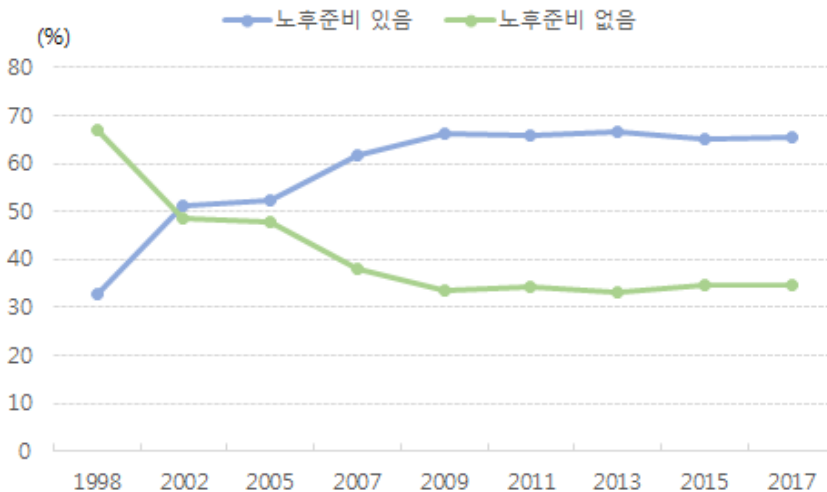
주 : 노후시기 비해당자의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지역은 5차 조사 이후로 동일하게 측정됨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각 차수.

2. 노후준비 실태 및 문제점

가. 노후준비 실태

1) 노후준비 여부 및 노후준비 방법

-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준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98년 32.9%에 불과했던 노후준비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02년에는 절반 수준을 넘음.
 - 이는 4년 사이 약 20%p가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 들어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됨
 - 2002년 이후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2009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증가함. 특히 2002년과 2005년에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51.4%, 52.3%로 과반을 조금 넘겨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2007년 이후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60%를 넘었으며 2017년에는 65.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주 : 2002년 - 2005년까지는 15세 이상,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18세 이상, 2011년 이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 각년도

〈그림 3-6〉 노후준비 여부 : 2002 - 2017

○ 노후준비를 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예금·적금, 사적연금, 기타공적연금, 부동산 운영, 퇴직금 순으로 나타남

- 1998년에는 국민연금 및 기타공적연금을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7.7%에 불과함. 2005년에는 기타공적연금이 제외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이 33.9%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53.3%로 나타났으며 이는 약 20%p가 증가한 수치임
- 사적연금은 1998년 9.6%에서 2005년 21.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후 증감을 반복하나 2009년 이후에는 점점 감소하여 2017년에는 9.8%만이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고 응답함. 기타공적연금은 7~8%대의 비슷한 응답률을 유지함

〈표 3-13〉 노후준비의 주된 방법 : 2002-2017

(단위 : %)

	국민연금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부동산 운영	기타
1998	7.7		9.6	2.0	11.5	1.9	0.0
2002	28.4		15.9	2.3	13.6	3.8	0.3
2005	33.9	8.9	21.4	3.8	25.1	6.0	0.7
2007	37.1	7.2	18.2	3.2	26.9	6.4	0.9
2009	37.0	7.1	20.1	3.4	25.6	5.7	1.1
2011	50.7	6.9	16.0	2.3	18.3	4.9	0.9
2013	48.9	7.3	12.7	4.3	20.9	5.0	0.8
2015	50.5	8.1	11.4	3.5	21.1	4.9	0.6
2017	53.3	8.8	9.8	3.5	18.8	5.4	0.6

주 : 1) 2002년 - 2005년까지는 15세 이상,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18세 이상, 2011년 이후 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기타에 '주식 및 채권' 포함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 각년도

○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준비 능력 부족, 앞으로 준비할 계획, 아직 생각 안함,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 순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직 생각 안한다는 응답은 2002년 36.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2017년 17.8%로 약 20P%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5년 32.7%에서 2007년 19.8%로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2007년을 정점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반면,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히 30% 초·중반대의 응답률을 보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준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3-14〉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2002-2017

(단위 : %)

	아직 생각 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 능력 부족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
2002	36.3	32.0	31.8	-
2005	32.7	32.9	25.0	9.3
2007	19.8	34.9	32.6	12.6
2009	16.6	32.6	38.9	12.0
2011	19.4	31.9	37.7	11.1
2013	17.4	32.5	37.7	12.4
2015	18.2	34.6	37.6	9.6
2017	17.8	33.3	39.1	9.6

주: 1) 2002년에서 - 2005년까지는 15세 이상,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18세 이상, 2011년 이후 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다'에 관한 항목만을 100%로 환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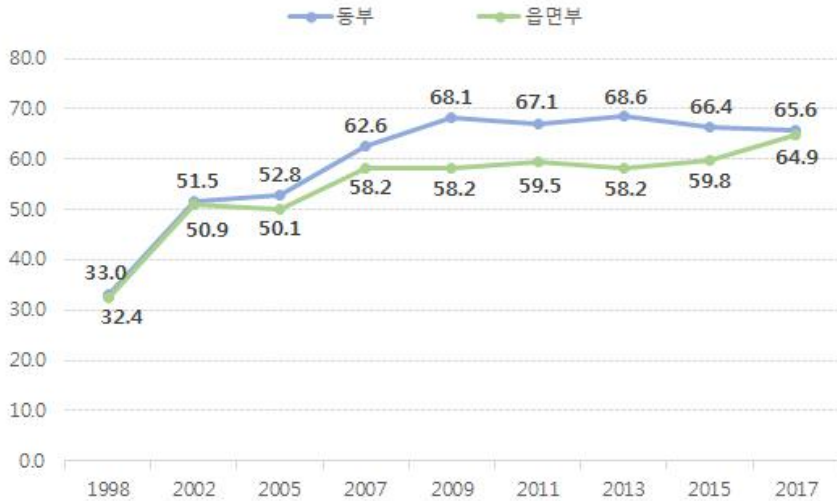
3) 2002년에는 '자녀에게 의탁할 계획'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 각년도

2)노후준비의 지역별, 성별 격차

- 지역별 노후준비는 1998년 ~ 2002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5년부터 동부의 노후준비 비율이 읍면부의 노후준비 비율을 앞질렀으나 2017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노임
- 2009년 기준 동부가 68.1%, 읍면부가 58.2%로 약 10P의 높은 격차가 발생함. 그러나 2009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2013년 이후로는 격차의 폭이 줄어들어 2017년에는 동부 65.6%, 읍면부 64.9%로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각년도

〈그림 3-7〉 지역별 노후준비 비율 : 2002 - 2017

- 성별로 노후준비 실태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성보다 남성의 노후준비 비율이 높으며 그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당시 20%가 넘는 남녀격차는 2002년과 2005년 5%P내외로 크게 줄었으나 그 이후 다시 격차가 점점 증가하여 2011년 남성의 73.2%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반해 여성은 58.5%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약 15%P의 격차가 나타남
 - 2011년 이후 남성과 여성의 노후준비 비율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2017년 기준 남성의 노후준비 비율 71.3%, 여성의 노후준비 비율 59.8%로 여전히 10%P가 넘는 격차를 보이며 남성보다 여성의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 각년도

〈그림 3-8〉 성별 노후준비 비율 : 2002 - 2017

3) 노후준비 수준 평가 및 각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 보건사회연구원의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연구」에서 만 35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자신의 노후준비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았을 때 어떤 수준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신의 노후준비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자신의 노후준비수준에 대해 상 38.9%, 하 13.8%로 평가한 반면에 여성은 상 44.4%, 하 10.2%로 남성보다 여성이 본인의 노후준비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자신의 노후준비수준을 높게 평가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노후준비수준을 상으로 평가한 응답이 47.8%로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9.3%에 불과함
 -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자신의 노후준비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가 노후준비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60대는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해 상으로 평가한 비율 25.9%, 하로 평가한 비율 21.0%로 다른 연령대보다 자신의 노후준비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중소도시, 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대도시, 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지역은 농어촌이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노후준비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응답이 많았으며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자신의 노후준비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5〉 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중 노후준비수준의 상중하 분포

(단위 : %, 명)

구분		상	중	하	계(명)
전체		41.7	46.3	12.0	100.0 (1,539)
성별	남성	38.9	47.3	13.8	100.0 (776)
	여성	44.4	45.4	10.2	100.0 (736)
혼인상태	유배우자	47.8	46.1	6.1	100.0 (1,292)
	무배우자	9.3	47.4	43.3	100.0 (247)
연령	30대	42.2	46.5	11.3	100.0 (230)
	40대	45.4	44.8	9.8	100.0 (518)
	50대	47.3	43.6	9.1	100.0 (486)
	60대	25.9	53.1	21.0	100.0 (305)
지역	대도시	38.9	49.2	11.9	100.0 (701)
	중소도시	44.0	44.0	12.0	100.0 (716)
	농어촌	43.4	43.5	13.1	100.0 (122)
학력	초졸이하	19.5	45.8	34.7	100.0 (118)
	중졸	19.6	57.4	23.0	100.0 (148)
	고졸	38.4	50.9	10.7	100.0 (746)
	전문대졸	46.3	42.9	10.8	100.0 (175)
	대졸이상	63.1	33.8	3.1	100.0 (352)
취업여부	취업	47.1	45.1	7.8	100.0 (1,213)
	미취업	21.5	50.9	27.6	100.0 (326)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2016

- 노후준비 영역을 네 가지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한 후 지표로 환산하여 노후준비 정도를 계산한 결과, 건강한 생활습관>사회적관계>여가활동>소득과 자산 순으로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큰 차이는 없지만 남성(62.1.)보다는 여성(63.5.)의 노후준비수준이 더 양호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65.2.)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50.6.)보다 훨씬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가 6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58.5점으로 가장 낮았고 지역 간 차이는 매우 적었으나 중소도시(63.3.) 거주자의 노후준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종합적 노후준비점수가 높았으며 취업자(64.7.)가 미취업자(55.9.)보다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6〉 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중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단위 : 점, 명)

구분		종합	사회적 관계	건강한 생활습관	여가 활동	소득과 자산	계(명)
전체		62.8	61.1	73.1	60.2	54.8	100.0 (1,539)
성별	남성	62.1	59.2	70.6	61.5	55.6	100.0 (776)
	여성	63.5	63.1	75.6	58.8	54.0	100.0 (736)
혼인 상태	유배우자	65.2	67.2	73.8	60.7	57.7	100.0 (1,292)
	무배우자	50.6	29.2	69.3	57.5	39.3	100.0 (247)
연령	30대	63.0	59.3	73.0	59.8	56.4	100.0 (230)
	40대	64.0	63.0	72.8	60.1	57.5	100.0 (518)
	50대	64.2	62.0	73.6	60.6	57.7	100.0 (486)
	60대	58.5	58.0	72.7	59.9	44.4	100.0 (305)
지역	대도시	62.3	61.4	72.9	59.3	53.6	100.0 (701)
	중소도시	63.3	60.4	73.1	61.5	56.0	100.0 (716)
	농어촌	63.2	63.9	73.6	57.5	55.0	100.0 (122)
학력	초졸이하	54.2	52.9	70.9	53.2	38.9	100.0 (118)
	중졸	57.4	56.1	72.5	56.9	43.5	100.0 (148)
	고졸	62.3	60.4	72.9	59.6	53.9	100.0 (746)
	전문대졸	63.9	63.3	73.5	59.8	56.6	100.0 (175)
	대졸이상	68.7	66.4	74.1	65.4	65.8	100.0 (352)
취업 여부	취업	64.7	61.2	72.6	60.3	60.5	100.0 (1,213)
	미취업	55.9	60.9	74.8	59.8	33.7	100.0 (326)

주 : 각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 정도는 영역별 지표를 10점으로 표준화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하위 영역별 가중치를 곱함. 그 값을 하위영역별 최대값으로 나눈 후 합산하여 최종 노후준비수준을 구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2016

○ 실질적인 노후서비스 지원은 상담과 교육, 연계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지므로 클라이언트에게 맞춤형 노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수준을 다음의 표와 같이 유형화하고 있음

- 사회적 관계영역의 노후준비수준 유형별 분포를 보면 대규모 다층형이 가장 많고 여성과 유배우자,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의 비중이 높았음
- 건강한 생활습관 영역은 건강군 실천형이 가장 많았고 여성, 유배우자,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여가활동 영역은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이 가장 많았고 젊은 층에서, 도시거주자가,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의 비중이 높았음
- 소득과 자산 영역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남. 유배우자와 연령이 적을수록 노후준비 충분한 비율이 높음. 중소도시의 노후준비 수준이 가장 양호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한 경우에 공적자산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17〉 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중 영역별 노후준비수준 유형

영역	유형	
	기준	결과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의 크기(대/소) • 사회적관계유형(고립/친족중심/다층)	① 고립형(1.2%) ② 친족 중심형(27.4%) ③ 소규모 다층형(30.0%) ④ 대규모 다층형(41.4%)
건강한 생활 습관	• 현재 건강상태(건강/건강주의) • 건강생활 실천행위(실천/비실천)	① 건강군 실천형(44.9%) ② 건강군 비실천형(34.9%) ③ 건강주의군 실천형(10.3%) ④ 건강주의군 비실천형(9.9%)
여가 활동	• 노후 여가생활 인식(높음/낮음) • 현재 여가생활 적극성(적극적/소극적)	①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소극형(20.9%) ② 노후여가인식이 낮은 적극형(30.8%) ③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소극형(15.3%) ④ 노후여가인식이 높은 적극형(33.0%)
소득과 자산	• 노후소득준비(예상)규모(충분/부족) • 자산 구성(공적/사적)	① 노후준비가 충분한 공적자산형(21.2%) ② 노후준비가 부족한 공적자산형(30.9%) ③ 노후준비가 충분한 사적자산형(21.5%) ④ 노후준비가 부족한 사적자산형(26.4%)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2016

나. 노후준비 성별 격차 원인과 문제점

1) 여성의 낮은 고용률 및 짧은 일자리 근속기간

- 노후준비의 성별격차는 근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낮고 일자리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임
- 가장 고용률이 높은 연령대는 40대이며 2000년 76.4%였던 고용률이 점점 높아져 2016년에는 79.2%로 나타남. 50대와 60~64세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을 기준으로 60~64세의 고용률은 20대 고용률을 넘어섰음.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표 3-18〉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2000	60.1	72.5	76.4	66.5	53.0	29.4
2005	61.2	72.3	77.1	68.1	53.4	29.8
2010	58.2	72.0	77.8	70.9	53.7	28.7
2011	58.5	72.2	78.4	71.6	55.1	28.9
2012	58.1	72.7	78.3	72.2	56.1	30.1
2013	56.8	73.2	78.4	73.1	57.2	30.9
2014	57.4	73.9	79.1	74.2	58.3	31.3
2015	57.9	74.2	79.1	74.4	59.4	30.6
2016	58.3	74.6	79.2	74.4	59.6	30.7

자료 :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 55~64세를 대상으로 자신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꾸준히 근속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근속기간이 여성의 근속기간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남. 남성은 2006년 20년 5.7개월에서 2016년 18년 10.0개월까지 꾸준히 줄다가 2017년 19년 3.7개월로 약 5.7개월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2006년 13년 10.6개월에서 2016년 10년 11.0개월로 꾸준히 줄다가 2017년 11년 2.5개월로 3.5개월 증가함

〈표 3-19〉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근속기간(55~64세)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전체	17년 3.1개월	17년 0.2개월	16년 4.7개월	16년 3.9개월	15년 4.0개월	14년 11.1개월	15년 3.8개월
남자	20년 5.7개월	20년 3.1개월	20년 0.6개월	19년 10.7개월	19년 0.3개월	18년 10.0개월	19년 3.7개월
여자	13년 10.6개월	13년 7.7개월	12년 7.1개월	12년 7.3개월	11년 6.6개월	10년 11.0개월	11년 2.5개월

주 : 현재 취업자(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 포함)와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 모두 포함함.

자료 :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인구구성비 뿐만 아니라 중위연령, 노년부양비, 고령화 지수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빈곤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표 3-20〉 고령화 추세와 전망(1960 - 2060)

(단위 : 백만 명,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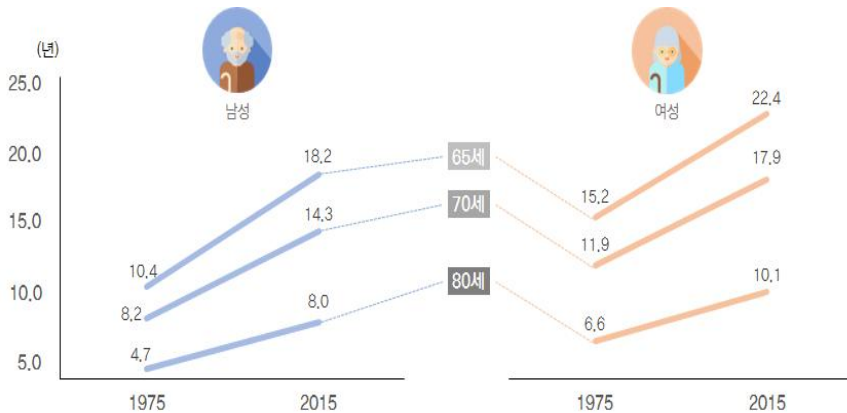
	총인구 (100만 명)	고령인구 비중(%)		중위연령 (세)	노년부양비 (%)	노령화 지수 (5%)
		65세 이상	80세 이상			
1960	25.0	2.9	0.2	19.0	5.3	6.9
1980	38.1	3.8	0.5	21.8	6.1	11.2
2000	47.0	7.2	1.0	31.8	10.1	34.3
2017	51.4	13.8	3.0	42.0	18.8	104.8
2020	52.0	15.6	3.6	43.6	21.8	123.7
2040	52.2	32.8	9.9	53.0	58.2	303.2
2060	45.2	41.0	18.1	58.9	82.6	434.6

주 : 노년부양인구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100.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 0-14세 인구)×100.

자료 :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각년도

2) 여성의 긴 기대여명과 노후빈곤

- 여성의 긴 기대여명은 취업경험이 없거나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로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배우자 의지율이 높아 노후빈곤과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됨
- 2015년도를 기준으로 65세 고령자의 기대여명은 83.2세. 여성은 87.4세로 지난 1975년과 비교하여 남성의 기대수명은 10.4년에서 7.8년 증가했고, 여성은 15.2년에서 7.2년 증가함



자료: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그림 3-9〉 고령자의 성별 기대여명

3) 노후준비 교육경험 미흡

- 보험연구원에서 201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준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만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노후준비 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0~30대보다는 3배, 40~50대보다는 2배 높은 수치를 보여 노후문제에 직면해 있는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노후준비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노후준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을 받은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가 68.0%로 가장 많았고, 2회 15.7%, 3회 9.8%, 4회 4.5%, 5회 이상 2.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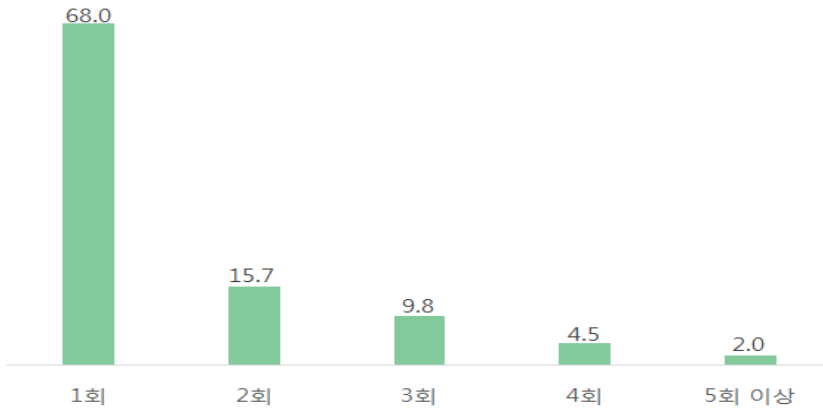
〈표 3-21〉 노후준비교육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827	2.8	97.2
성별	남성	523	3.0	97.0
	여성	303	2.6	97.4
연령	20 - 39세	467	2.2	97.8
	40 - 59세	300	3.1	96.9
	60세 이상	60	6.7	93.3

자료: 보험연구원, 2015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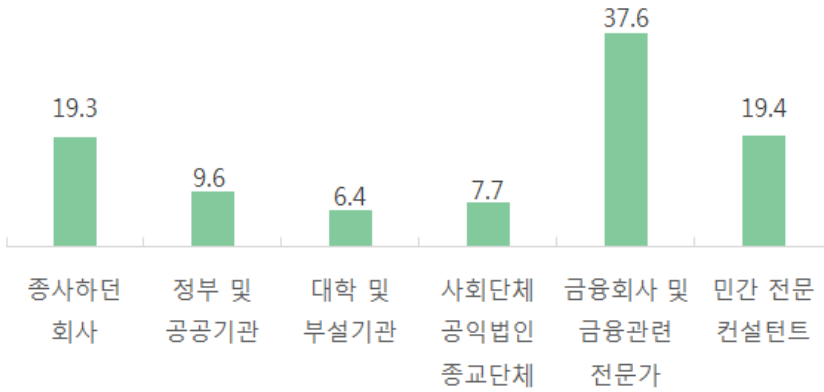


자료: 보험연구원, 2015

〈그림 3-10〉 노후준비 교육을 받은 횟수

- 노후준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주관기관을 조사한 결과 금융회사 및 금융관련 전문가가 37.6%로 가장 높았고, 민간 전문 컨설턴트(19.4%), 종사하던 회사(19.3%)가 뒤를 이음.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들은 사람은 9.6%였고 사회단체·종교법인·종교단체 7.7%, 대학 및 부설기관 6.4%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 교육 형태는 설명회나 강연 형태의 집합교육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상담 및 컨설팅이 34.9%로 뒤를 이음.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12.8%, 책자나 서면을 통한 교육은 7.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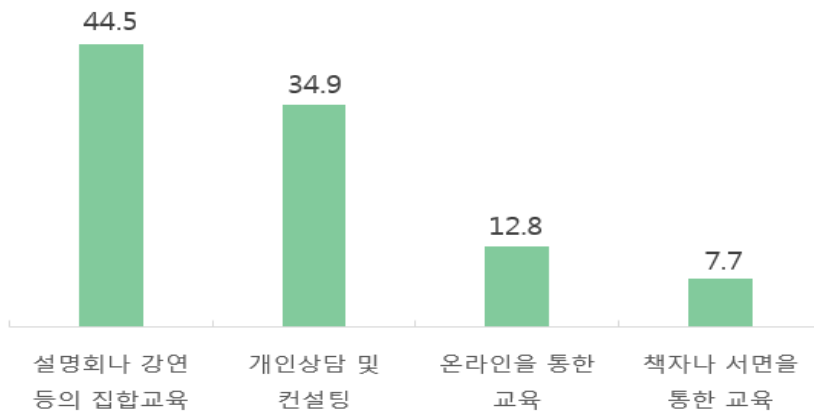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보험연구원, 2015

〈그림 3-11〉 노후준비 교육 주관기관

(단위 : %)



자료: 보험연구원, 2015

〈그림 3-12〉 가장 선호하는 노후준비교육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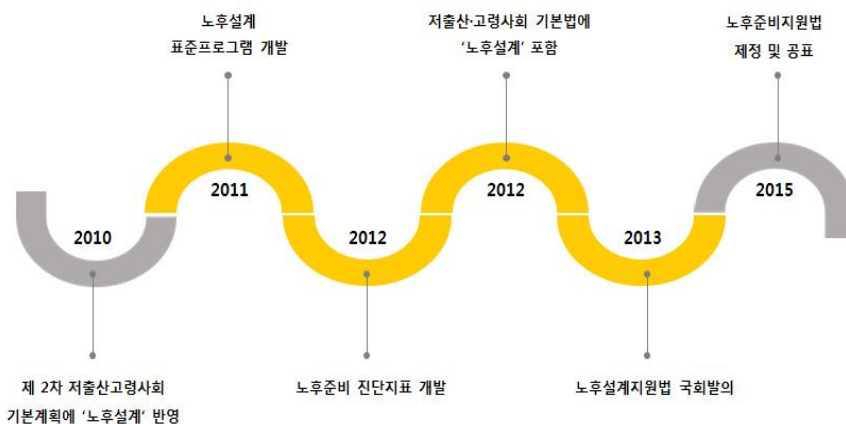
3. 노후준비 지원정책 및 사례

가. 노후준비 정책 및 지원체계

1) 노후준비 정책 발전 과정

- 급속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노후시기가 길어지면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의 중요성이 대두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이 간헐적·산발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으로 한계를 가짐
- 이에 정부는 노후설계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함
- 2010년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노후설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노후설계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노후설계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지정함
-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노후설계 교육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노후준비의 재무나 비재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남.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노후설계 표준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재무와 비재무(건강, 여가, 가족관계, 사회참여, 평생학습 등) 영역을 아우르는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노후설계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임
- 2012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해볼 수 있는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개발함. 노후준비 진단지표는 노후준비 영역을 경제,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여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

-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노후설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 2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설계를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노후설계의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국민의 노후설계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한계를 가짐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3년 (가칭)노후설계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법안은 노후설계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체계, 제공 주체 등을 명시함. (가칭)노후설계지원법 국회 발의의 의의는 노후설계 용어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했다는 것,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법률이 아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 노후설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 노후설계 심의 기구를 규정하여 민관의 다양한 주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노후설계 서비스 실태조사 조항을 통하여 노후설계지원에 대한 DB 구축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음(이소정, 2013)
- 2013년에 발의한 (가칭)노후설계지원법은 2015년 6월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후준비지원법)」로 통과되었고 2015년 12월 공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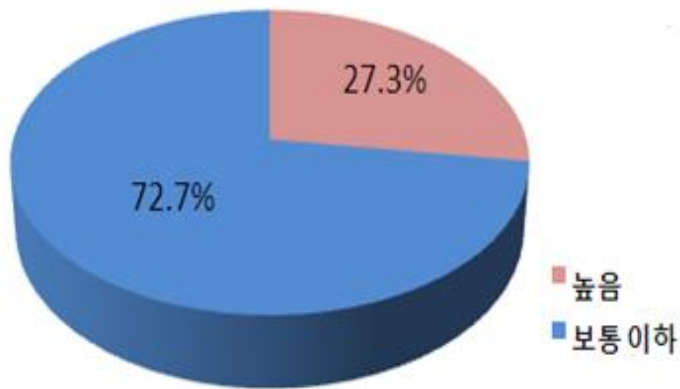
〈그림 3-13〉 노후준비 정책 발전 과정

2) 노후준비지원법

가) 법안 제정 배경

-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임. 그러나 2012년 실시된 노후준비지표 실태조사에서는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보통 이하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의 72.7%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과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고령화 기조 하에 고령층 지원을 위한 재정 부담과 자녀세대의 부모부양 기피현상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노후준비 시급성이 높아졌으며 정부의 역할강화가 필요해짐
- 청·장년층이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노후에 예견되는 문제를 스스로 예측하고 대비하여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현재의 인구구조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정책 개발 필요성 증대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실태조사」, 2012.

〈그림 3-14〉 전 국민 노후준비 수준

나) 노후준비지원법 주요내용

- 노후준비법 제1조와 2조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의 목적과 노후준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노후준비지원법의 주요 용어인 노후준비와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하여 정의함
- 제3조에서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노후준비지원법 3조 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노후준비지원법의 추진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노후준비에 대한 지원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가 노후준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각 지사 및 공공기관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제15조와 16조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정으로 효율적인 노후준비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노후준비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연금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함

〈표 3-22〉 노후준비지원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정목적(제1조~2조)	•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국가 등의 책무(제3조)	• 국가, 지자체는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추진체계(제8조~10조)	•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운영
정보시스템(제15조~16조)	• 유관기관에 건강정보 및 금융회사에 연금정보 등 요청하여 제공받음
부칙(제2조)	• 공단의 분사무소를 지역센터로 간주

자료 :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2.23.)

- 노후준비지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후준비 서비스 영역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개의 분야이며 노후준비지원법은 노후준비의 4가지 영역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음

〈표 3-23〉 노후준비지원 분야별 주요 4대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재무	생애주기별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가능한 자원관리 방안 제시
건강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실천방안 제시
여가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정보 제공
대인관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와 건강한 소통을 위한 상황별 갈등관계 대처방법 소개

자료 :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2.23.)

- 노후준비서비스는 효율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단계별로 노후준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노후준비서비스의 단계는 진단 → 상담 → 교육 → 연계 → 사후관리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노후준비서비스가 단순히 교육으로만 이루어진 지원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진단과 상담, 교육 후 전문기관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서비스하는 서비스 대상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4〉 단계별 노후준비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진단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별 노후준비 수준 진단
상담	생애주기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교육	생애주기별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계	노후준비 상담 후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역별 전문기관에 연계
사후관리	상담 시 계획한 실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정보 제공

자료 : “개인별 맞춤형 노후준비 컨설팅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12.23.)

다) 노후준비지원서비스의 한계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현재의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

- 지역노후준비센터는 107개인데 전국의 시군구는 229개로 시군구 대비 지역센터의 비율은 46.7%에 불과함. 최소한 하나의 지사가 두 개 이상의 시군구를 전담해야하고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107개 가운데 75개만 전담부서인 행복노후준비센터를 설치하고 있어 나머지 32개 센터는 타부서에 귀속됨. 또한 센터 1곳당 전문 상담인력은 1명에 불과. 지역에 따라서는 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있고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의 불충분으로 서비스에 제약이 뒤따름

○ 노후준비와 관련된 포괄적 서비스지원 미흡

- 서비스의 내용도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내용에 기반하는 '재무중심성' 상담으로 제한적임. 대인관계, 건강, 여가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필요
- 2013년 기준 전체 상담건수 51,167건 중 69.5%가 재무영역임. 다음으로 건강(10.8%), 여가(0.9%), 대인관계(0.5%), 일(0.5%), 주거(0.04%) 등임
-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짓고 있으나 연금과 재정기반의 사업을 추진해왔던 공단의 시스템과 자원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

○ 지역 복지거버넌스 연계 취약 및 노후준비지표 영역의 업그레이드 필요

-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지자체가 갖는 복지 거버넌스를 얼마만큼 동원하는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력 제한과 네트워크 연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노후준비지표(4대 영역 10여 문항)는 40대 중심으로 간소화되어 있음. 이는 노후설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노후준비도 진단이 세분화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 노후준비가 비단 퇴직만이 아니라 전 생애 걸쳐 꾸준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노후준비 진단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성별, 계층별로 세분화 등 지표의 업그레이드와 인구사회학적 조건에 따라 다변화 필요

나. 노후준비지원 사례

1)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 2013년 전국 최초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립·운영했던 서울시는 만 50~64세의 장년층을 50+세대로 지칭하고 50+세대의 은퇴 후 인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을 설립
 - 서울시민 5명 중 1명은 50+세대에 해당하는 장년층이나 그들의 은퇴 후 사회적 관계나 여가 등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50+세대의 은퇴 후 삶의 설계를 돕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종합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재단 하위에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하는 3개의 50플러스 캠퍼스와 자치구별 실행기관인 7개의 50플러스 센터를 두고 있음
 -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는 현재 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가 운영 중이며 2020년까지 북부, 동부, 동남 캠퍼스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임
 - 50플러스 센터는 노원 50플러스 센터, 성북 50플러스 센터, 도심권 50플러스 센터, 광진 50플러스 상담센터, 동작 50플러스 센터, 영등포 50플러스 센터, 서대문 50플러스 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그림 3-15〉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운영조직도

- 50플러스 재단은 50+세대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지원의 기본인 생애 설계 지원은 물론 50플러스 캠퍼스를 통하여 세대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관심 콘텐츠 제공·재도약 정보제공 등을 통해 50+세대가 노후 삶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50+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위한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2)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 부천시는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두 번째 시작을 위하여 2015년부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베이비부머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준비 기반을 마련하고 베이비부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베이비부머가 재능을 통하여 사회공헌을 할 수 있게끔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제2인생 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회공헌·재능나눔 프로그램, 공공영역 취업예정자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활성화 여건 조성, 공공·민간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5가지임
 - 제2인생 설계 교육 프로그램은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베이비부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탐색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며 인생설계 아카데미, 가정 경제 설계 아카데미, 이모작 아버지 요리 교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임
 - 사회공헌·재능나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베이비부머가 자신의 사회적인 경험과 자원을 기반으로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거점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정리수납코디네이터, 인생이모작 상담사 교육 등이 있음
 -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베이비부머의 소통확대 등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음.
 - 공공·민간분야 일자리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고용연계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4

장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
1. 전라북도 중고령여성 현황 및 특성
 2. 설문조사 분석결과
 3.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4. 소결

제 4 장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1. 전라북도 중고령여성 현황 및 특성

가. 중고령세대 인구 현황

- 전라북도의 인구는 1970년 2,490,82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1,836,832명으로 1970년 대비 26.3%p가 감소함
 - 남성은 1970년 1,254,387명에서 2018년 913,297명으로 27.2%p 감소하고 여성은 1970년 1,236,440명에서 2018년 923,535명으로 25.3%p 감소하여 여성보다 남성의 감소 정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970년 101.5였던 성비는 1990년 99.5로 10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8년에는 성비가 98.9로 나타나 전라북도에 남성인구보다 여성인구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8년 전라북도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197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70년 82,594명으로 전체 인구의 3.3%를 구성하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8년 358,410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노인인구의 인구구성비 또한 19.5%로 1970년보다 약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는 1970년 69.4로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에는 61.9로 성별 불균형이 심화됨. 이후 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8년에는 여성 100명 대비 남성인구가 70.6명으로 나타남
 - 노인 인구의 인구구성비보다 노년부양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라북도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표 4-1〉 전라북도 인구변동 현황 및 고령인구수 추이

(단위 : 명, %)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8
총인구수	2,490,827	2,329,212	2,046,776	1,999,255	1,868,963	1,836,832
남자	1,254,387	1,173,496	1,020,617	993,967	931,481	913,297
여자	1,236,440	1,155,716	1,026,159	1,005,288	937,482	923,535
성비	101.5	101.5	99.5	98.9	99.4	98.9
고령인구수	82,594	97,244	128,812	205,807	284,373	358,410
남자	33,826	38,212	51,733	81,456	111,749	148,319
여자	48,768	59,032	77,079	131,604	172,711	210,091
성비	69.4	64.7	67.1	61.9	64.7	70.6
고령인구 구성비	3.3	4.2	6.3	10.3	15.2	19.5
노년부양비	6.6	7.2	9.4	14.8	22.1	28.7

주: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고령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 전국 17개 시도의 고령인구 구성비를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는 고령인구 구성비 19.5%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고령인구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시도는 전라남도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는 경상북도(19.8%), 전라북도(19.5%), 강원도(18.8%) 순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 구성비가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체 인구의 9.3%만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로 나타남. 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수도권의 기능을 분산하고자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장년층 인구가 많기 때문임

〈표 4-2〉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2018년)

(단위 : 명, %)

구 분	총인구수	고령인구수	고령인구 구성비	순위
전국	51,826,059	7,650,408	14.8	
서울특별시	9,765,623	1,410,297	14.4	10
부산광역시	3,441,453	589,961	17.1	6
대구광역시	2,461,769	362,934	14.7	9
인천광역시	2,954,642	362,675	12.3	14
광주광역시	1,459,336	187,186	12.8	12
대전광역시	1,489,936	188,530	12.7	13
울산광역시	1,155,623	123,919	10.7	16
세종특별자치시	314,126	29,178	9.3	17
경기도	13,077,153	1,551,801	11.9	15
강원도	1,543,052	289,386	18.8	4
충청북도	1,599,252	261,763	16.4	7
충청남도	2,126,282	372,515	17.5	5
전라북도	1,836,832	358,410	19.5	3
전라남도	1,882,970	413,132	21.9	1
경상북도	2,676,831	529,349	19.8	2
경상남도	3,373,988	523,165	15.5	8
제주특별자치도	667,191	96,207	14.4	11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8년

- 향후 전라북도의 인구수 및 고령인구수의 변동을 예측한 결과, 총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총인구수는 2018년 1,836,832명에서 2045년 1,739,489명으로 줄어듦 것으로 추계되며 감소정도는 2018년 대비 약 5.3% 정도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인구의 감소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8년 358,410명에서 2045년 729,690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고령인구는 과거보다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65세 이상 인구구성비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9.5%에서 2045년 41.9%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노년부양비는 2018년 28.7에서 2045년 86.2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고령인구의 증가정도가 큰 만큼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정도 역시 크기 때문임
- 전라북도의 향후 인구감소 및 고령인수 증가 정도는 전국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정도로 예측됨
 - 전국의 총 인구수는 2018년 51,826,059명에서 2045년 51,051,159명으로 약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보다 인구감소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됨
 - 65세 이상 고령인구수 역시 빠르게 증가하기는 하나 2045년 전체 인구의 35.6%를 구성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라북도의 고령인구 구성비(41.9%)보다 낮게 나타남
 - 노년부양비는 전국 평균 2018년 20.4에서 2045년 65.6으로 3배 이상 오르는데 전라북도의 노년부양비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예측되는 상승정도(약3배)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3〉 전라북도 인구수 및 고령인구수 변동추계

(단위 : 명, %)

구 분		2018	2020	2030	2040	2045
전 국	총인구수	51,826,059	51,973,817	52,941,342	52,197,882	51,051,159
	남자	25,866,129	26,043,821	26,507,827	26,092,123	25,492,030
	여자	25,959,930	25,929,996	26,433,515	26,105,759	25,559,129
	고령 인구수	7,650,408	8,133,668	12,955,095	17,120,010	18,179,045
	고령인구 구성비	14.8	15.6	24.5	32.8	35.6
	노년부양비	20.4	21.8	38.2	58.2	65.6
전 라 북 도	총인구수	1,836,832	1,823,507	1,809,662	1,777,661	1,739,489
	남자	913,297	910,563	903,166	885,909	864,832
	여자	923,535	912,944	906,496	891,752	874,657
	고령 인구수	358,410	371,521	534,129	689,519	729,690
	고령인구 구성비	19.5	20.4	29.5	38.8	41.9
	노년부양비	28.7	30.3	49.6	75.9	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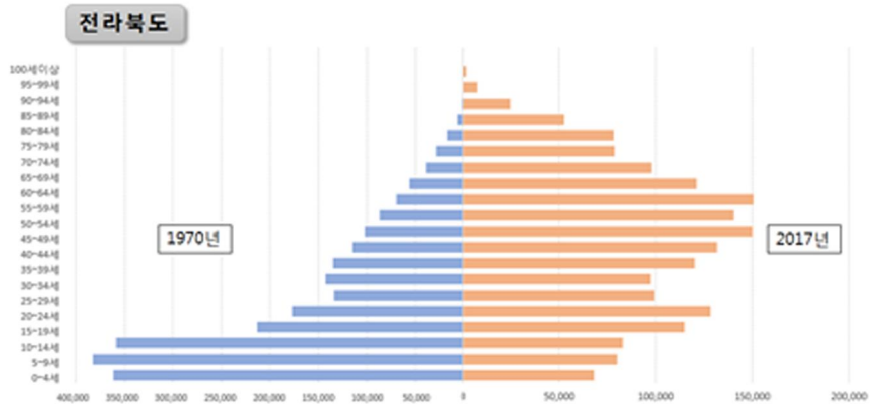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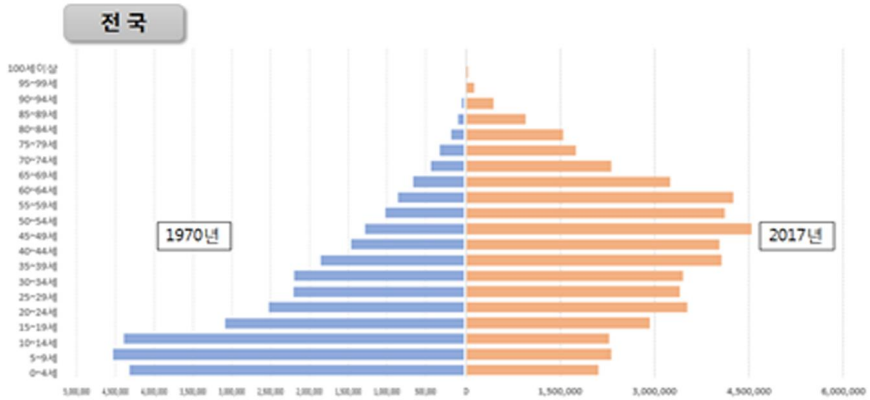
주: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고령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 1970년과 2017년의 전국 및 전라북도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비교한 결과, 1970년 대비 2017년의 전라북도의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추이는 전국 인구구조 변화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남

- 1970년에는 전국과 전라북도 모두 인구구조에서 15세 미만의 영·유아 및 유소년층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구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임. 다만 전라북도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인구가 전국에 비해 급격하게 적어지는 양상이 나타남
- 2017년 역시 전국과 전라북도의 인구구조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전라북도의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국보다 높음. 또한 전라북도는 전국에 비해 30대 연령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적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자리 부족 등의 원인으로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과 전라북도 인구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50~54세, 60~64세로 나타나며 10년 후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을 예측할 수 있음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그림 4-1〉 전국 및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구조 비교 (1970 vs 2017)

- 2017년 기준 전국과 전북의 50~65세 중고령자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연령은 57세로 나타남
- 전국과 전라북도의 중고령자 현황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베이비붐세대에 포함되는 62세(1955년생)까지에 비해 63세를 초과하는 연령대의 인구수가 급격히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인구수에 대한 남성과 여성 인구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으나 중고령 세대에 속하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라북도의 남성 비율이 전국의 남성비율보다 높음

〈표 4-4〉 전국 및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 인구현황(2017)

(단위 : 명, %)

연령	전국			전라북도		
	총인구수	남자인구수(비율)	여자인구수(비율)	총인구수	남자인구수(비율)	여자인구수(비율)
50세	861,873	427,043(49.5)	434,830(50.5)	29,407	15,107(51.4)	14,300(48.6)
51세	815,855	426,660(52.3)	389,195(47.7)	29,134	15,510(53.2)	13,624(46.8)
52세	850,770	427,787(50.3)	422,983(49.7)	29,692	15,327(51.6)	14,365(48.4)
53세	832,633	422,788(50.8)	409,845(49.2)	28,462	14,788(52.0)	13,674(48.0)
54세	792,265	404,923(51.1)	387,342(48.9)	27,465	14,219(51.8)	13,246(48.2)
55세	879,476	448,711(51.0)	430,765(49.0)	30,697	15,843(51.6)	14,854(48.4)
56세	912,277	455,878(50.0)	456,399(50.0)	32,292	16,326(50.6)	15,966(49.4)
57세	920,380	456,944(49.6)	463,436(50.4)	34,934	17,374(49.7)	17,560(50.3)
58세	849,219	421,775(49.7)	427,444(50.3)	30,987	15,469(49.9)	15,518(50.1)
59세	775,456	388,888(50.1)	386,568(49.9)	27,150	13,529(49.8)	13,621(50.2)
60세	767,925	383,917(50.0)	384,008(50.0)	28,308	14,388(50.8)	13,920(49.2)
61세	692,708	343,176(49.5)	349,532(50.5)	25,465	12,781(50.2)	12,684(49.8)
62세	716,331	347,792(48.6)	368,539(51.4)	27,581	13,650(49.5)	13,931(50.5)
63세	608,431	301,064(49.5)	307,367(50.5)	24,281	11,920(49.1)	12,361(50.9)
64세	524,848	254,429(48.5)	270,419(51.5)	19,500	09,612(49.3)	09,888(50.7)
65세	578,745	280,537(48.5)	298,208(51.5)	21,554	10,493(48.7)	11,061(51.3)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

○ 2017년 기준 전국과 전라북도의 총인구 대비 50~65세 중고령인구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국의 총인구수 대비 중고령인구의 비율은 23.9%이며 성별로는 남성 23.9%, 여성 23.9%로 성별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 총인구 대비 중고령인구의 비율은 24.1%로 전국의 비율보다는 높으나 큰 차이는 없음. 다만 성별로는 남성인구 대비 남성 중고령인구의 비율이 24.5%, 여성인구 대비 여성 중고령인구의 비율이 23.7%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는 성별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 전국 및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 인구 비율(2017)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전국	총인구	51,778,544	25,855,919	25,922,625
	중고령인구	12,379,192	6,192,312	6,186,880
	비율	23.9	23.9	23.9
전라북도	총인구	1,854,607	922,290	932,300
	중고령인구	446,909	226,336	220,573
	비율	24.1	24.5	23.7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

○ 2017년 기준 전라북도에서 총인구수 대비 중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진안군으로 나타남

- 진안군은 중고령 인구의 구성비가 28.2%로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 구성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수군(27.5%), 무주군(27.4%), 부안군(27.2%)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중고령 인구의 성비는 시보다 군단위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가장 성비가 높은 지역은 임실군으로 임실군의 성비는 121.5이며, 성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95.0으로 나타난 전주시임. 군 단위 지역의 평균 성비는 112.7이며 시 단위 지역의 평균 성비는 103.8로 나타남

〈표 4-6〉 전라북도 시·군별 중고령 세대 인구 비율(2017)

(단위 : 명, %)

구 분	계	중고령 세대				
		인구수 (비율)	구성비	남성	여성	성비
전북	1,854,607	446,909 (24.1)	100.0	226,336	220,573	102.6
전주	648,964	145,318 (22.4)	32.5	70,785	74,533	95.0
군산	274,997	65,168 (23.7)	14.6	33,208	31,960	103.9
익산	300,187	73,406 (24.5)	16.4	36,951	36,455	101.4
정읍	113,776	28,570 (25.1)	6.4	14,785	13,785	107.3
남원	83,281	21,197 (25.5)	4.7	10,887	10,310	105.6
김제	86,926	23,052 (26.5)	5.2	12,053	10,999	109.6
완주	95,975	23,071 (24.0)	5.2	12,343	10,728	115.1
진안	26,271	7,402 (28.2)	1.7	4,028	3,374	119.4
무주	24,809	6,801 (27.4)	1.5	3,591	3,210	111.9
장수	23,003	6,321 (27.5)	1.4	3,336	2,985	111.8
임실	30,162	7,988 (26.5)	1.8	4,382	3,606	121.5
순창	29,698	7,539 (25.4)	1.7	3,900	3,639	107.2
고창	60,472	15,802 (26.1)	3.5	8,115	7,687	105.6
부안	56,086	15,274 (27.2)	3.4	7,972	7,302	109.2

주 : 2017년 기준 50~65세 인구 성비 = 여성 100명 당 남성의 수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017

- 중고령 세대의 혼인상태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유배우자는 여성과 남성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미혼의 경우 남성이, 무배우자일 경우 여성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과 전라북도는 성별 혼인상태에 있어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유배우자의 경우 남성 52.5%, 여성 47.5%로 전국 평균과 전북의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남

-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무배우자는 전국의 경우 남성 33.5%, 여성 66.5%, 전라북도의 경우 남성 34.8%, 여성 65.2%이며 미혼자는 전국의 경우 남성 64.2%, 여성 35.8%, 전라북도의 경우 남성 68.6%, 여성 31.4%로 나타나 전국에 비해 전라북도의 무배우자, 미혼자의 남성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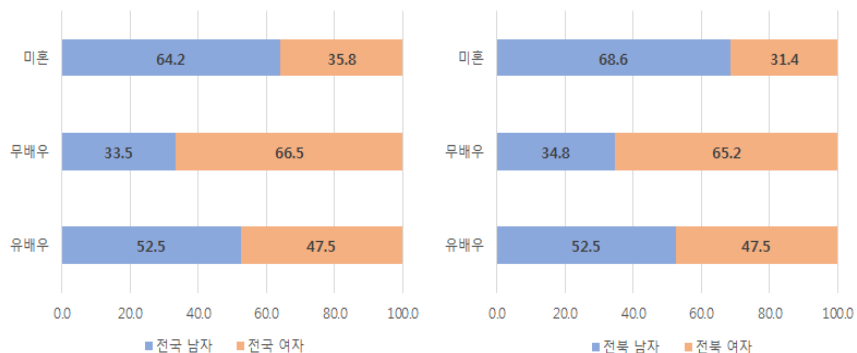
〈표 4-7〉 중고령 세대의 혼인상태(2015)

(단위 : 명)

구 분		유배우	무배우	미혼
전국	계	8,844,672	1,889,347	462,043
	남성	4,645,657	632,503	296,603
	여성	4,199,015	1,256,844	165,440
전라북도	계	325,847	69,165	17,118
	남성	171,220	24,044	11,746
	여성	154,627	45,121	5,37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단위 : %)



〈그림 4-2〉 중고령 세대의 혼인분포(2015)

○ 중고령 세대의 학력 현황을 성별로 비교한 결과, 저학력일수록 여성이, 고학력일수록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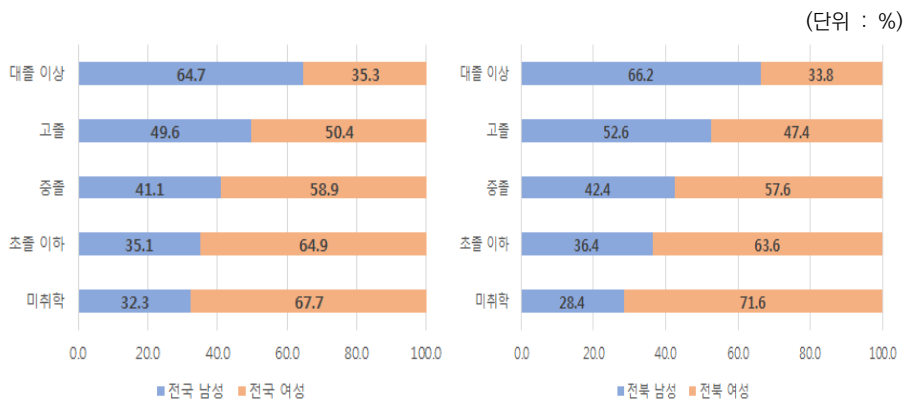
- 전국 중고령 세대 미취학 학력자는 여성 67.7%, 남성 32.3%로 구성된 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남성의 비율이 늘어나 대졸 이상 학력자는 남성 64.7%, 여성 35.3%로 구성됨
-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 학력분포 역시 전국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미취학 학력자의 경우 여성 71.6%, 남성 28.4%로 구성되는 반면 대졸 이상 학력자는 남성 66.2%, 여성 33.8%로 구성됨
- 전국보다 전라북도의 중고령 세대에서 저학력일수록 여성의 분포가, 고학력일수록 남성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 중고령 세대의 학력 현황(2015)

(단위 : 명)

구 분		미취학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국	계	88,257	1,492,548	1,976,590	4,843,659	2,795,008
	남성	28,493	523,196	811,710	2,403,412	1,807,952
	여성	59,764	969,352	1,164,880	2,440,247	987,056
전라북도	계	6,044	77,316	79,783	157,911	91,076
	남성	1,718	28,108	33,853	83,023	60,308
	여성	4,326	49,208	45,930	74,888	30,768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그림 4-3〉 중고령 세대의 학력분포(2015)

○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 가구의 가구원수를 전국과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 가구의 가구원수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 가구 중 1인 가구는 55,967가구로 전북 중고령 세대 가구의 23.9%를 차지하였으며 가구원수가 2~3명인 가구는 중고령 세대 가구의 56.6%로 나타남. 가구원수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가구원수 4~5명인 가구는 18.2%, 가구원수 6명 이상의 가구는 1.3%로 나타남
- 전국의 경우 가구원수가 1명인 1인 가구 21.2%, 가구원수가 2~3명인 가구 55.4%, 가구원수 4~5명인 가구 22.3%, 가구원수 6명 이상인 가구 1.1%로 나타나 전라북도보다 3명 이하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낮고, 4명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은 높음
- 평균 가구원수는 전국이 2.6명, 전라북도가 2.5명으로 전국의 가구원수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음

〈표 4-9〉 중고령 세대 가구의 가구원수 비교(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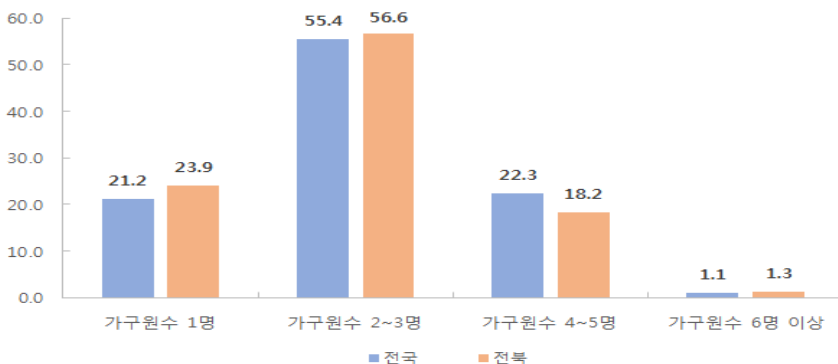
(단위 : 가구, 명)

구 분	가구원수 1명	가구원수 2~3명	가구원수 4~5명	가구원수 6명 이상	평균 가구원수
전국	1,393,595	3,636,778	1,466,562	69,644	2.6
전라북도	55,967	132,442	42,518	2,944	2.5

주 : 자료의 연령분류로 인하여 50~64세 인구의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단위 : %)



〈그림 4-4〉 중고령 세대의 가구의 가구원수 비교(2017)

나. 도농지역 현황 비교

-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하였던 학력, 가구분포, 경제활동 등을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함
 - 도시지역은 동단위의 지역으로, 농촌지역은 읍, 면단위의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봄
- 전라북도 읍면부와 동부 중고령 세대의 학력분포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동부보다 읍면부에 저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동부에 거주하는 중고령 세대 중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여성의 40.4%, 남성의 23.8%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읍면부에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의 66.9%, 남성의 46.2%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나 동부보다 읍면부의 저학력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부는 여성의 59.6%, 남성의 76.2%가 고졸 이상의 학력자인 반면 읍면부는 여성의 33.1%, 남성의 53.9%만이 고졸 이상의 학력자로 나타나 읍면부 거주자의 고학력자 비율이 동부 거주자의 비율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동부보다는 읍면부가, 남성보다는 여성의 학력이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읍면부의 여성은 미취학자 3.4%, 초졸 이하 37.8%, 중졸 25.7%, 고졸 27.5%, 대졸 이상 5.6%로 저학력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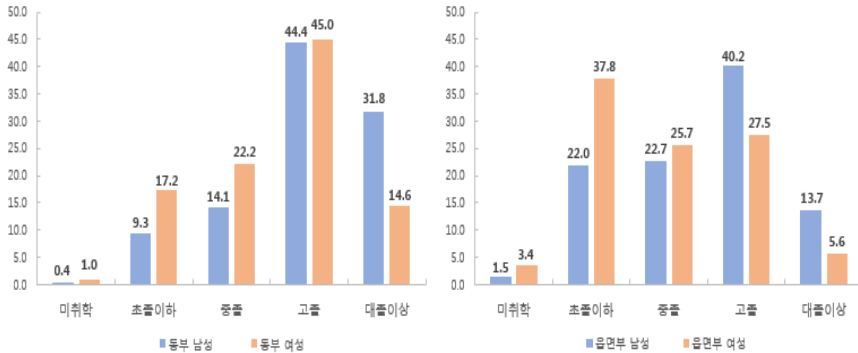
〈표 4-10〉 전라북도 도농지역 중고령 세대의 학력분포(2015)

(단위 : 명)

구 분		미취학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읍면부	남성	935	13,979	14,431	25,564	8,735
	여성	2,096	23,048	15,660	16,760	3,430
동부	남성	532	11,434	17,290	54,476	38,972
	여성	1,253	21,497	27,707	56,133	18,18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단위 : %)



〈그림 4-5〉 전라북도 도농지역 중고령 세대의 학력분포(2015)

○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 가구의 가구원수를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 동부 중고령 세대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3명으로 읍면부 중고령 세대 가구의 평균 2.5명보다 조금 적은 편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읍면부의 중고령 세대 가구 중 1인 가구는 18,002가구로 전체 중고령 세대 가구의 25.6%를 차지하였으며 가구원수가 2~3명인 가구는 전체 중고령 세대 가구의 58.3%로 나타남. 가구원수가 4~5명인 가구는 14.5%, 대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가구원수 6명 이상의 가구는 1.7%로 나타남
- 동부의 경우 가구원수가 1명인 가구는 23.2%, 가구원수 2~3명인 가구 55.9%, 가구원수 4~5명인 가구 19.8%, 가구원수 6명 이상인 가구 1.1%로 나타남
- 전체 가구에서 가구원수가 3인 이하인 가구의 비율은 동부보다 읍면부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원수가 4~5명인 가구의 비율은 동부가 더 높게 나타남

〈표 4-11〉 전라북도 도농지역 중고령 세대 가구의 가구원수 비교(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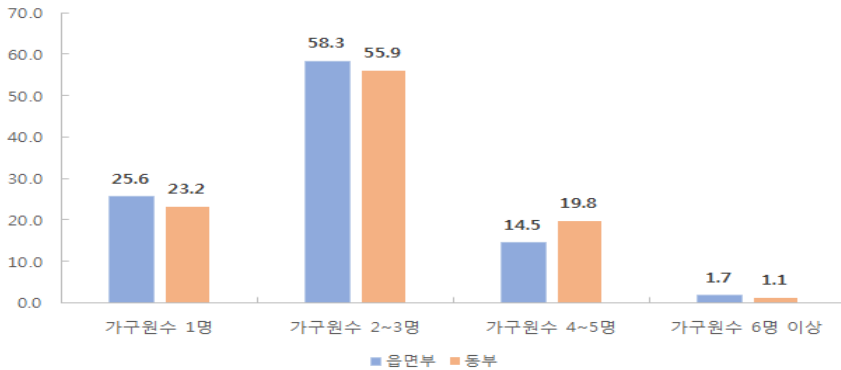
(단위 : 가구, 명)

구 분		가구원수 1명	가구원수 2~3명	가구원수 4~5명	가구원수 6명 이상	평균 가구원수
읍면부	가구	18,002	41,042	10,205	1,194	2.5
동부	가구	37,965	91,400	32,313	1,750	2.3

주 : 자료의 연령분류로 인하여 50~64세 인구의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단위 : %)



〈그림 4-6〉 전라북도 도농지역 중고령 세대의 가구의 가구원수 비교(2017)

- 2015년 기준 전라북도 읍면부와 동부의 중고령 세대 종사상 지위를 비교한 결과, 동부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읍면부는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 여성의 경우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부 중고령 세대의 종사상 지위는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가 60.8%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근로자 31.8%, 사업주 5.0%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종사자는 2.3%로 나타남. 여성은 무급 가족종사자가 44.2%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근로자 29.0%, 자영업자 24.3%, 사업자 2.6%로 나타나 남성보다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 동부에 거주하는 중고령세대 중 남성은 임금근로자가 62.1%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26.8%, 사업주 10.4%, 무급 가족종사자 0.7%로 나타남. 여성 역시 임금근로자가 65.3%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17.1%, 사업주 6.0%, 무급 가족종사자 11.6%로 남성보다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 읍면부와 동부 중고령 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비교하면 동부보다 읍면부 여성의 무급 가족종사자 비율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의 중고령 여성보다 도농, 농촌지역 중고령 여성의 재정자립도와 재무안정성이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임

〈표 4-12〉 중고령 세대의 종사상 지위(2015)

(단위 : %)

구 분		계	임금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읍면부	계	100.0	30.6	44.5	3.9	21.0
	남성	100.0	31.8	60.8	5.0	2.3
	여성	100.0	29.0	24.3	2.6	44.2
동부	계	100.0	63.3	23.1	8.7	4.9
	남성	100.0	62.1	26.8	10.4	0.7
	여성	100.0	65.3	17.1	6.0	11.6

주 : 자료의 연령분류로 인하여 50~64세 인구의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다. 경제활동과 사회보장 특성

- 2015년 기준 전국과 전라북도의 중고령 세대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한 결과,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0~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73.6%, 전라북도 73.8%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차이가 커져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51.4%, 전라북도 55.3%로 3.9%p의 차이가, 65세 이상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23.6% 전북 28.5%로 4.9%p의 차이가 나타남
-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전라북도보다 전국이, 여성의 경우에는 전국보다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전체적으로는 전라북도 중고령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50세부터 64세까지 연령대에서 전라북도보다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연령대는 전라북도가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전라북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격차가 가장 크게 나는 연령대는 60~64세로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보다 약 7.6%p 높음

〈표 4-13〉 중고령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2015)

(단위 : %)

구 분		50 - 54세	55 - 59세	60-64세	65세 이상
전국	계	73.6	65.3	51.4	23.6
	남성	87.5	81.5	67.1	34.2
	여성	59.4	49.2	36.4	15.9
전라북도	계	73.8	67.0	55.3	28.5
	남성	85.6	79.9	66.8	39.2
	여성	61.5	54.0	44.0	2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 2015년 기준 전국과 전라북도의 중고령 세대 종사상 지위를 비교한 결과,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의 무급 가족종사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 중고령 세대의 종사상 지위는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28.0%, 사업주 11.3% 순으로 나타났고 무급 가족종사자는 단 1.0%로 나타남. 여성은 임금근로자 61.0%, 자영업자 18.1%, 사업주 6.2%였으며 무급 가족종사자는 14.7%로 나타나 남성보다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 남성은 임금근로자가 51.5%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38.7%, 사업주 8.5%, 무급 가족종사자 1.3%로 나타났고 여성은 임금근로자 50.2%, 자영업자 20.1%, 사업주 4.6%였으며 무급 가족종사자는 25.1%로 남성보다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전국과 전라북도의 중고령 여성의 종사상 지위를 비교하면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 여성의 무급 가족종사자 비율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적인 중고령 여성보다 전라북도 중고령 여성의 재정적인 자립도나 안정성이 더욱 낮을 것으로 판단됨

〈표 4-14〉 중고령 세대의 종사상 지위(2015)

(단위 : %)

구 분		계	임금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원을 둔 사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전국	계	100.0	60.3	24.2	9.3	6.3
	남성	100.0	59.8	28.0	11.3	1.0
	여성	100.0	61.0	18.1	6.2	14.7
전라북도	계	100.0	51.0	31.1	6.9	10.9
	남성	100.0	51.5	38.7	8.5	1.3
	여성	100.0	50.2	20.1	4.6	25.1

주 : 자료의 연령분류로 인하여 50~64세 인구의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연금 총가입자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2016년에 증가한 후 2017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보다는 남성 가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총가입자수는 2015년 21,568,354명에서 2016년 21,832,524명으로 2015년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21,824,172명으로 소폭 감소하여 2016년 대비 0.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총가입자수의 성별 편차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2015년 여성 가입자의 비율은 38.6%에 불과하였으며 2016년 39.9%, 2017년 40.3%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성별 편차보다 여전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2017년 기준 성별 편차가 높은 지역은 울산(여성가입자 비율 40.3%), 충남(여성가입자 비율 40.5%), 경북(여성가입자 비율 40.7%) 순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총가입자의 성별 편차가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2017년 47.5%로 타 시군에 비해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전북의 경우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 국민연금 여성가입자의 정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5〉 시도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2015-2017)

(단위 : 명)

시도별	성별	총가입자수		
		2015	2016	2017
전국	계	21,568,354	21,832,524	21,824,172
	남성	12,158,087	12,195,190	12,145,339
	여성	9,410,267	9,637,334	9,678,833
서울	계	5,930,108	5,954,405	5,955,458
	남성	3,233,229	3,216,441	3,201,644
	여성	2,696,879	2,737,964	2,753,814
부산	계	1,291,544	1,288,398	1,269,993
	남성	697,285	689,887	679,025
	여성	594,259	598,511	590,968
대구	계	877,596	883,563	874,154
	남성	478,714	477,228	470,474
	여성	398,882	406,335	403,680
인천	계	1,055,777	1,068,778	1,064,650
	남성	597,097	597,744	592,890
	여성	458,680	471,034	471,760
광주	계	507,708	514,031	514,485
	남성	268,579	270,415	270,200
	여성	239,129	243,616	244,285
대전	계	579,961	583,503	580,865
	남성	309,269	310,827	309,774
	여성	270,692	272,676	271,091
울산	계	470,901	463,805	448,966
	남성	289,008	278,539	268,074
	여성	181,893	185,266	180,892
세종	계	71,571	80,659	87,489
	남성	41,081	44,860	47,471
	여성	30,490	35,799	40,018

시도별	성별	총가입자수		
		2015	2016	2017
경기	계	4,921,544	5,069,581	5,125,948
	남성	2,833,180	2,901,303	2,927,014
	여성	2,088,364	2,168,278	2,198,934
강원	계	519,227	540,273	540,075
	남성	280,336	287,703	285,839
	여성	238,891	252,570	254,236
충북	계	598,558	606,744	612,685
	남성	339,738	341,983	345,488
	여성	258,820	264,761	267,197
충남	계	815,569	827,830	836,613
	남성	491,890	493,329	498,109
	여성	323,679	334,501	338,504
전북	계	629,854	634,496	627,300
	남성	344,158	342,452	336,827
	여성	285,696	292,044	290,473
전남	계	680,174	686,103	680,039
	남성	400,681	398,852	392,826
	여성	279,493	287,251	287,213
경북	계	1,042,430	1,049,466	1,041,546
	남성	624,613	623,962	617,564
	여성	417,817	425,504	423,982
경남	계	1,337,741	1,328,694	1,301,743
	남성	801,532	784,802	761,249
	여성	536,209	543,892	540,494
제주	계	238,091	252,195	262,163
	남성	127,697	134,863	140,871
	여성	110,394	117,332	121,292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년도

○ 전국 및 전라북도의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확인한 결과 전국은 45~49세 연령대 가입자가, 전라북도는 55~59세 연령대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국민연금 총가입자 중 가장 가입자가 많은 연령대는 45~49세로 나타났는데 45~49세 가입자는 2015년 2,638,038명으로 전체의 15.5%를 구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체 가입자 중 16.1%가 45~49세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약 10세 정도 높은 55~59세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80,955명으로 전체의 17.0%를 구성하던 해당 연령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전라북도 국민연금 가입자 중 55~59세 연령대 가입자가 18.3%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전국은 45~49세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50~59세로 약 10세 정도 높은 이유는 전국 평균에 비해 전라북도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전국 평균 및 전라북도의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성비를 살펴보면 20~24세 연령대와 60대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국의 경우 20~24세 연령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중 61.6%가 여성이며 60대 이상은 69.3%가 여성이고 전라북도는 20~24세의 국민연금 가입자 중 61.5%, 60대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 76.7%가 여성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남성 가입자수가 더 많은데 반해 20~24세 연령대에서 여성 가입자가 더 많은 이유는 남성의 경우 군복무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시작이 여성보다 늦기 때문이며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여성 가입자가 많은 이유는 인구구조상 고령화가 될수록 여성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임

〈표 4-16〉 전국 및 전라북도 성별,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수 (2015-2017)

(단위 : 명)

연령	2015		2016		2017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라북도						
계	258,171	218,935	262,976	230,705	261,704	236,053
18~19세	1,220	896	1,300	868	994	737
20~24세	6,070	9,677	6,599	9,882	6,411	9,550
25~29세	16,387	15,647	16,998	16,094	17,305	16,378
30~34세	27,694	18,639	26,348	18,377	23,970	17,528
35~39세	32,842	22,767	33,167	23,632	33,091	24,119
40~44세	41,633	32,070	40,201	32,099	38,821	31,874
45~49세	43,428	35,643	45,213	38,698	45,982	39,681
50~54세	43,355	37,276	43,289	38,017	42,876	39,076
55~59세	42,996	37,959	45,783	42,042	46,933	44,136
60세 이상	2,546	8,361	4,078	10,996	5,321	12,974
전 국						
계	9,740,937	7,315,852	9,952,110	7,707,145	10,029,760	7,968,295
18~19세	58,892	52,032	60,970	54,168	53,613	46,940
20~24세	287,293	460,540	309,522	467,276	306,996	455,385
25~29세	837,365	769,990	864,903	798,398	894,888	824,494
30~34세	1,310,425	818,346	1,251,093	806,546	1,178,929	790,719
35~39세	1,408,583	811,940	1,460,584	867,968	1,494,139	910,107
40~44세	1,530,276	1,008,607	1,500,020	1,014,826	1,471,372	1,019,704
45~49세	1,511,139	1,126,899	1,582,735	1,225,043	1,624,812	1,266,439
50~54세	1,435,730	1,111,765	1,440,252	1,148,040	1,437,481	1,198,724
55~59세	1,293,858	1,003,993	1,392,588	1,131,187	1,457,038	1,220,980
60세 이상	67,376	151,740	89,443	193,693	110,492	234,803

주 : 지역가입자에서 납부예외자는 제외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년도

-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이 74.8%로 가장 높고, 고용보험이 71.9%, 국민연금이 69.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대비 건강보험 가입자는 1.2%, 고용보험 가입자는 0.8% 증가한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74.1%, 고용보험 가입자 71.5%, 국민연금 가입자 69.5%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회보험 가입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각각의 사회보험 가입자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나 2016년 대비 2017년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대구광역시 다음으로 많이 증가하였음

〈표 4-17〉 시도별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 (2017년 4월 기준)

(단위 : %)

연령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16.4	'17.4	증감	'16.4	'17.4	증감	'16.4	'17.4	증감
전체	70.2	69.6	-0.6	73.6	74.8	1.2	71.1	71.9	0.8
서울	71.2	69.2	-2.0	74.5	75.1	0.6	72.1	71.9	-0.2
부산	66.6	64.6	-2.0	71.0	71.0	0.0	69.2	66.3	-2.9
대구	62.6	64.8	2.2	66.3	69.7	3.4	62.5	66.3	3.8
인천	67.7	66.7	-1.0	70.3	71.7	1.4	69.0	69.8	0.8
광주	70.5	69.0	-1.5	72.6	72.8	0.2	70.6	69.4	-1.2
대전	72.0	72.0	0.0	74.2	76.3	2.1	70.9	73.9	3.0
울산	74.4	72.6	-1.8	78.4	77.0	-1.4	77.3	75.2	-2.1
경기	71.3	71.8	0.5	75.0	76.9	1.9	72.2	74.1	1.9
강원	69.5	66.6	-2.9	73.0	73.4	0.4	69.1	69.1	0.0
충북	72.3	69.7	-2.6	75.4	74.8	-0.6	73.1	71.7	-1.4
충남	73.5	74.1	0.6	76.1	78.5	2.4	73.0	75.8	2.8
전북	68.7	69.5	0.8	72.0	74.1	2.1	68.4	71.5	3.1
전남	64.3	61.6	-2.7	67.3	67.0	-0.3	65.9	64.0	-1.9
경북	70.8	70.7	-0.1	74.2	76.0	1.8	71.4	73.2	1.8
경남	73.8	72.4	-1.4	76.6	77.6	1.0	75.0	75.4	0.4
제주	62.9	66.7	3.8	65.1	69.6	4.5	62.0	65.9	3.9

주 :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지역연금 포함 2012.7.1. 기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나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포함하여 집계

자료 : 통계청,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 보도자료」, 2017.11.29.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고령자부가조사를 통하여 55세 ~ 79세의 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반면 연금수령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5세에서 79세까지 전체인구 중 남성의 인구비율은 2014년 46.9%에서 2018년 47.6%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성의 비율은 2014년 53.1%에서 2018년 52.4%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인구 대비 연금수령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2016년부터는 다시 연금수령자의 비율이 늘어남, 2018년 기준 남성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49.7% 정도가 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여성은 전체 인구의 약 41.8%만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연금수령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18〉 최근 5년간 성별 연금 수령 여부 (55~79세)

(단위 : 천명, %)

	계		남성		여성	
	55~79세 인구	연금수령자	인구비율	연금수령자	인구비율	연금수령자
2014	11,328	5,117	46.9	49.6	53.1	41.3
2015	11,807	5,251	47.1	48.8	52.9	40.7
2016	12,438	5,379	47.1	47.5	52.9	39.4
2017	12,929	5,763	47.4	49.0	52.6	40.6
2018	13,441	6,129	47.6	49.7	52.4	4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부가조사」 재구성, 각년도

○ 최근 5년간 55세 ~ 79세 월평균 연금 수령액을 확인한 결과, 2014년 이후로 연금 수령액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10만원 미만의 소액 연금을 수령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1.1%였으나 2015년에는 1.5%로 10만원 미만의 소액 연금 수령자가 급감하였으며 평균 연금 수령금액 또한 2014년 42만원에서 2015년 50만원으로 약 8만원이 증가함
- 2018년 월평균 연금 수령금액은 57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35.7%가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10만원 미만 연금 수령자는 0.6%, 10~24만원 연금 수령자는 42.9%, 25~49만원 연금 수령자는 27.6%, 50~99만원 연금 수령자는 15.0%, 100~149만원 연금 수령자는 4.3%, 15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9.7%로 나타나 소액 연금 수령자는 점점 줄고, 고액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액 연금 수령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4만원 이하 연금 수령자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25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0만원 미만 수령자는 2014년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14.0%p 높았으나 수령자의 비율이 급감한 2015년 이후로는 1%p 미만의 비율 차이가 나타났으며 차이의 정도도 점점 줄어들음
- 10만원~24만원 연금 수령자는 남성의 경우 2014년 28.3%에서 2018년 25.8%로 줄어든 반면 여성의 경우 2014년 50.8%에서 2018년 61.4%로 늘어나 해당 구간의 성별 수령자 비율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남
- 25~49만원 구간의 연금 수령자 비율은 여성 수령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성별 차이가 감소하였으나 5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여성의 증가폭보다 남성의 증가폭이 높아 성별 비율의 차이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9〉 최근 5년간 월평균 연금 수령액 (55~79세)

(단위 : 천명, %, 만원)

		전체	10만원 미만	10~24 만원	25~49 만원	50~99 만원	100~14 9만원	150만원 이상	평균 수령금액
전체	2014	100.0(5,117)	21.1	39.2	19.7	9.1	3.3	7.7	42
	2015	100.0(5,251)	1.5	50.4	24.9	11.1	3.7	8.4	50
	2016	100.0(5,379)	0.9	49.2	24.9	12.3	4.0	8.7	51
	2017	100.0(5,763)	0.7	46.6	26.2	13.7	4.0	8.8	53
	2018	100.0(6,129)	0.6	42.9	27.6	15.0	4.3	9.7	57
남성	2014	100.0(2,636)	14.3	28.3	25.8	14.8	4.4	12.4	60
	2015	100.0(2,713)	1.1	33.6	29.3	17.2	5.4	13.4	67
	2016	100.0(2,788)	0.5	32.5	28.4	18.7	6.1	13.9	69
	2017	100.0(2,999)	0.4	30.1	29.7	20.4	5.7	13.5	69
	2018	100.0(3,181)	0.5	25.8	29.7	22.8	6.4	14.8	76
여성	2014	100.0(2,481)	28.3	50.8	13.3	2.9	2.1	2.7	24
	2015	100.0(2,538)	2.0	68.4	20.2	4.5	1.9	3.0	31
	2016	100.0(2,591)	1.3	67.3	21.1	5.4	1.7	3.2	32
	2017	100.0(2,764)	1.0	64.5	22.4	6.4	1.9	3.7	34
	2018	100.0(2,947)	0.7	61.4	25.3	6.5	2.0	4.2	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부가조사」 재구성, 각년도

2.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조사 개요

1) 조사 방법

- 조사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50~ 65세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표집은 연령과 지역을 고려하여 연령은 50~55세, 56~60세, 60~65세를 약33%씩 할당하고 지역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도시지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도농지역(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농촌지역(순창군, 고창군)의 중고령여성 인구를 반영하여 표본을 할당하였으나, 조사 여건에 따라 최종표본에서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음
- 설문조사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019년 3월 7일까지 총 15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훈련된 조사원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개별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식조사 형식을 병행하였음
- 이 조사는 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무응답 등의 결측값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수는 384개임
- 조사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기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비교분석 등임. 교차분석에서는 연령, 지역, 학력, 가구소득, 취업여부, 배우자유무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함. 이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후인식과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었던 변수들이며 본 연구주제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미 있는 변수로 판단됨

2) 설문 내용

- 설문의 내용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음. 첫 번째 영역은 노후인식에 대한 내용으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시작 사건 및 연령, 노후 삶에서의 걱정과 희망하는 노후 삶의 모습 등을 확인하고자 함. 두 번째 영역은 노후준비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응답자의 노후준비 인식과 역량, 건강·대인관계·여가·재무 각 영역별 준비도, 노후준비 어려움과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세 번째 영역은 노후준비 여건으로 응답자의 경제활동 경험과 가구소득원 및 소득수준, 노후경제 활동에 대한 의사, 노후연금 수령여부 등을 조사함. 네 번째 영역은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 및 욕구로 노후설계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경험과 필요성, 희망하는 영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됨.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역은 응답자의 특성으로 연령·혼인상태·교육정도 등 개인의 인구학적 배경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됨

〈표 4-20〉 세부 설문조사 항목

구분	조사내용
노후인식	• 주관적인 노후시작 사건 및 연령 • 노후 삶에서의 걱정거리 • 희망하는 노후 삶의 모습 및 최근의 관심사
노후준비 현황	• 노후준비 인식과 역량 • 영역별 준비도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 노후준비 어려움과 장애요인
노후준비 여건	• 경제활동 경험 및 내용 • 가구소득원 및 소득수준 • 노후경제활동 의사 및 내용 • 노후연금 수령여부 • 노후대비 소득마련 수단 및 노후 예상 생활비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 및 욕구	•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경험여부 • 노후설계 상담 및 교육의 필요성 • 노후대비를 위한 준비를 희망하는 영역
응답자 특성	•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가족유형, 주거형태 등

나.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연령] 전체 응답자 중 50~54세는 119명으로 31.2%, 55~59세는 141명으로 36.9%, 60~65세는 122명으로 31.9%로 나타남. 55~59세가 가장 많았으며 60~65세, 50~54세 연령대 순이었음
- [지역] 전주, 익산, 군산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은 254명으로 66.2%, 정읍, 김제, 완주가 포함된 도농지역은 77명으로 20.0%였으며 순창과 고창에 해당하는 농촌 지역은 53명으로 13.8%로 나타남
- [학력]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49.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35.1%, 중학교 졸업 10.0%, 초등학교 졸업 이하 5.0% 순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 전체 응답자의 86.7%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13.3% 이었음
- [가족유형]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가 53.0%로 과반을 넘었으며, 부부만 거주하는 1세대 가구가 33.2%, 조부모와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와 1인 가구가 각각 6.9%로 나타남
- [취업] 응답자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는 73.2%였으며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미취업자는 26.8%로 나타남
- [가장 오래 종사한 종사상 지위] 가장 오래 종사한 종사상 지위가 임금 근로자인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2.6%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그 뒤로 자영업자 20.2%, 전업주부 19.1%, 고용주 2.7%, 무급 가족종사자 1.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응답은 3.5%임

〈표 4-2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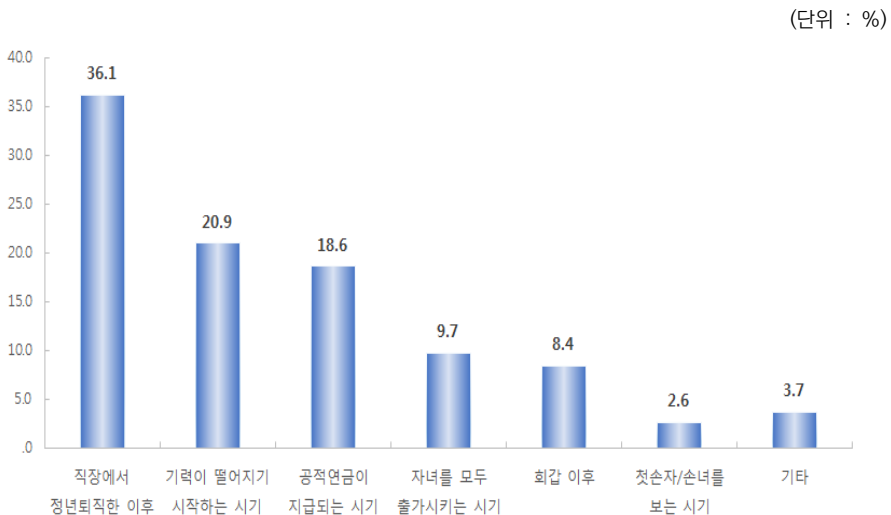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빈도	비율
연령	50~54세	119	31.2
	55~59세	141	36.9
	60~65세	122	31.9
	계	382	100.0
지역	도시 (전주, 익산, 군산)	254	66.2
	도농 (정읍, 김제, 완주)	77	20.0
	농촌(순창, 고창)	53	13.8
	계	384	1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9	5.0
	중학교 졸업	38	10.0
	고등학교 졸업	134	35.1
	대학 졸업 이상	190	49.9
	계	381	100.0
혼인상태	무배우	51	13.3
	유배우	333	86.7
	계	384	100.0
가족유형	부부	126	33.2
	부부+자녀	201	53.0
	조부모+부부+자녀	26	6.9
	1인 가족	26	6.9
	계	379	100.0
취업	취업	281	73.2
	미취업	103	26.8
	계	284	100.0
가장 오래 종사한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95	52.6
	자영업자	75	20.2
	고용주	10	2.7
	무급 가족종사자	7	1.9
	전업주부	71	19.1
	기타	13	3.5
	계	371	100.0

2) 노후 인식

가) 노후 시작 시기

-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시기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이후’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이후’가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응답이 36.1%이며 그 뒤를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20.9%, ‘공적연금이 지급되는 시기’ 18.6%,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는 시기’ 9.7%, ‘회갑 이후’ 8.4%, ‘첫손자/손녀를 보는 시기’ 2.6% 순으로 나타남



〈그림 4-7〉 주관적인 노후시작 사건

- 응답자의 인구특성별로 주관적인 노후시작 사건 인식을 비교해본 결과, 연령별, 지역별, 가구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별로 50~54세는 응답자의 47.1%가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시기’를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응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높았으나 55~59세는 33.6%, 60~65세는 28.1%만이 응답하여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남. 55세~59세는 ‘공적 연금이 지급 되는 시기’를 노후시작 시기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25.0%, 60~65세는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응답이 24.8%로 다른 연령대의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도시와 도농, 농촌 모두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시기'를 노후시작 사건으로 인식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도농지역에서는 26.8%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농촌지역에서는 18.9%가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는 시기'를 노후시작 사건으로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도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시기'를 노후시작 사건으로 인식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300만원 미만의 월소득이 있는 집단은 '회갑 이후'를 노후시작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이 16.2%로 300만원 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집단에 비해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4-22〉 인구특성별 주관적인 노후시작 사건

(단위 : %)

구 분		직장에서 정년 퇴직한 시기	기력이 떨어 지는 시기	공적 연금이 지급 되는 시기	자녀를 모두 출가 시키는 시기	회갑 이후	첫손자/ 손녀를 보는 시기	기타	x2 (p)
전체		36.1	20.9	18.6	9.7	8.4	2.6	3.7	-
연령	50~54세	47.1	20.2	12.6	5.9	5.0	4.2	5.0	31.268** (.002)
	55~59세	33.6	18.6	25.0	13.6	6.4	2.1	0.7	
	60~65세	28.1	24.8	17.4	8.3	14.0	1.7	5.8	
지역	도시	37.3	19.4	18.7	9.5	6.7	3.2	5.2	21.461* (.044)
	도농	33.8	28.6	22.1	3.9	11.7	0.0	0.0	
	농촌	34.0	17.0	13.2	18.9	11.3	3.8	1.9	
학력	중졸 이하	28.1	26.3	17.5	12.3	12.3	3.5	0.0	14.206 (.288)
	고졸	30.1	22.6	19.5	9.0	11.3	3.0	4.5	
	대졸 이상	42.6	18.4	17.9	9.5	5.3	2.1	4.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3.1	21.3	19.9	6.6	16.2	0.7	2.2	25.274* (.014)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7.6	21.5	17.4	13.4	2.7	3.4	4.0	
	600만원 이상	38.7	18.3	18.3	8.6	6.5	4.3	5.4	
취업 여부	취업	37.1	20.4	18.6	9.6	7.9	3.2	3.2	2.819 (.831)
	미취업	33.3	22.5	18.6	9.8	9.8	1.0	4.9	
배우자 유무	무배우	35.3	19.6	17.6	13.7	7.8	0.0	5.9	3.431 (.753)
	유배우	36.3	21.1	18.7	9.1	8.5	3.0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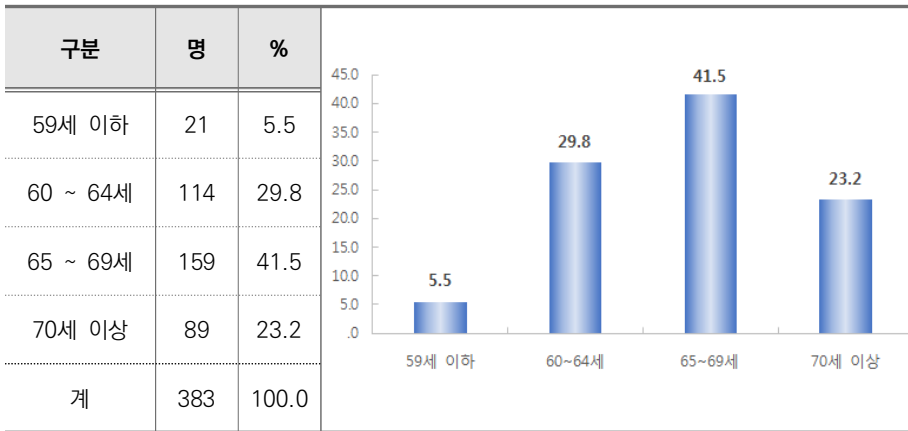
주 : ***p<0.01, **p<0.1, *p<0.5

○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시작 연령은 65~69세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60~64세가 29.8%, 70세 이상이 23.2% 59세 이하가 5.5%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들의 노후시작 연령에 대한 응답 평균은 64.6세이며 전체 응답의 중위 연령은 65세로 나타남. 이는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국민연금 수급시작 연령과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의 기준과 비슷함

〈표 4-23〉 주관적인 노후시작 연령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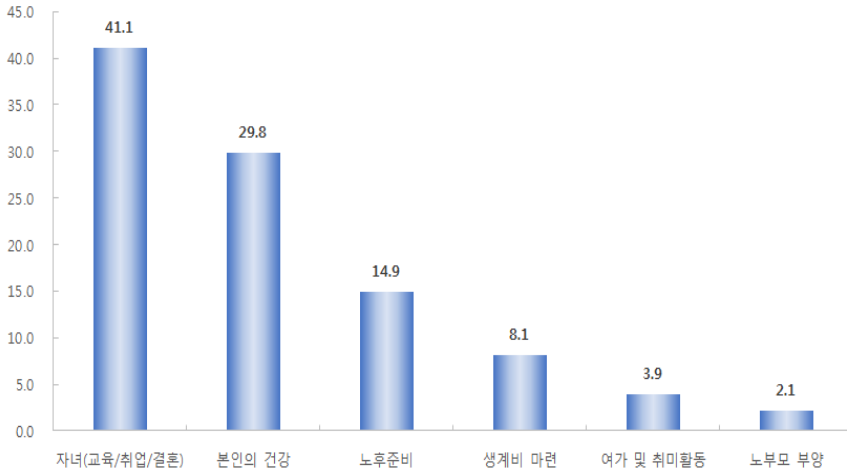


나) 최근의 관심사

○ 조사대상자의 최근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의 교육/취업/결혼'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관심사에 대하여 '자녀의 교육/취업/결혼'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1.1%였으며 '본인의 건강'이라는 응답은 29.8%로 나타남. '노후준비'는 전체 응답자의 14.9%가 최근 자신의 관심사라고 응답하였으며 '생계비 마련' 8.1%, '여가 및 취미활동' 3.9%, '노부모 부양' 2.1%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8〉 최근의 가장 큰 관심사

○ 인구특성별 최근의 관심사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가구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연령에서는 ‘자녀의 교육/취업/결혼’이 최근의 관심사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50~54세에서는 전체의 52.1%가 ‘자녀의 교육/취업/결혼’을 관심사로 응답함. 55~59세, 60~65세는 50~54세 연령대에 비해 ‘본인의 건강’을 관심사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배우자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은 ‘자녀의 교육/취업/결혼’이 가장 큰 관심사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았으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은 ‘본인의 건강’을 가장 큰 관심사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41.2%로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음. 또한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관심사라는 응답은 유배우자보다 무배우자 집단에서 응답률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응답자의 49.5%가 ‘자녀의 교육/취업/결혼’을 관심사로 응답한 반면 중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는 38.6%가 ‘본인의 건강’을 관심사로 응답하였으며 24.6%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보다 ‘본인의 건강’과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취업/결혼’이 주된 관심사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노후준비’와 ‘생계비 마련’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인구특성별 최근의 가장 큰 관심사

(단위 : %)

구 분		자녀의 교육/ 취업/ 결혼	본인의 건강	노후 준비	생계비 마련	여가 및 취미 활동	노부모 부양	x2 (p)
전체		41.1	29.8	14.9	8.1	3.9	2.1	-
연령	50~54세	52.1	22.7	10.1	6.7	5.9	2.5	16.620 (.083)
	55~59세	39.3	32.9	16.4	6.4	3.6	1.4	
	60~65세	32.2	33.1	18.2	11.6	2.5	2.5	
지역	도시	40.9	29.0	15.1	8.3	4.0	2.8	3.483 (.968)
	도농	37.7	32.5	15.6	9.1	3.9	1.3	
	농촌	47.2	30.2	13.2	5.7	3.8	0.0	
학력	중졸 이하	29.8	38.6	24.6	5.3	1.8	0.0	21.541* (.018)
	고졸	35.1	31.3	14.9	12.7	4.5	1.5	
	대졸 이상	49.5	26.6	11.2	5.9	4.3	2.7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2.8	30.7	19.7	13.1	2.9	0.7	24.299** (.007)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8.9	32.9	12.8	8.1	4.7	2.7	
	600만원 이상	55.4	25.0	10.9	1.1	4.3	3.3	
취업	취업	43.6	27.9	14.6	7.9	3.2	2.9	7.355
여부	미취업	34.3	35.3	15.7	8.8	5.9	0.0	(.196)
배우자	무배우	25.5	41.2	15.7	13.7	2.0	0.0	12.516
유무	유배우	43.2	27.9	14.7	7.2	4.2	2.4	(.051)

주 : ***p(0.01, **p(0.1, *p(0.5

다) 노후생활에서 걱정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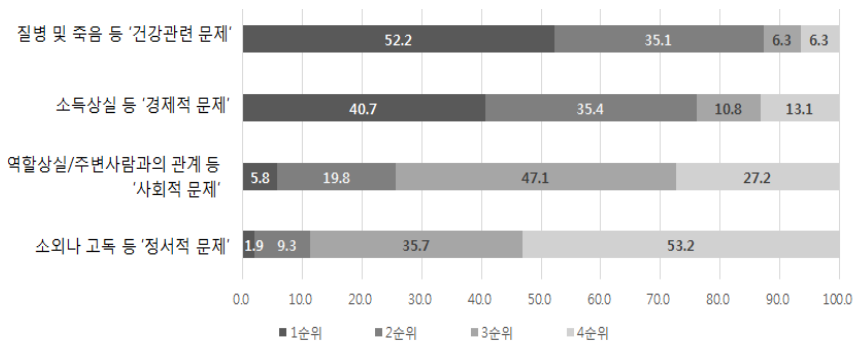
- ‘경제적 문제’, ‘건강관련 문제’, ‘사회적 문제’, ‘정서적 문제’ 중 향후 삶에서 걱정되는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긴 결과, 질병 및 죽음 등 ‘건강 관련 문제’가 가장 걱정된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상실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1순위로 걱정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7%, 2순위로 걱정된다는 응답이 35.4%로 나타나 ‘건강관련 문제’만큼이나 응답자들의 향후 노후생활의 걱정거리라는 것이 확인됨.
- 그에 반해 ‘사회적 문제’는 3순위가 47.1%, ‘정서적 문제’는 4순위가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건강관련 문제’와 ‘경제적 문제’보다는 향후 삶의 걱정거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5〉 노후생활에서 걱정되는 문제

(단위 :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소득상실 등 '경제적 문제'	40.7	35.4	10.8	13.1
질병 및 죽음 등 '건강관련 문제'	52.2	35.1	6.3	6.3
역할상실 및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등 '사회적 문제'	5.8	19.8	47.1	27.2
소외나 고독 등 '정서적 문제'	1.9	9.3	35.7	53.2

(단위 : %)



〈그림 4-9〉 노후생활에서 걱정되는 문제

- 향후 노후생활에서 걱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집단별로 비교해본 결과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과 가구소득 집단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경제적 문제'에 대해 지역집단에서는 도농지역의 응답자가 노후생활의 가장 큰 걱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지역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4점 만점에 2.95점, 농촌지역은 4점 만점에 2.98점인 반면 도농지역은 4점 만점에 3.35점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미만의 집단의 '경제적 문제'가 걱정된다는 응답 평균이 4점 만점에 3.34점인데 반해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는 3.03점, 6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는 2.58점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향후 삶에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남

-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문제’를 노후생활의 걱정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은 ‘사회적 문제’를 향후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데 4점 만점에 1.89점인 반면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집단은 2.06, 600만원 이상 집단은 2.25점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를 노후생활의 걱정거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6〉 노후생활에서 걱정되는 문제의 집단 간 차이

(단위 : 명, 점)

	구 분		N	M	SD	t/F	p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문제'	연령	50~54세	119	3.04	1.053	0.009	.991
		55~59세	139	3.04	0.988		
		60~65세	121	3.02	1.037		
	지역	도시	251	2.95	1.069	4.675	.010*
		도농	77	3.35	0.870		
		농촌	53	2.98	0.909		
	학력	중졸 이하	57	3.28	.750	2.468	.085
		고졸	134	3.07	1.045		
		대졸 이상	187	2.95	1.05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5	3.34	.882	16.487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49	3.03	.958		
		600만원 미만	93	2.58	1.145		
		600만원 이상	93	2.58	1.145		
	취업 여부	취업	279	1.98	1.056	0.514	.608
		미취업	102	1.92	0.919		
배우자 유무	무배우	50	3.02	1.097	-0.124	.907	
	유배우	331	3.04	1.010			

	구 분		N	M	SD	t/F	p
질병 및 죽음 등의 '건강관련 문제'	연령	50~54세	119	3.36	0.778	0.113	.894
		55~59세	138	3.31	0.927		
		60~65세	120	3.33	0.852		
	지역	도시	251	3.36	0.853	2.030	.133
		도농	77	3.17	0.834		
		농촌	53	3.45	0.879		
	학력	중졸 이하	55	3.49	.690	1.457	.234
		고졸	134	3.26	.866		
		대졸 이상	187	3.35	.875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4	3.25	.811	2.599	.076
		300만원 이상	148	3.30	.936		
		600만원 미만	93	3.51	.775		
		600만원 이상	93	3.51	.775		
	취업 여부	취업	276	1.64	.834	-0.810	.419
		미취업	103	1.73	.910		
	배우자 유무	무배우	50	3.34	.848	0.067	.946
		유배우	329	3.33	.857		
역할상실 및 주변사람과의 관계 등의 '사회적 문제'	연령	50~54세	119	2.06	0.784	0.109	.897
		55~59세	138	2.02	0.832		
		60~65세	119	2.07	0.899		
	지역	도시	250	2.08	0.853	1.004	0.367
		도농	77	1.99	0.769		
		농촌	53	1.92	0.868		
	학력	중졸 이하	55	1.87	.668	1.464	.233
		고졸	134	2.03	.858		
		대졸 이상	186	2.09	.86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3	1.89	.745	5.163	.006**
		300만원 이상	148	2.06	.875		
		600만원 미만	93	2.25	.880		
		600만원 이상	93	2.25	.880		
	취업 여부	취업	276	2.96	.826	-0.044	.966
		미취업	102	2.96	.878		
	배우자 유무	무배우	49	1.92	.862	-1.083	.283
		유배우	329	2.06	.835		

	구 분		N	M	SD	t/F	p
소외나 고독 등의 '정서적 문제'	연령	50~54세	119	1.54	0.734	0.603	.548
		55~59세	138	1.64	0.764		
		60~65세	119	1.61	0.703		
	지역	도시	250	1.61	0.721	1.197	.303
		도농	77	1.49	0.737		
		농촌	53	1.69	0.787		
	학력	중졸 이하	55	1.38	0.593	2.714	.068
		고졸	134	1.63	0.751		
		대졸 이상	186	1.62	0.74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3	1.53	0.680	0.984	.375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48	1.62	0.768		
		600만원 미만 900만원 미만	93	1.67	0.757		
		900만원 이상	93	1.67	0.757		
	취업 여부	취업	276	3.41	0.700	0.296	.768
		미취업	102	3.38	0.821		
	배우자 유무	무배우	49	1.76	.751	1.577	.120
		유배우	329	1.57	.729		

주 : ***p<0.01, **p<0.1, *p<0.5

라) 희망하는 노후생활

- 희망하는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1순위와 2순위 통틀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남(1순위 33.7%, 2순위 22.4%)
 - 1순위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33.7%,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25.6%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종교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등이 이음
 - 2순위는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과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각각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습과 같은 자아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17.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4-27〉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모습

(단위 :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종합순위(중복응답)	
	N	%	N	%	N	%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129	33.7	85	22.4	214	28.0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98	25.6	56	14.7	154	20.2
종교 활동에 전념하면서 보내고 싶다	47	12.3	46	12.1	93	12.2
자원봉사와 같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46	12.0	85	22.4	131	17.2
학습과 같은 자아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37	9.7	65	17.1	102	13.4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보내고 싶다	22	5.7	24	6.3	46	6.0
가사 및 손자녀 양육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4	1.0	16	4.2	20	2.6
기타	0	0.0	3	0.8	3	0.4

-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모습은 모든 인구특성에서 ‘젊어서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인구특성 중 학력과 가구소득에서는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모습에 대하여 비슷한 응답 경향이 나타났는데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득창출을 위한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은 높게 나타남
 - 반면 ‘학습과 같은 자아계발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는 응답은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남
 -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한 생활’의 노후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11.1%로 다른 인구특성별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노후에는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28〉 인구특성별 희망하는 노후생활의 모습 (종합순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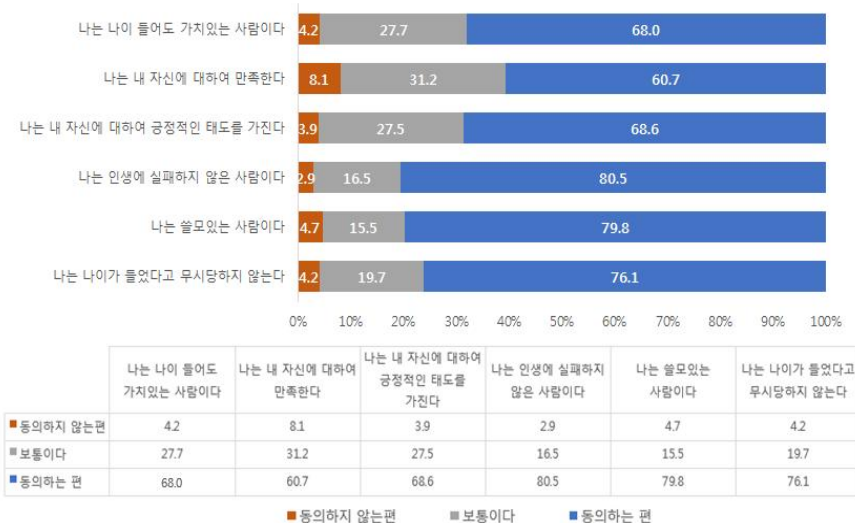
구 분		취미 생활	소득 창출을 위한 일	종교 활동	자원 봉사	자아 계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한 생활	가사 및 손자녀 양육	기타
전체		28.0	20.2	12.2	17.2	13.4	6.0	2.6	0.4
연령	50~54세	24.6	14.0	20.3	13.6	19.1	2.1	5.9	0.4
	55~59세	29.1	12.1	18.4	10.6	20.6	3.5	5.0	0.7
	60~65세	30.7	14.1	12.0	12.9	20.7	2.1	7.5	0.0
지역	도시	27.2	13.1	18.7	13.9	19.4	3.0	4.2	0.6
	도농	28.6	13.6	11.0	8.4	24.0	1.3	13.0	0.0
	농촌	31.4	14.3	19.0	9.5	18.1	2.9	4.8	0.0
학력	중졸 이하	28.9	10.5	10.5	10.5	26.3	1.8	11.4	0.0
	고졸	29.3	12.4	13.2	13.9	22.9	1.9	5.6	0.8
	대졸 이상	26.8	14.9	22.3	11.4	16.4	3.4	4.5	0.3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0.0	10.7	11.9	13.0	23.3	3.0	8.1	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4	11.7	20.4	14.7	20.4	3.0	5.0	0.3
	600만원 이상	30.6	18.8	20.4	7.0	15.6	1.6	4.8	1.1
취업 여부	취업	28.6	13.0	17.5	11.4	20.7	2.7	5.5	0.5
	미취업	26.6	14.3	16.3	14.3	18.7	2.5	7.4	0.0
배우자 유무	무배우	30.3	19.2	13.1	15.2	9.1	11.1	2.0	0.0
	유배우	27.7	20.3	12.0	17.5	14.0	5.3	2.7	0.5

마)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6개의 문항을 비교해본 결과 응답자들은 ‘나는 인생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다’ 항목에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항목에 긍정적 응답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60%를 넘어 전라북도의 50~65세 여성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으로 확인됨

- ‘나는 인생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다’ 문항에 긍정적인 응답은 80.5%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2.9%에 불과함.
-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79.8%,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않는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76.1%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응답은 68.6%, ‘나는 나이 들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에 그렇다는 응답은 68.0%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자아존중감 중 가장 정도가 낮은 문항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항목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0.7%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1%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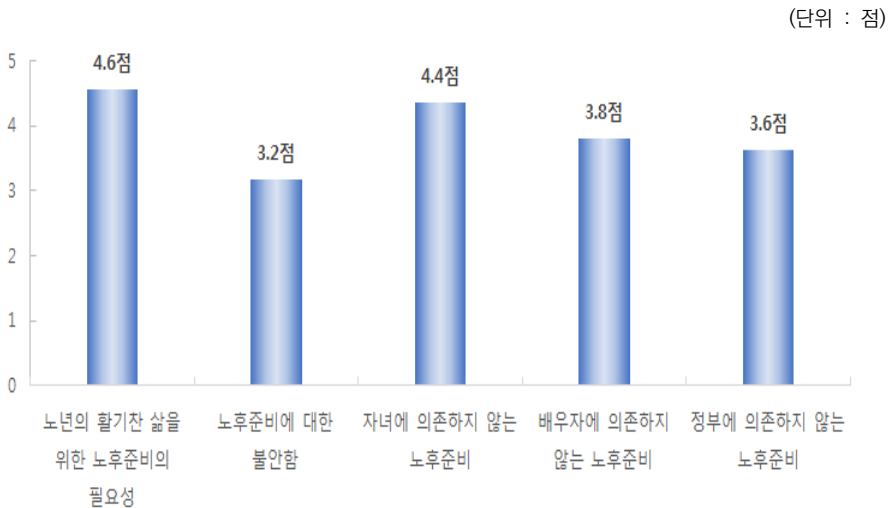


〈그림 4-10〉 자아존중감

3) 노후준비 현황

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다섯 가지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응답자들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인식하는 편이고 노후준비 불안감은 보통 이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준비에 대한 의존성은 정부>배우자>자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 인식 중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해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4.6점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노후준비 때문에 불안하다’는 인식은 3.2점으로 불안하다는 인식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 의존 대상에 대해서는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4.4점,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3.8점으로 나타난 반면,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인식은 3.6점으로 나타나 전라북도 중고령세대의 여성은 노후준비에 대해 가족보다는 정부에 의존하겠다는 인식이 높으며 가족 중에서도 특히 자녀에게 노후준비를 의존할 의사는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주 : 5점 만점 기준임.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림 4-1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 집단이 각각 0.2점으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함은 중졸 이하 여성이 3.4점, 대졸 이상 여성이 3.1점으로 평균 0.3점 차이가 나타나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3.5점, 600만원 이상 2.7점으로 노후준비 불안감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노후준비 때문에 불안하다’는 문항은 지역과 가구소득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노후준비로 인한 불안함은 지역별로는 도농지역에서 평점 3.4점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 3.2점, 도시지역 3.1점 순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노후준비 때문에 불안하다’는 인식이 높음. 가구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인 집단은 평점 3.5점인 반면, 가구소득이 월 600만원 이상인 집단은 평점이 2.7점에 불과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노후준비 인식을 측정하는 각 문항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문항은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지역에 따라서는 도농지역의 응답자의 평점이 4.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촌지역 4.4점, 도시지역 4.3점 순으로 나타남.
-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문항은 지역과 취업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자녀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인식은 도농지역 응답자가 가장 높았던 반면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인식은 도농지역 응답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도농지역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응답은 평점 3.4점으로 지역별 응답자 중 가장 낮았으며 도시지역 평점 3.9점, 농촌지역 평점 4.0점으로 순으로 나타남
 -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준비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9〉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의 집단 간 차이

(단위 : 명, 점)

구 분		N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한 노후준비의 필요성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함	자녀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
전체		384	4.6	3.2	4.4	3.8	3.6
연령	t/F		2.072	0.068	0.418	0.402	1.110
	50~54세	119	4.7	3.2	4.3	3.8	3.5
	55~59세	141	4.5	3.2	4.4	3.9	3.7
	60~65세	122	4.5	3.1	4.3	3.8	3.7
지역	t/F		0.556	3.105*	3.080*	5.178**	1.360
	도시	254	4.6	3.1	4.3	3.9	3.7
	도농	77	4.6	3.4	4.6	3.4	3.5
	농촌	53	4.5	3.2	4.4	4.0	3.5
학력	t/F		1.725	1.580	1.459	2.127	0.618
	중졸 이하	57	4.4	3.4	4.4	3.5	3.6
	고졸	134	4.6	3.2	4.3	3.8	3.6
	대졸 이상	190	4.6	3.1	4.5	3.9	3.7
가구 소득	t/F		2.462	21.179***	1.085	1.023	1.556
	300만원 미만	137	4.5	3.5	4.3	3.7	3.5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0	4.6	3.1	4.3	3.8	3.7
	600만원 이상	93	4.7	2.7	4.5	4.0	3.8
취업 여부	t/F		1.470	0.328	-1.211	2.048*	1.305
	취업	281	4.6	3.1	4.4	3.9	3.6
	미취업	103	4.4	3.3	4.3	3.6	3.6
배우자 유무	t/F		-1.512	0.529	1.108	-0.811	0.835
	무배우	51	4.4	3.2	4.3	-	3.7
	유배우	333	4.6	3.2	4.4	3.8	3.6

주 : ***p<0.01, **p<0.1, *p<0.5

〈표 4-30〉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인식 - 1)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한 노후준비의 필요성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2.1	2.1	5.5	18.5	71.9	-
연령	50~54세	0.0	0.8	5.9	16.8	76.5	6.442 (.598)
	55~59세	2.8	2.8	4.3	19.1	70.9	
	60~65세	3.3	2.5	6.6	18.9	68.9	
지역	도시	2.4	2.0	5.1	17.7	72.8	4.017 (.856)
	도농	1.3	2.6	5.2	15.6	75.3	
	농촌	1.9	1.9	7.5	26.4	62.3	
학력	중졸 이하	3.5	0.0	8.8	28.1	59.6	10.038 (.262)
	고졸	2.2	2.2	6.0	16.4	73.1	
	대졸 이상	1.6	2.1	3.2	17.4	75.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9	2.2	8.8	17.5	68.6	8.684 (.37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0	2.7	4.0	20.7	70.7	
	600만원 이상	1.1	1.1	2.2	16.1	79.6	
취업 여부	취업	1.8	1.8	5.3	16.7	74.4	3.637 (.457)
	미취업	2.9	2.9	5.8	23.3	65.0	
배우자 유무	무배우	2.0	2.0	5.9	35.3	54.9	11.366* (.023)
	유배우	2.1	2.1	5.4	15.9	74.5	

주 : ***p<0.01, **p<0.1, *p<0.5

〈표 4-31〉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인식 - 2)노후준비에 대한 불안함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6.3	19.5	34.1	31.8	8.3	-
연령	50~54세	0.8	21.0	45.4	24.4	8.4	23.251** (.003)
	55~59세	6.4	17.7	35.5	32.6	7.8	
	60~65세	10.7	20.5	22.1	37.7	9.0	
지역	도시	7.9	20.9	34.6	28.3	8.3	14.897 (.061)
	도농	2.6	14.3	28.6	48.1	6.5	
	농촌	3.8	20.8	39.6	24.5	11.3	
학력	중졸 이하	5.3	15.8	26.3	43.9	8.8	20.260** (.009)
	고졸	9.7	17.2	26.1	37.3	9.7	
	대졸 이상	4.2	22.1	42.1	24.2	7.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6	10.9	27.0	44.5	13.9	46.699***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7	22.0	32.7	31.3	7.3	
	600만원 이상	9.7	28.0	47.3	14.0	1.1	
취업 여부	취업	6.8	18.9	37.0	29.9	7.5	5.347 (.253)
	미취업	4.9	21.4	26.2	36.9	10.7	
배우자 유무	무배우	5.9	17.6	31.4	37.3	7.8	0.823 (.935)
	유배우	6.3	19.8	34.5	30.9	8.4	

주 : ***p<0.01, **p<0.1, *p<0.5

〈표 4-32〉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인식 - 3)자녀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x2 (p)
전체		2.4	4.5	5.0	30.7	57.4	-
연령	50~54세	2.6	4.3	5.1	34.2	53.8	10.286 (.246)
	55~59세	2.2	6.5	3.6	23.0	64.7	
	60~65세	2.5	2.5	6.7	36.7	51.7	
지역	도시	3.2	6.0	4.0	32.4	54.4	15.167* (.056)
	도농	1.3	1.3	3.9	23.7	69.7	
	농촌	0.0	1.9	11.5	32.7	53.8	
학력	중졸 이하	1.8	3.5	7.0	33.3	54.4	4.890 (.769)
	고졸	3.8	5.3	5.3	31.1	54.5	
	대졸 이상	1.1	4.3	3.8	30.1	60.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2	3.0	9.0	30.6	55.2	14.037 (.081)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0	7.5	3.4	32.0	55.1	
	600만원 이상	3.2	2.2	1.1	30.1	63.4	
취업 여부	취업	1.4	5.0	5.0	28.8	59.7	6.818 (.146)
	미취업	5.0	3.0	5.0	36.0	51.0	
배우자 유무	무배우	0.0	4.2	10.4	39.6	45.8	7.201 (.126)
	유배우	2.7	4.5	4.2	29.4	59.1	

주 : ***p<0.01, **p<0.1, *p<0.5

〈표 4-33〉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인식 - 4)배우자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3.6	13.3	14.5	35.5	33.1	-
연령	50~54세	1.8	16.8	13.3	38.1	30.1	10.438 (.236)
	55~59세	3.3	8.9	19.5	32.5	35.8	
	60~65세	5.9	14.9	9.9	35.6	33.7	
지역	도시	3.1	10.1	15.0	39.2	32.6	21.165** (.007)
	도농	7.5	26.9	11.9	22.4	31.3	
	농촌	0.0	9.1	15.9	36.4	38.6	
학력	중졸 이하	11.1	15.6	8.9	40.0	24.4	11.296 (.185)
	고졸	2.6	13.8	15.5	34.5	33.6	
	대졸 이상	2.3	12.1	14.4	35.6	35.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8	16.5	11.7	31.1	35.0	8.397 (.396)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6	13.6	13.6	38.6	30.7	
	600만원 이상	1.1	8.8	18.7	36.3	35.2	
취업 여부	취업	2.4	12.2	15.0	34.1	36.2	7.171 (.127)
	미취업	6.5	16.3	13.0	39.1	25.0	

주 : ***p<0.01, **p<0.1, *p<0.5

〈표 4-34〉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인식 - 5)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 ² (p)
전체		5.6	10.9	21.3	39.7	22.4	-
연령	50~54세	6.0	13.8	23.3	38.8	18.1	5.314 (.724)
	55~59세	5.1	11.0	21.3	36.0	26.5	
	60~65세	5.8	8.3	19.8	44.6	21.5	
지역	도시	5.2	10.0	18.1	43.8	22.9	10.261 (.247)
	도농	5.4	16.2	25.7	31.1	21.6	
	농촌	7.7	7.7	30.8	32.7	21.2	
학력	중졸 이하	5.3	8.8	21.1	52.6	12.3	8.576 (.379)
	고졸	7.8	10.9	21.1	36.7	23.4	
	대졸 이상	3.7	11.2	21.4	38.5	25.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3	11.4	22.7	37.1	20.5	7.193 (.516)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4	13.5	19.6	41.2	22.3	
	600만원 이상	4.4	6.6	23.1	40.7	25.3	
취업 여부	취업	5.5	12.0	20.4	37.6	24.5	4.647 (.326)
	미취업	5.9	7.9	23.8	45.5	16.8	
배우자 유무	무배우	5.9	2.0	21.6	52.9	17.6	7.543 (.110)
	유배우	5.6	12.3	21.3	37.7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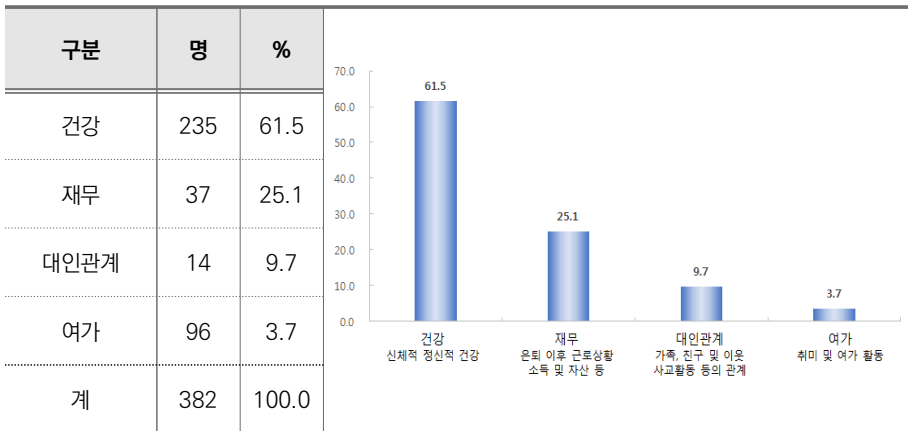
주 : ***p<0.01, **p<0.1, *p<0.5

나) 노후준비 정도

-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영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61.5%가 노후준비 영역 중 ‘건강’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
- ‘재무’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5.1%였으며 ‘대인관계’ 영역은 9.7%, ‘여가’ 영역은 3.7%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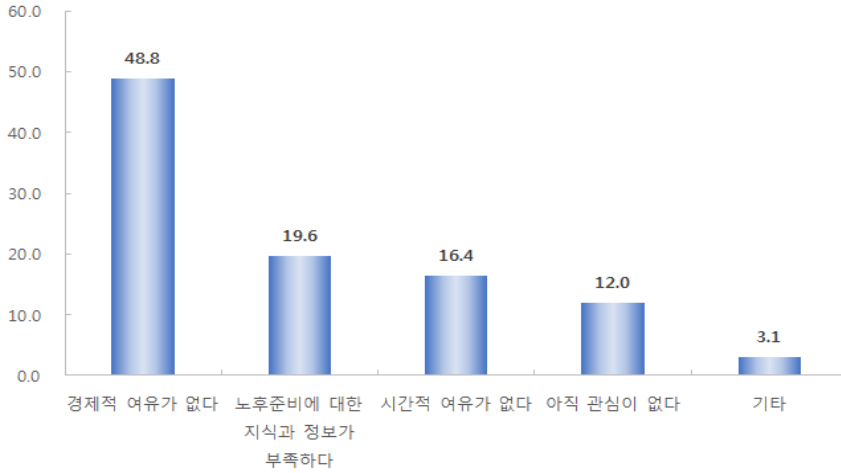
〈표 4-35〉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영역

(단위 : 명, %)



-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에 전체 응답자의 반절에 가까운 48.8%가 응답하여 경제적인 문제가 주된 노후준비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어려움에 이어서 ‘노후준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19.6%,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16.4%, ‘아직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12.0%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2〉 노후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점

- 응답자의 인구특성별로 노후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점을 비교해본 결과,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취업여부별, 배우자유무까지 모든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각 연령별 집단 모두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60~65세 연령대 집단의 응답률이 58.2%로 다른 집단의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남. 55~59세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서’ 노후준비가 어렵다는 응답이 25.0%로(50~54세 16.8%, 60~65세 15.6%) 다른 연령집단의 응답률보다 높았으며 50~54세는 ‘아직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20.2%로(55~59세 9.3%, 60~65세 7.4%)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도농지역의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노후준비가 어렵다는 응답이 70.1%로 도시(44.7%)와 농촌(37.7%)지역의 응답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도시지역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노후준비가 어렵다는 응답이 20.2%(도농 10.4%, 농촌 7.5%), 농촌지역은 ‘노후준비에 대한 지식/정보가 부족해서’ 노후준비가 어렵다는 응답이 35.8%(도시 19.8%, 도농 7.8%)로 다른 집단의 응답률보다 높음

-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취업자보다 미취업자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노후준비가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미취업자보다 취업자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노후준비가 어렵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학력과 가구소득,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비슷한 응답경향이 나타남
-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자와 유배우자 모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노후준비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무배우자의 경우 응답률이 58.8%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나 유배우자의 응답률(47.3%)과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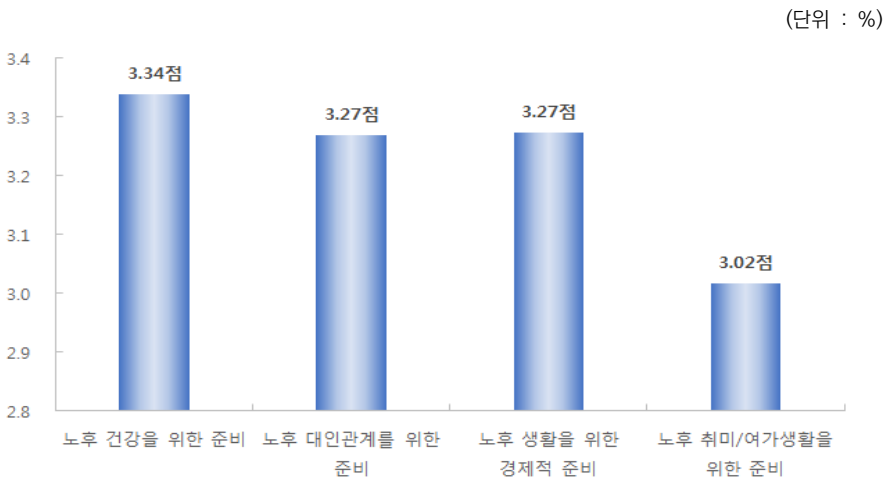
〈표 4-36〉 인구특성별 노후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점

(단위 : %)

구 분		경제적 여유가 없음	노후준비에 대한 지식/ 정보 부족	시간적 여유가 없음	관심이 없음	기타	x2 (p)
전체		48.8	19.6	16.4	12.0	3.1	-
연령	50~54세	45.4	16.8	16.0	20.2	1.7	25.915** (.001)
	55~59세	43.6	25.0	20.7	9.3	1.4	
	60~65세	58.2	15.6	12.3	7.4	6.6	
지역	도시	44.7	19.8	20.2	11.9	3.6	30.530*** (.000)
	도농	70.1	7.8	10.4	9.1	2.6	
	농촌	37.7	35.8	7.5	17.0	1.9	
학력	중졸 이하	73.7	7.0	10.5	7.0	1.8	33.174*** (.000)
	고졸	49.3	24.6	12.7	7.5	6.0	
	대졸 이상	41.3	19.0	21.2	16.9	1.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68.6	15.3	7.3	5.8	2.9	43.887***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3.6	21.5	18.1	14.1	2.7	
	600만원 이상	28.0	22.6	26.9	18.3	4.3	
취업 여부	취업	46.8	18.6	21.1	11.1	2.5	17.051** (002)
	미취업	54.4	22.3	3.9	14.6	4.9	
배우자 유무	무배우	58.8	13.7	9.8	7.8	9.8	13.021* (.011)
	유배우	47.3	20.5	17.5	12.7	2.1	

주 : ***p<0.01, **p<0.1, *p<0.5

- 노후준비의 영역을 건강, 대인관계, 취미/여가생활, 경제적 준비로 나누어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한 결과 ‘노후 건강을 위한 준비’가 5점 만점에 평점 3.34점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준비’와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점 3.27점으로 나타났으며 ‘노후 취미/여가생활을 위한 준비’는 평점 3.02점으로 응답자들은 네 가지 노후준비 영역 중 취미/여가생활 영역의 준비 정도가 가장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 : 5점 만점 기준임.(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1점, 매우 준비를 잘하고 있다 5점)

〈그림 4-13〉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

- 노후준비의 영역별 준비 정도를 집단별로 비교해본 결과 ‘노후 건강을 위한 준비’와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준비’는 연령과 배우자유무에 따라,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는 가구소득에서, ‘노후 취미/여가생활을 위한 준비’는 학력, 가구소득, 취업여부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됨
- ‘노후 건강을 위한 준비’는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배우자 유무 여부로는 유배우자보다 무배우자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0~54세는 5점 만점에 평점 3.14점인 반면 60~65세 집단은 평점

3.43점이며, 무배우자는 평점 3.53점으로 유배우자(3.23점)보다 0.3점 높음.

- '노후 대인관계를 위한 준비'는 연령별로는 55~59세 집단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유무로는 무배우자가 3.63점으로 유배우자(3.29점)보다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경제적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600만원 이상의 소득 집단은 평점 3.63점인 반면, 300만원 이하 소득 집단은 평점 2.95점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노후 취미/여가생활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는 학력별로는 고졸 집단이 3.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졸 이하 집단이 2.7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취미/여가생활에 대한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7〉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의 집단 간 차이

(단위 : 명, 점)

구 분		N	건강	대인관계	경제적 준비	여가생활
전체		384	3.34	3.27	3.27	3.02
연령	t/F		4.131*	3.357*	0.652	0.180
	50~54세	119	3.14	3.10	3.19	3.03
	55~59세	141	3.41	3.38	3.33	3.04
	60~65세	121	3.43	3.31	3.29	2.98
지역	t/F		1.152	1.104	2.746	1.342
	도시	253	3.36	3.31	3.35	3.06
	도농	77	3.39	3.14	3.13	2.86
	농촌	53	3.17	3.25	3.09	3.02
학력	t/F		0.028	0.088	2.157	10.256***
	중졸 이하	57	3.37	3.26	3.04	2.75
	고졸	134	3.35	3.26	3.29	3.82
	대졸 이상	190	3.32	3.28	3.33	3.24
가구 소득	t/F		1.911	0.968	16.380***	7.932***
	300만원 미만	137	3.35	3.15	2.95	2.76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0	3.27	3.30	3.35	3.13
	600만원 이상	93	3.43	3.38	3.63	3.20
취업 여부	t/F		-1.466	-0.596	1.228	-1.972*
	취업	281	3.30	3.25	3.31	2.96
	미취업	103	3.44	3.31	3.17	3.17
배우자 유무	t/F		2.269**	2.739**	1.341	.032
	무배우	51	3.53	3.63	3.45	3.02
	유배우	333	3.23	3.29	3.25	3.02

주 : ***p<0.01, **p<0.1, *p<0.5

다) 노후준비 역량

- 노후준비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개별문항들을 노후준비 역량 조합변인으로 만들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0.854로 조합변인인 ‘노후준비 역량’이 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됨

○ 노후준비 역량은 5점 만점에 3.2점이며 학력과 가구소득별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중졸 이하 학력자인 경우 노후준비 역량이 2.9점이나 대졸 이상 학력자인 경우 노후준비 역량이 3.3점으로 나타나 집단 간 노후준비 역량에 차이가 나타남
- 가구소득이 월평균 300만원 미만인 집단의 경우 노후준비 역량이 2.9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나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집단과 6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3.3점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노후준비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8〉 노후준비 역량의 집단 간 차이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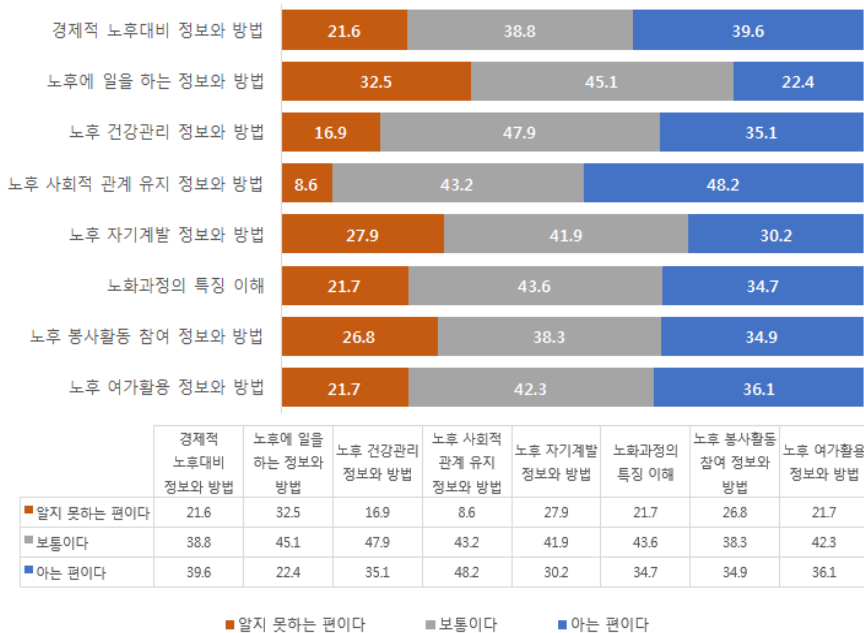
구 분		N	M	SD	t/F	p
전체		380	3.2	0.61	-	-
연령	50~54세	119	3.2	0.61	0.565	.569
	55~59세	140	3.2	0.63		
	60~65세	119	3.1	0.59		
지역	도시	252	3.2	0.59	0.621	.538
	도농	77	3.1	0.66		
	농촌	51	3.2	0.63		
학력	중졸 이하	55	2.9	0.56	13.287	.000***
	고졸	132	3.0	0.59		
	대졸 이상	190	3.3	0.6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4	2.9	0.58	14.440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0	3.3	0.63		
	600만원 이상	92	3.3	0.53		
취업 여부	취업	278	3.2	0.61	1.560	.121
	미취업	102	3.1	0.59		
배우자 유무	무배우	49	3.1	0.55	-0.442	.660
	유배우	331	3.2	0.62		

주 : ***p<0.01, **p<0.1, *p<0.5

○ 노후준비 역량을 구성하는 8개의 문항을 비교해본 결과 응답자들은 ‘노후 사회적 관계 유지 정보와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에 일을 하는 정보와 방법’에 대하여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 사회적 관계 유지 정보와 방법’에 대하여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에 절반에 가까운 48.2%였으며 모르는 편이라는 응답은 8.6%에 불과함.
- ‘경제적 노후대비 정보와 방법’은 아는 편이라는 응답자가 39.6%, ‘노후 여가활동 정보와 방법’은 아는 편이라는 응답자가 36.1%로 나타났으며 ‘노후 건강관리 정보와 방법’ 35.1%, ‘노후 봉사활동 참여 정보와 방법’ 34.9%, ‘노후 봉사활동 참여 정보와 방법’ 34.9%, ‘노화과정의 특징 이해’ 34.7%, ‘노후 자기계발 정보와 방법’ 30.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이 가장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노후준비 역량은 ‘노후에 일을 하는 정보와 방법’으로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22.4%에 불과하였으며 알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2.5%로 아는 편이라는 응답보다 10% 이상 응답률이 높음

(단위 : %)



〈그림 4-14〉 노후준비 역량

○ 노후준비 역량 중 ‘경제적 노후대비 정보와 방법’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39.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38.8%,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1.6%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미취업상태일수록,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가 ‘경제적 노후대비 정보와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미만인 집단과 300만원 이상인 집단 간 응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300만원 미만 집단은 ‘경제적 노후대비 정보와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8.4%에 불과한 반면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집단은 46.0%, 600만원 이상인 집단은 46.2%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경제적 노후대비 정보와 방법’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9〉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1)경제적 노후대비 정보와 방법

(단위 : %)

구 분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χ^2 (p)
전체		3.4	18.2	38.8	35.2	4.4	-
연령	50~54세	3.4	19.3	33.6	38.7	5.0	6.496 (.592)
	55~59세	2.1	19.1	38.3	37.6	2.8	
	60~65세	4.9	16.4	43.4	29.5	5.7	
지역	도시	3.1	16.9	39.8	34.3	5.9	9.728 (.285)
	도농	2.6	20.8	31.2	42.9	2.6	
	농촌	5.7	20.8	45.3	28.3	0.0	
학력	중졸 이하	5.3	22.8	38.6	29.8	3.5	10.011 (.264)
	고졸	3.0	23.1	38.8	29.1	6.0	
	대졸 이상	3.2	13.7	38.4	41.1	3.7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4.4	27.0	40.1	25.5	2.9	19.149* (.014)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3	15.3	35.3	40.0	6.0	
	600만원 이상	2.2	9.7	41.9	41.9	4.3	
취업 여부	취업	2.5	16.4	40.6	36.7	3.9	6.595 (.159)
	미취업	5.8	23.3	34.0	31.1	5.8	
배우자 유무	무배우	0.0	15.7	47.1	33.3	3.9	3.322 (.505)
	유배우	3.9	18.6	37.5	35.4	4.5	

주 : ***p<0.01, **p<0.1, *p<0.5

- '노후에 일을 하는 정보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2.4%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32.5%로 다른 문항에 비해 높게 나타나 노후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응답자들의 역량이 낮은 편임
- 연령별로는 55~59세가, 지역별로는 도농지역이,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가 '노후에 일을 하는 정보와 방법'에 대해 아는 편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유무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표 4-40〉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2)노후에 일을 하는 정보와 방법

(단위 : %)

구 분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χ ² (p)
전체		5.2	27.3	45.1	21.1	1.3	-
연령	50~54세	4.7	27.6	45.7	20.5	1.6	4.472 (.812)
	55~59세	3.9	27.3	39	28.6	1.3	
	60~65세	9.4	26.4	50.9	13.2	0	
지역	도시	4.2	26.9	47.1	20.2	1.7	7.756 (.458)
	도농	4.3	28.4	43.3	22.0	2.1	
	농촌	7.4	26.2	45.9	20.5	0.0	
학력	중졸 이하	12.3	35.1	31.6	19.3	1.8	13.338 (.101)
	고졸	3.0	26.9	50.7	18.7	0.7	
	대졸 이상	4.7	24.7	45.3	23.7	1.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9.5	27.0	43.1	19.7	0.7	12.345 (.135)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0	30.0	42.0	24.0	2.0	
	600만원 이상	4.3	23.7	52.7	18.3	1.1	
취업 여부	취업	3.9	25.6	45.9	22.8	1.8	7.909 (.095)
	미취업	8.7	32.0	42.7	16.5	0.0	
배우자 유무	무배우	5.9	27.5	43.1	23.5	0.0	1.031 (.905)
	유배우	5.1	27.3	45.3	20.7	1.5	

주 : ***p<0.01, **p<0.1, *p<0.5

○ 노후준비 역량 중 ‘노후 건강관리 정보와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1%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47.9%,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16.9%로 나타남

- 노후 건강관리 정보와 방법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비취업자 보다는 취업자가, 유배우자보다는 무배우자가 더 잘 알고 있는 편이나 집단 간의 응답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특성별 차이는 학력과 가구소득별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노후 건강관리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집단의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39.5%인데 반해 중졸 이하 집단의 응답률은 29.8%였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원 이상 소득 집단의 응답률이 37.7%로 300만원 미만 집단보다 10% 가까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표 4-41〉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3)노후 건강관리 정보와 방법

(단위 : %)

구 분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χ^2 (p)
전체		1.8	15.1	47.9	32.0	3.1	-
연령	50~54세	1.7	18.5	47.1	29.4	3.4	3.826 (.872)
	55~59세	1.4	13.5	51.1	30.5	3.5	
	60~65세	2.5	13.9	44.3	36.9	2.5	
지역	도시	1.2	15.7	49.2	31.5	2.4	7.691 (.464)
	도농	1.3	15.6	46.8	32.5	3.9	
	농촌	5.7	11.3	43.4	34.0	5.7	
학력	중졸 이하	7.0	14.0	49.1	29.8	0.0	16.395* (.037)
	고졸	1.5	15.7	52.2	26.1	4.5	
	대졸 이상	0.5	15.3	44.7	36.3	3.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4.4	19.7	47.4	26.3	2.2	16.768* (.033)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0.0	12.7	48.0	34.0	5.3	
	600만원 이상	1.1	12.9	48.4	36.6	1.1	
취업 여부	취업	2.1	13.5	45.9	34.9	3.6	6.453 (.168)
	미취업	1.0	19.4	53.4	24.3	1.9	
배우자 유무	무배우	2.0	7.8	52.9	35.3	2.0	2.819 (.588)
	유배우	4.8	16.2	47.1	35.5	3.3	

주 : ***p<0.01, **p<0.1, *p<0.5

○ ‘노후 사회적 관계 유지 정보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8.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은 43.2%,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8.6%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노후 사회적 관계 유지 정보와 방법’은 연령별로는 60~65세가,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이,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취업자보다 미취업자가, 배우자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가 사회적 관계 유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 별로는 월평균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집단에서 사회적 관계 유지 정보와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미만의 소득 집단 응답자는 37.1%로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4-42〉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4)노후 사회적 관계 유지 정보와 방법

(단위 : %)

구 분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χ^2 (p)
전체		1.3	7.3	43.2	42.7	5.5	-
연령	50~54세	0.0	5.0	45.4	43.7	5.9	9.724 (.285)
	55~59세	2.1	8.6	47.1	39.3	2.9	
	60~65세	1.7	8.3	36.4	45.5	8.3	
지역	도시	0.8	5.1	44.3	43.5	6.3	13.934 (.083)
	도농	3.9	14.3	40.3	39.0	2.6	
	농촌	0.0	7.7	42.3	44.2	5.8	
학력	중졸 이하	3.6	12.5	35.7	42.9	5.4	10.175 (.253)
	고졸	1.5	7.5	45.1	42.1	3.8	
	대졸 이상	0.0	5.8	44.7	43.2	6.3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2	14.1	46.7	34.1	3.0	25.579** (.001)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3	4.7	36.7	51.3	6.0	
	600만원 이상	0.0	2.2	47.3	41.9	8.6	
취업 여부	취업	1.1	6.4	45.4	41.4	5.7	3.219 (.522)
	미취업	2.0	9.8	37.3	46.1	4.9	
배우자 유무	무배우	2.0	10.0	42.0	44.0	2.0	2.092 (.719)
	유배우	1.2	6.9	43.4	42.5	6.0	

주 : ***p<0.01, **p<0.1, *p<0.5

○ ‘노후 자기계발 정보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0.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은 41.9%,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7.9%로 나타나 노후 자기계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다른 역량보다 부정적인 편임

-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별로는 농촌이,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배우자가 없는 집단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자기계발 정보와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자기계발 정보와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졸 이하 집단에서 노후 자기계발 정보와 방법을 알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의 50.9%로 과반이 넘는 반면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15.8%에 불과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가구소득 역시 300만원 미만 집단 중 노후 자기계발 정보와 방법을 알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40.2%인 반면 600만원 이상 집단은 19.4%로 나타나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표 4-43〉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5)노후 자기계발 정보와 방법

(단위 : %)

구 분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x2 (p)
전체		2.9	25.0	41.9	25.5	4.7	-
연령	50~54세	2.5	20.2	38.7	33.6	5.0	9.364 (.313)
	55~59세	2.8	24.8	43.3	25.5	3.5	
	60~65세	2.5	30.3	43.4	18.0	5.7	
지역	도시	2.8	24.0	42.5	26.0	4.7	6.428 (.599)
	도농	5.2	31.2	37.7	20.8	5.2	
	농촌	0.0	20.8	45.3	30.2	3.8	
학력	중졸 이하	8.8	42.1	42.1	5.3	1.8	68.325*** (.000)
	고졸	4.5	31.3	48.5	13.4	2.2	
	대졸 이상	0.0	15.8	37.4	40.0	6.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4.4	35.8	43.1	13.9	2.9	25.363** (.001)
	300만원 이상	2.7	20.0	42.7	29.3	5.3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1.1	18.3	38.7	35.5	6.5	
취업	취업	2.8	23.1	41.3	28.5	4.3	5.527
여부	미취업	2.9	30.1	43.7	17.5	5.8	(.237)
배우자 유무	무배우	3.9	21.6	54.9	15.7	3.9	5.170
	유배우	2.7	25.5	39.9	27.0	4.8	(.270)

주 : ***p<0.01, **p<0.1, *p<0.5

- 응답자의 34.7%는 ‘노화과정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43.6%,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1.7%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5~59세 집단이, 지역별로는 도시거주자가,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배우자 유무로는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가 노화과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특성은 학력과 가구소득으로 나타남. 학력이 높을수록 노화과정의 특징을 이해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노화과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4〉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6)노화과정의 특징 이해

(단위 : %)

구 분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x2 (p)
전체		2.1	19.6	43.6	29.2	5.5	-
연령	50~54세	1.7	18.5	47.1	25.2	7.6	5.542 (.698)
	55~59세	1.4	20.6	39.7	32.6	5.7	
	60~65세	3.3	19.8	45.5	28.1	3.3	
지역	도시	1.6	18.9	42.9	32.3	4.3	9.851 (.276)
	도농	5.2	22.1	42.9	22.1	7.8	
	농촌	0.0	19.2	48.1	25.0	7.7	
학력	중졸 이하	7.1	30.4	46.4	14.3	1.8	26.248** (.001)
	고졸	3.0	21.6	41.8	29.9	3.7	
	대졸 이상	0.0	15.3	43.7	33.2	7.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4.4	26.5	46.3	19.9	2.9	25.498** (.001)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3	20.0	36.7	35.3	6.7	
	600만원 이상	0.0	9.7	49.5	33.3	7.5	
취업 여부	취업	1.8	20.0	41.8	30.4	6.1	2.439 (.656)
	미취업	2.9	18.4	48.5	26.2	3.9	
배우자 유무	무배우	2.0	26.0	42.0	28.0	2.0	2.548 (.636)
	유배우	2.1	18.6	43.8	29.4	6.0	

주 : ***p<0.01, **p<0.1, *p<0.5

- ‘노후 봉사활동 참여 정보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4.9%가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38.3%, 알지 못하는 편이다 26.8%로 나타남
- 60~65세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봉사활동 참여 정보와 방법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의 응답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봉사활동 참여 정보와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구특성별 차이는 학력, 가구소득, 배우자유무로 나타남.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노후 봉사활동 참여 정보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이 있는 응답자들이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응답자들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 이상 높게 나타남. 배우자유무로는 무배우자의 잘 알지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률이 33.4%로 유배우의 응답률(25.8%)보다 높게 나타남

〈표 4-45〉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7)노후 봉사활동 참여 정보와 방법

(단위 : %)

구 분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x2 (p)
전체		4.7	22.1	38.3	27.9	7.0	-
연령	50~54세	0.8	23.5	39.5	28.6	7.6	9.095 (.334)
	55~59세	4.3	20.6	38.3	28.4	8.5	
	60~65세	8.2	23.0	37.7	26.2	4.9	
지역	도시	3.9	23.2	39.0	27.2	6.7	2.818 (.945)
	도농	6.5	22.1	37.7	26.0	7.8	
	농촌	5.7	17.0	35.8	34.0	7.5	
학력	중졸 이하	10.5	28.1	31.6	24.6	5.3	27.179** (.001)
	고졸	8.2	27.6	37.3	21.6	5.2	
	대졸 이상	0.5	16.3	41.1	33.2	8.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3	30.7	38.0	20.4	3.6	20.994** (.007)
	300만원 이상	3.3	17.3	34.7	34.0	10.7	
	600만원 미만	3.2	17.2	43.0	30.1	6.5	
	600만원 이상	3.2	17.2	43.0	30.1	6.5	
취업 여부	취업	5.0	22.1	36.7	29.2	7.1	1.584 (.812)
	미취업	3.9	22.3	42.7	24.3	6.8	
배우자 유무	무배우	11.8	21.6	33.3	33.3	0.0	11.435* (.022)
	유배우	3.6	22.2	39.0	27.0	8.1	

주 : ***p<0.01, **p<0.1, *p<0.5

○ 응답자의 36.1%는 ‘노후 여가활동 정보와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1.7%는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연령별로는 60~65세 집단이 여가활동 정보와 방법에 대하여 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이,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여가활동 정보와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있는 집단이 300만원 미만의 소득 집단보다 여가활동 정보와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6〉 인구특성별 노후준비 역량 - 8)노후 여가활동 정보와 방법

(단위 : %)

구 분		전혀 알지 못한다	별로 알지 못한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χ^2 (p)
전체		1.6	20.1	42.3	29.8	6.3	-
연령	50~54세	0.0	21.8	42.0	27.7	8.4	7.021 (.534)
	55~59세	2.8	17.0	44.7	29.1	6.4	
	60~65세	1.7	21.5	39.7	33.1	4.1	
지역	도시	0.8	19.4	43.1	30.4	6.3	8.604 (.377)
	도농	2.6	27.3	41.6	23.4	5.2	
	농촌	3.8	13.2	39.6	35.8	7.5	
학력	중졸 이하	5.3	21.1	43.9	24.6	5.3	20.917** (.007)
	고졸	1.5	28.6	42.1	23.3	4.5	
	대졸 이상	0.5	14.2	41.1	36.3	7.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9	25.5	47.4	21.9	2.2	18.800* (.016)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0.7	18.7	36.7	34.7	9.3	
	600만원 이상	1.1	14.1	44.6	32.6	7.6	
취업 여부	취업	1.8	20.0	40.7	31.4	6.1	1.973 (.741)
	미취업	1.0	20.4	46.6	25.2	6.8	
배우자 유무	무배우	2.0	15.7	47.1	33.3	2.0	2.937 (.568)
	유배우	1.5	20.8	41.6	29.2	6.9	

주 : ***p<0.01, **p<0.1, *p<0.5

라) 경제적 노후준비

- 개별문항들을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조합변인으로 만들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0.690으로 조합변인인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됨
-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의 경우 5점 만점에 3.2점이며 지역과 학력, 가구 소득별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도농과 농촌지역보다 도시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농지역과 농촌지역은 각각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5점 만점에 3.0점인 반면 도시지역은 3.2점으로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에 차이가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보다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졸 이하 집단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는 2.9점인데 반해, 고졸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3.2점으로 나타나 중졸 이하의 학력 집단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이 월평균 300만원 미만인 집단의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2.9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나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집단은 3.2점, 6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3.5점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7〉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의 집단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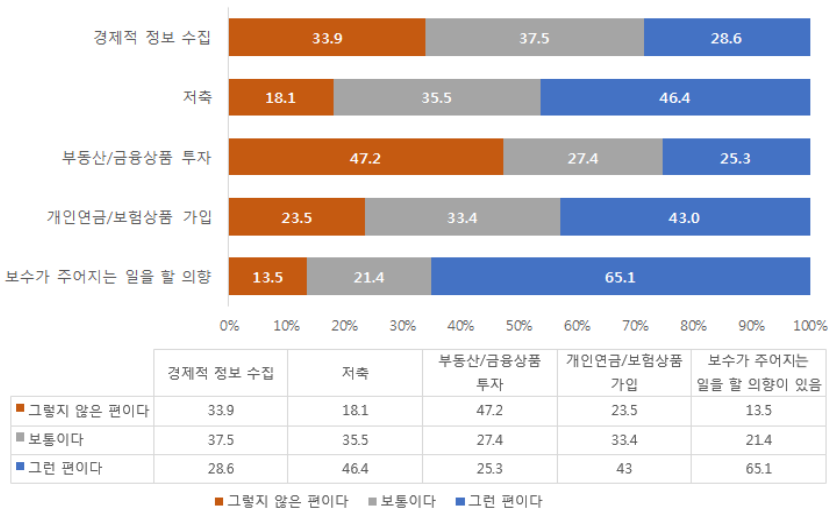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 분		N	M	SD	t/F	p
전체		381	3.2	0.69	-	-
연령	50~54세	118	3.1	0.75	0.354	.702
	55~59세	139	3.2	0.70		
	60~65세	122	3.1	0.60		
지역	도시	251	3.2	0.71	4.760	.009**
	도농	77	3.0	0.66		
	농촌	53	3.0	0.56		
학력	중졸 이하	57	2.9	0.67	3.261	.039*
	고졸	133	3.2	0.70		
	대졸 이상	188	3.2	0.67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6	2.9	0.62	26.027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0	3.2	0.65		
	600만원 이상	91	3.5	0.68		
취업 여부	취업	278	3.2	0.70	1.735	.084
	미취업	103	3.1	0.66		
배우자 유무	무배우	51	3.1	0.65	-0.356	.723
	유배우	330	3.2	0.69		

주 : ***p<0.01, **p<0.1, *p<0.5

-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비교해본 결과 응답자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할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금융상품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할 의향’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기는 65.1%였으며 일을 할 의향이 없는 편이라는 응답은 13.5%에 불과함.
 - ‘노후를 대비한 저축’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46.4%,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은 43.0%, ‘노후생활의 경제적 여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응답은 28.6%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중 가장 준비 정도가 낮은 것은 ‘노후를 위한 부동산/금융상품에 투자’였으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25.3%에 불과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2%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5〉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마) 사회적 노후준비

- 개별문항들을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 조합변인으로 만들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0.756으로 조합변인인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가 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됨

-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에 3.4점이며 지역과 학력, 가구 소득별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지역별로는 도농보다 농촌과 도시의 사회적 노후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농지역은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가 5점 만점에 3.1점인 반면 농촌과 도시지역은 3.4점으로 도농지역보다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는 3.1점이며 고졸은 3.2점, 대졸 이상은 3.5점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집단은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가 3.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은 3.4점, 600만원 이상은 3.5점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8〉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의 집단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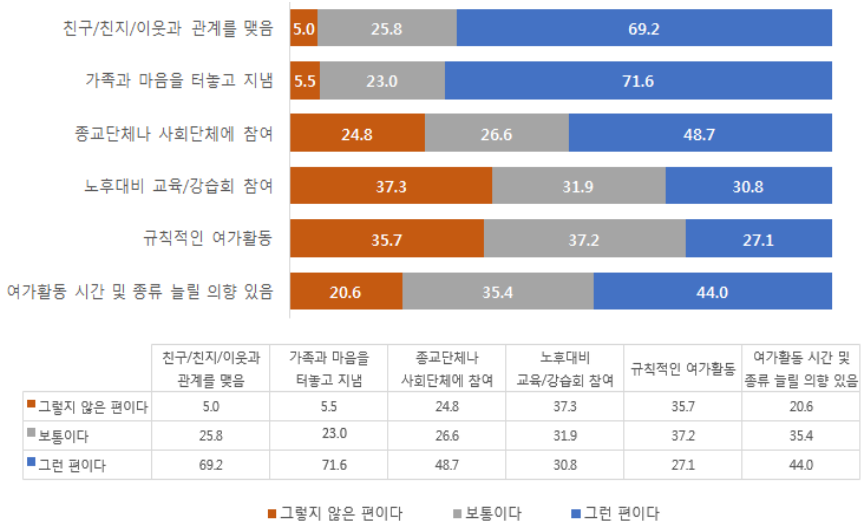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 분		N	M	SD	t/F	p
전체		383	3.4	0.66	-	-
연령	50~54세	119	3.4	0.71	0.432	.649
	55~59세	140	3.3	0.69		
	60~65세	122	3.4	0.58		
지역	도시	254	3.4	0.65	5.300	.005**
	도농	76	3.1	0.68		
	농촌	53	3.4	0.67		
학력	중졸 이하	57	3.1	0.62	13.108	.000***
	고졸	133	3.2	0.66		
	대졸 이상	190	3.5	0.6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6	3.2	0.62	8.748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0	3.4	0.67		
	600만원 이상	93	3.5	0.66		
취업 여부	취업	280	3.3	.69	-0.898	.370
	미취업	103	3.4	.60		
배우자 유무	무배우	51	3.3	0.69	-0.212	.833
	유배우	332	3.4	0.66		

주 : ***p<0.01, **p<0.1, *p<0.5

-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6개의 문항을 비교해본 결과 응답자들은 ‘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편이다’ 문항에 긍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다’ 문항에 긍정적 응답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편이다’ 문항에 긍정적인 응답은 71.6%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5.5%에 불과함.
 - ‘친구/친지/이웃과 자주 관계를 맺는 편’이라는 응답은 69.2%, ‘노후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48.7%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여가활동시간/종류를 늘릴 의향이 있다’는 응답 44.0%, ‘노후대비 교육이나 강습회 등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0.8%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사회적 노후준비 중 가장 정도가 낮은 것은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다’임.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7.1%에 불과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5.7%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6〉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

바) 신체적 노후준비

- 개별문항들을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 조합변인으로 만들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0.759로 조합변인인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됨
-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의 경우 평균값은 5점 만점에 3.3점이며 연령과 가구소득별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50~54세의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는 5점 만점에 3.2점, 55~59세는 3.3점, 60~65세의 경우 3.5점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게 나타남. 월소득 300만원 미만은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3.2점인데 반해 600만원 이상의 월 평균 소득이 있는 응답자는 3.4점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49〉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의 집단 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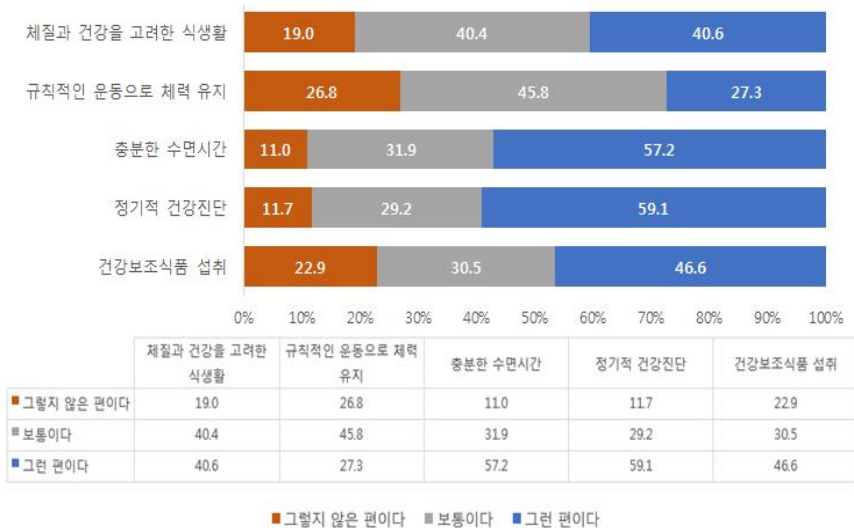
(단위 : 명, 점)

구 분		N	M	SD	t/F	p
전체		383	3.3	0.66	-	-
연령	50~54세	118	3.2	0.68	3.592	.028*
	55~59세	141	3.3	0.67		
	60~65세	122	3.5	0.61		
지역	도시	253	3.4	0.68	1.912	.149
	도농	77	3.2	0.63		
	농촌	53	3.3	0.60		
학력	중졸 이하	57	3.3	0.62	1.108	.331
	고졸	134	3.3	0.68		
	대졸 이상	189	3.4	0.6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7	3.2	0.65	3.082	.047*
	300만원 이상	150	3.3	0.64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92	3.4	0.68		
취업	취업	280	3.3	0.66	-0.894	.372
여부	미취업	103	3.4	0.66		
배우자 유무	무배우	51	3.4	0.61	0.465	.644
	유배우	332	3.3	0.67		

주 : ***p<0.01, **p<0.1, *p<0.5

-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문항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편이다’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긍정적 응답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편이다’ 문항에 긍정적인 응답은 59.1%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11.7%로 나타남
 - ‘충분한 수면시간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57.2%, ‘보약이나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편’이라는 응답은 46.6%로 나타났으며 ‘체질과 건강을 고려하여 식생활을 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40.6%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 중 가장 정도가 낮은 것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임.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7.3%에 불과하였으며 보통이다 45.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8%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7〉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

4) 노후준비 여건

가) 가구소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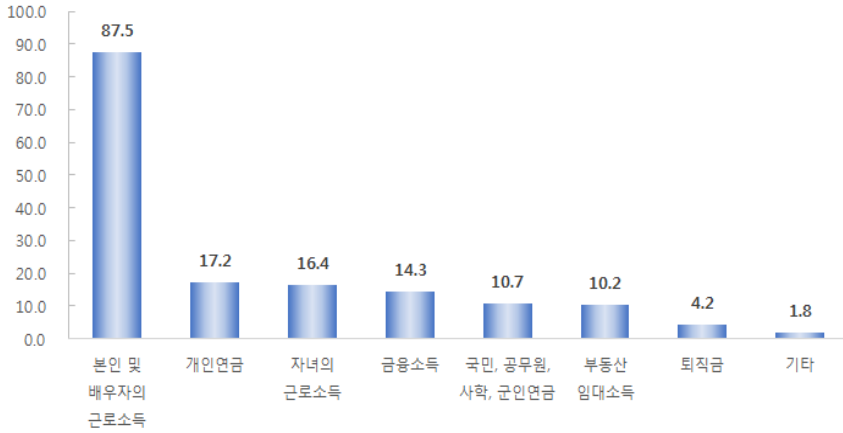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가구소득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구소득원에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포함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87.5%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대다수가 부부 중 한 사람은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17.2%였으며 가구 소득원에 자녀의 근로소득이 포함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6.4%로 나타났고, 금융소득이 있는 가구는 14.3%, 공적연금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가구는 10.7%,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가구는 10.2%로 나타남. 퇴직금이 가구소득원에 포함된다는 응답자는 4.2%에 불과하여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표 4-50〉 가구소득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비율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336	87.5
개인연금 (은행, 보험)	66	17.2
자녀의 근로소득 (동거 중인 미혼자녀)	63	16.4
금융소득 (이자, 배당금 등)	55	14.3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41	10.7
부동산 임대소득	39	10.2
퇴직금	16	4.2
기타	7	1.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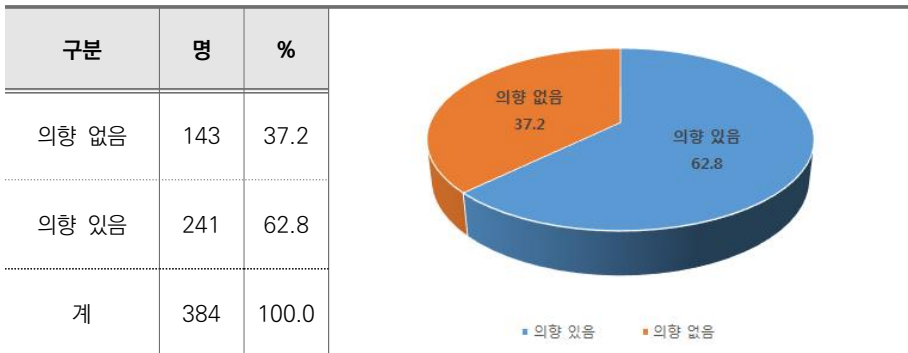
〈그림 4-18〉 가구소득원

나) 근로활동 의향

- 65세 이후 근로활동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8%는 근로활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7.2%는 근로활동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여 전라북도의 50~65세 여성들은 노후에도 근로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표 4-51〉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

(단위 : 명, %)



○ 응답자의 인구특성별로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을 할 의향을 비교해본 결과, 가구소득과 취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을 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농촌지역 응답자의 근로의향이 가장 낮게, 도농지역 응답자의 근로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는 집단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대졸 이상 응답자의 근로 의향이 다른 집단의 근로 의향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었으며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자보다 유배우자가 65세 이후 근로활동을 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가구소득과 취업여부에서 나타남.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을 할 의향이 높았으며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65세 이후에도 근로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4-52〉 인구특성별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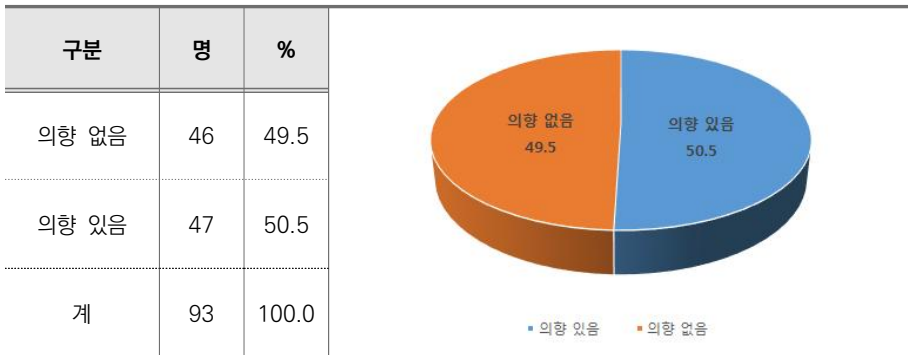
구 분		의향 있음	의향 없음	x ² (p)
전체		62.8	37.2	-
연령	50~54세	59.7	40.3	2.129 (.345)
	55~59세	61.0	39.0	
	60~65세	68.0	32.0	
지역	도시	62.6	37.4	2.684 (.261)
	도농	68.8	31.2	
	농촌	54.7	45.3	
학력	중졸 이하	63.2	36.8	0.129 (.938)
	고졸	63.4	36.6	
	대졸 이상	61.6	38.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72.3	27.7	11.350** (.003)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1.3	38.7	
	600만원 이상	50.5	49.5	
취업 여부	취업	66.2	33.8	5.279* (.024)
	미취업	53.4	46.6	
배우자 유무	무배우	60.8	39.2	0.098 (.758)
	유배우	63.1	36.9	

주 : ***p<0.01, **p<0.1, *p<0.5

- 응답자 중 과거에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력단절여성의 65세 이후 근로활동을 할 의향을 분석한 결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50.5%,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49.5%로 나타나 경력단절여성들의 노후 근로 의향은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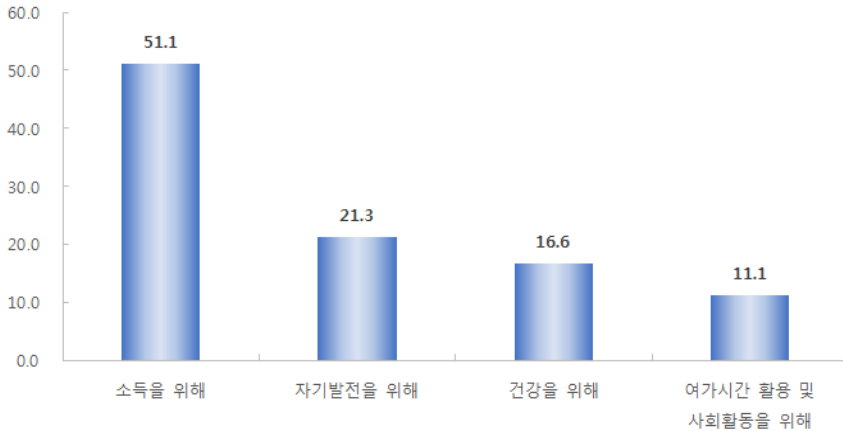
〈표 4-53〉 경력단절여성의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

(단위 : 명, %)



-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소득을 위해’ 노후에 근로를 하겠다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후에 근로를 할 의향이 있는 이유를 ‘자기발전을 위해’로 응답한 사람은 21.3%, ‘건강을 위해’라고 응답한 사람은 16.6% 이었으며 ‘여가시간 활용 및 사회활동을 위해’ 노후에 근로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1%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19〉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이 있는 이유

- 응답자의 인구특성별로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 이유를 비교해본 결과, 학력과 가구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별로는 ‘소득을 위해’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0~65세 응답자의 63.0%가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응답률이 월등히 높음. 도농별로는 농촌이,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자가, 배우자 유무로는 유배우자보다 무배우자가 ‘소득을 위해’ 노후에 근로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학력과 가구소득으로 나타남.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응답자는 69.4%가 ‘소득을 위해’ 노후에 근로를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대졸 이상 응답자들은 36.8%만이 노후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소득’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대졸 이상 응답자들은 ‘건강’과 ‘여가시간활용 및 사회활동’을 위해 노후에 근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소득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6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는 응답자들은 40.0%만이 ‘소득을 위해’ 노후에 근로를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진 응답자들은 66.0%가 ‘소득’을 이유로 응답하여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4-54〉 인구특성별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이 있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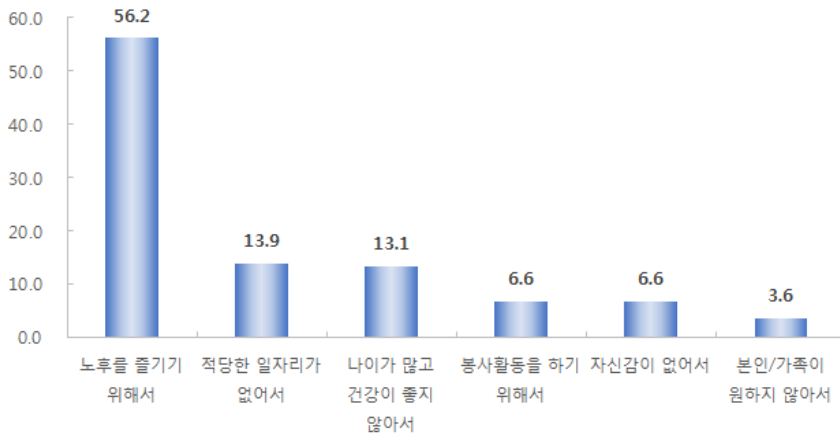
구 분		소득을 위해	자기발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	여가시간활용 및 사회활동을 위해	x2 (p)
전체		51.1	21.3	16.6	11.1	-
연령	50~54세	45.6	16.2	23.5	14.7	8.863 (.181)
	55~59세	44.7	18.8	27.1	9.4	
	60~65세	63.0	13.6	13.6	9.9	
지역	도시	47.1	18.1	21.9	12.9	3.976 (.680)
	도농	60.8	13.7	17.6	7.8	
	농촌	55.2	13.8	24.1	6.9	
학력	중졸 이하	69.4	11.1	13.9	5.6	24.085** (.001)
	고졸	62.2	19.5	11.0	7.3	
	대졸 이상	36.8	16.7	30.7	15.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66.0	11.3	15.5	7.2	15.446* (.017)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0.7	22.0	24.2	13.2	
	600만원 이상	40.0	17.8	26.7	15.6	
취업 여부	취업	49.2	18.8	22.7	9.4	5.516 (.138)
	미취업	57.4	9.3	16.7	16.7	
배우자 유무	무배우	60.0	10.0	16.7	13.3	1.943 (.584)
	유배우	49.8	17.6	22.0	10.7	

주 : ***p<0.01, **p<0.1, *p<0.5

○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유를 분석한 결과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노후에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후에 근로를 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13.9%,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13.1%였으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와 ‘자신감이 없어서’는 6.6%, ‘본인이나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노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0〉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이 없는 이유

○ 응답자의 인구특성별로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을 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비교해본 결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인구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별로는 60~65세 집단과 60세 미만 집단 간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남. ‘노후를 즐기기 위해’ 노후 근로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0~54세 집단의 62.8%, 55~59세 집단의 63.6%가 응답하여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60~65세 집단의 응답률은 39.5%에 불과하여 집단 간 응답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60~65세 집단은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노후에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26.3%로 60세 미만의 연령대 집단들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노후에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졸 이하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나이가 많

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은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가구소득 역시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를 즐기기 위해' 노후에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 미만 집단의 응답률은 38.1%인데 반해 600만원 이상 집단의 응답률은 70.5%로 응답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자보다 취업자가 '노후를 즐기기 위해' 근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미취업자의 경우 '자신감이 없어서' 노후 근로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15.9%로 취업자(2.2%)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임

〈표 4-55〉 인구특성별 65세 이후 근로활동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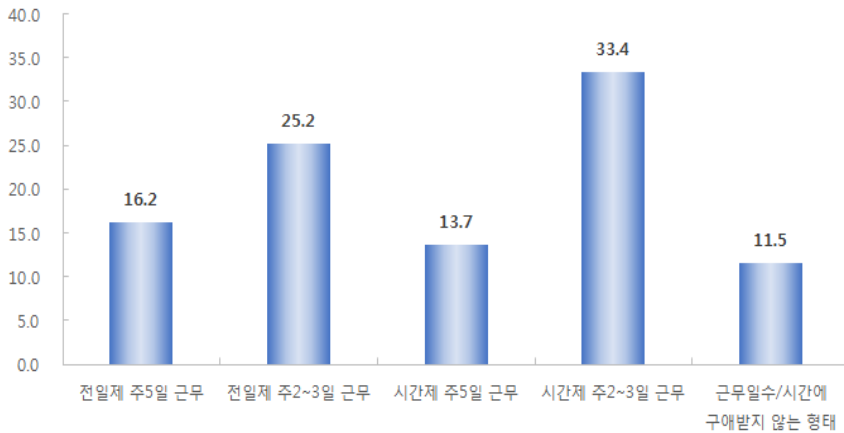
구 분		노후를 즐기기 위해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나이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봉사활동 을 하기 위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본인/ 가족이 원하지 않아서	x2 (p)
전체		56.2	13.9	13.1	6.6	6.6	3.6	-
연령	50~54세	62.8	14.0	7.0	11.6	2.3	2.3	20.983* (.021)
	55~59세	63.6	14.5	9.1	0.0	10.9	1.8	
	60~65세	39.5	13.2	26.3	7.9	5.3	7.9	
지역	도시	55.6	15.6	11.1	6.7	6.7	4.4	9.285 (.505)
	도농	45.8	12.5	25.0	4.2	12.5	0.0	
	농촌	69.6	8.7	8.7	8.7	0.0	4.3	
학력	중졸 이하	38.1	19.0	28.6	0.0	9.5	4.8	19.718* (.032)
	고졸	52.1	16.7	12.5	2.1	12.5	4.2	
	대졸 이상	64.7	10.3	8.8	11.8	1.5	2.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6.8	15.8	28.9	5.3	7.9	5.3	24.557** (.006)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8.2	14.5	10.9	5.5	10.9	0.0	
	600만원 이상	70.5	11.4	2.3	9.1	0.0	6.8	
취업 여부	취업	64.5	14.0	10.8	7.5	2.2	1.1	19.086** (.002)
	미취업	38.6	13.6	18.2	4.5	15.9	9.1	
배우자 유무	무배우	55.0	10.0	20.0	5.0	5.0	5.0	1.390 (.925)
	유배우	56.4	14.5	12.0	6.8	6.8	3.4	

주 : ***p<0.01, **p<0.1, *p<0.5

○ 65세 이후 근로시 선호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시간제 주 2~3일 근무’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주 2~3일 근무’ 형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일제 주 2~3일 근무’ 형태는 25.2%, ‘전일제 주 5일 근무’ 형태 16.2%, ‘시간제 주 5일 근무’ 형태 13.7%, ‘근무일수/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 형태는 11.5%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1〉 65세 이후 근로시 선호하는 근로조건

○ 응답자의 인구특성별로 65세 이후 근로시 선호하는 근로조건을 비교해 본 결과, 연령과 배우자 유무를 제외한 인구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은 ‘시간제 주 2~3일 근무’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농지역은 ‘전일제 주 2~3일 근무’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응답률에 차이가 나타남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집단에서는 ‘전일제 주 2~3일 근무’ 형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높은데 반해 대졸 이상 집단에서는 ‘시간제 주 2~3일 근무’ 형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고졸 학력 응답자들은 ‘시간제 주 2~3일 근무’, ‘전일제 주 5일 근무’, ‘전일제 주 2~3일 근무’ 형태에 각각 28.7%, 23.3%, 21.7%가 선호하는 근로조건이라고 응답함

-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집단에서는 '전일제 주 2~3일 근무' 형태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이 있는 집단에서는 '시간제 주 2~3일 근무' 형태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소득에 따라 선호하는 근로조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시간제 주 2~3일 근무' 형태는 취업자의 30.6%, 미취업자의 41.5%가 응답하여 가장 선호하는 근로조건인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의 경우는 '전일제 주 5일 근무' 형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19.2%로 나타나 미취업자의 응답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6〉 인구특성별 65세 이후 근로시 선호하는 근로조건

(단위 : %)

구 분		전일제 주5일 근무	전일제 주 2~3일 근무	시간제 주5일 근무	시간제 주 2~3일 근무	근무일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	x2 (p)
전체		16.2	25.2	13.7	33.4	11.5	-
연령	50~54세	14.7	23.3	12.1	38.8	11.2	6.076 (.639)
	55~59세	14.2	29.9	15.7	29.9	10.4	
	60~65세	20.4	21.2	13.3	32.7	12.4	
지역	도시	15.5	22.3	16.0	34.5	11.8	18.610* (.017)
	도농	21.3	38.7	6.7	28.0	5.3	
	농촌	11.5	19.2	13.5	36.5	19.2	
학력	중졸 이하	17.3	36.5	9.6	26.9	9.6	16.555* (.035)
	고졸	23.3	21.7	16.3	28.7	10.1	
	대졸 이상	10.4	24.7	12.6	39.0	13.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9.4	33.3	10.9	26.4	10.1	30.997***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4.1	19.0	22.5	31.0	13.4	
	600만원 이상	13.3	23.3	4.4	48.9	10.0	
취업 여부	취업	19.2	22.9	16.6	30.6	10.7	17.760** (.001)
	미취업	7.4	31.9	5.3	41.5	13.8	
배우자 유무	무배우	11.4	20.5	6.8	45.5	15.9	5.899 (.207)
	유배우	16.8	25.9	14.6	31.8	10.9	

주 : ***p<0.01, **p<0.1, *p<0.5

다) 노후대비 연금 현황

- 전라북도 50~65세 여성들의 공적/사적 연금 가입 실태를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순으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의 경우 응답자의 57.9%가 가입하여 돈을 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입했으나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5%,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나 가입률은 69.1%로 나타났으며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29.1%로 나타남
 - 개인연금은 가입했으며 돈을 내고 있다는 응답자가 31.4%로 나타났으며 가입했으나 돈을 내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4.7%,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5.2%로 나타나 가입률은 41.3%로 나타났으며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8.6%로 나타남.
 -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7.0%였으며 가입했으나 돈을 내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2.1%,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1.8%로 퇴직연금 가입률은 20.9%임.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79.1%로 대다수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직역연금의 가입률은 6.0%로 나타났으며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94.0%로 나타남

〈표 4-57〉 공적/사적 연금 가입 현황 (응답자 기준)

(단위 : %)

	가입했으며, 돈을 내고 있다	가입했으나, 돈을 내지 않고 있다	가입하지 않았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57.9	6.5	29.1	4.7
특수직역연금	5.2	0.3	94.0	0.5
퇴직연금	17.0	2.1	79.1	1.8
개인연금	31.4	4.7	58.6	5.2

- 부부를 기준으로 공적/사적 연금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순으로 가입률이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의 경우 부부가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9%에 불과하였으며 부부 모두 가입한 경우가 63.8%로 가장 많았고, 부부 중 한 명만 가입했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남. 부부 둘 중 한명이라도 공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91.1%로 대다수가 공적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의 경우는 부부가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9.9%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부부가 모두 가입했다는 응답이 38.9%, 부부 중 한 명만 가입했다는 응답이 11.3%로 나타남.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50.2%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개인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은 부부가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9.4%로 과반을 넘었으며 부부가 모두 가입했다는 응답이 11.3%, 부부 중 한 명만 가입했다는 응답이 19.3%로 나타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30.6%에 불과하여 퇴직연금을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는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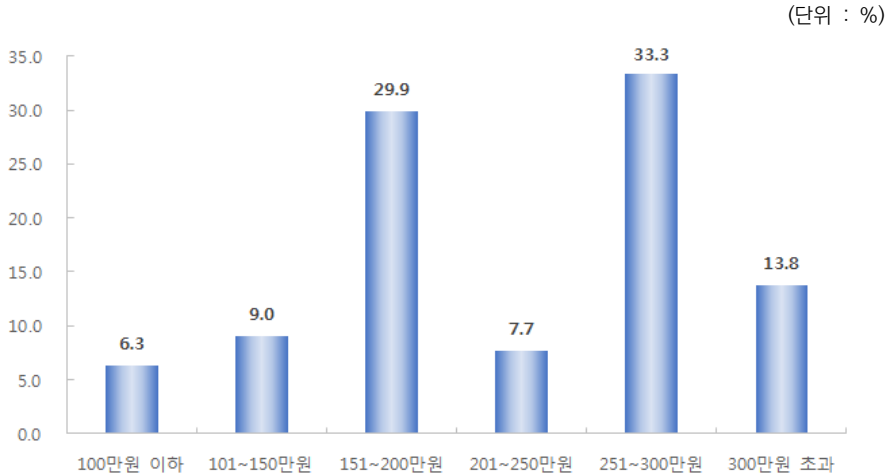
〈표 4-58〉 공적/사적 연금 가입 현황 (부부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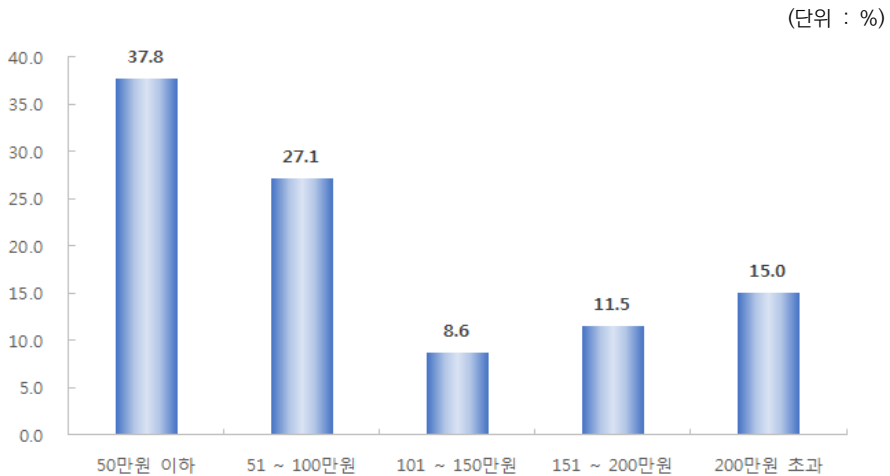
	공적연금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부부 모두 가입	63.8	11.3	38.9
부부 중 한 명만 가입	27.3	19.3	11.3
부부 둘 다 가입 안함	8.9	69.4	49.9

- 응답자들의 노후 예상 생활비는 '251~300만원'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1~200만원' 29.9%, '300만원 초과' 13.8%, '101~150만원' 9.0%, '201~250만원' 7.7%, '100만원 이하' 6.3% 순으로 나타남
- 노후 예상 생활비의 평균은 260만원이며 중위수는 250만원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노후 예상 연금 수령액은 ‘50만원 이하’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100만원’ 27.1%, ‘200만원 초과’ 15.0%, ‘151~200만원’ 11.5%, ‘101~150만원’ 8.6%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64.9%는 예상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노후 예상 생활비의 평균인 260만원을 훨씬 밑도는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4-22〉 노후 예상 생활비



〈그림 4-23〉 노후 예상 연금 수령액

○ 노후 예상 연금 수령액은 배우자 유무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가입되어 있는 연금의 개수가 많을수록 노후 예상 연금 수령액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도농지역 응답자의 예상 연금 수령액이 도시와 농촌 지역의 응답자보다 2배 가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예상 연금 수령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9〉 노후 예상 연금 수령액의 집단 간 차이

(단위 : 명, 점)

		N	M	SD	t/F	p
연령	50~54세	103	136.1	102.91	4.934	.008**
	55~59세	129	120.2	107.80		
	60~65세	113	93.6	91.22		
지역	도시	224	128.9	109.42	10.112	.000***
	도농	71	68.7	68.99		
	농촌	52	124.9	89.12		
학력	중졸 이하	56	58.4	51.78	30.813	.000***
	고졸	121	88.3	87.54		
	대졸 이상	167	156.3	109.1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28	69.5	71.11	37.972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37	119.6	95.49		
	600만원 이상	81	184.0	115.49		
취업 여부	취업	261	124.6	106.14	2.766	.006**
	미취업	86	89.8	84.10		
배우자 유무	무배우	48	109.5	105.33	-0.463	.645
	유배우	299	117.0	101.74		
가입 연금 개수	0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48	65.5	80.4	13.761	.000***
	1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155	95.5	96.5		
	2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109	139.4	102.1		
	3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43	177.2	98.5		

주 : ***p<0.01, **p<0.1, *p<0.5

○ 노후대비 금융상품 및 소득마련 수단에 대해서는 ‘질병보험, 실비보험 등’ 이 1순위와 2순위 통틀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남(1순위 33.1%, 2순위 25.4%)

- 1순위는 ‘질병보험, 실비보험 등’이 33.1%, ‘퇴직금’이 24.3%, ‘예적금, 저축성보험, 적립식 펀드 등’이 20.5%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간병비보험, 실버보험, 종신보험 등’ 8.5%,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투자 및 임대’가 8.3%,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2.4%가 이음.
- 2순위는 ‘예적금, 저축성보험, 적립식 펀드 등’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질병보험, 실비보험 등’ 25.4%, ‘간병비보험, 실버보험, 종신보험 등’ 16.2%,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투자 및 임대’ 11.2%,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7.4%, ‘퇴직금’ 6.5% 순으로 나타남

〈표 4-60〉 노후대비 금융상품 및 소득마련 수단

(단위 : 명, %)

구 분	1순위		2순위		종합순위(중복응답)	
	N	%	N	%	N	%
퇴직금	91	24.3	22	6.5	113	15.8
질병보험, 실비보험 등	124	33.1	86	25.4	210	29.4
간병비보험, 실버보험, 종신보험 등	32	8.5	55	16.2	87	12.2
예적금, 저축성보험, 적립식 펀드 등	77	20.5	95	28.0	172	24.1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9	2.4	25	7.4	34	4.8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투자 및 임대	31	8.3	38	11.2	69	9.7
없음	11	2.9	18	5.3	29	4.1

○ 노후대비 금융상품 및 소득마련 수단은 대부분의 인구특성에서 ‘질병보험, 실비보험 등’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농촌지역 응답자는 ‘질병보험, 실비보험 등’과 ‘예적금, 저축성보험, 적립식 펀드 등’으로 노후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24.2%로 동일하게 나타남
- 가구소득별로 월평균 6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응답자들은 ‘질병보험, 실비보험’보다 ‘예적금, 저축성보험, 적립식 펀드 등’으로 노후대비를 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61〉 인구특성별 노후대비 금융상품 및 소득마련 수단 (종합순위 기준)

(단위 : %)

구 분		퇴직금	질병보험/ 실비보험	간병비보험/ 실버보험/ 종신 보험	예적금/ 저축성보험 /펀드 등	주택연금/ 농지연금	부동산 투자 및 임대	없음
전체		15.8	29.4	12.2	24.1	4.8	9.7	4.1
연령	50~54세	20.4	27.1	10.9	22.2	5.0	11.8	2.7
	55~59세	16.7	28.9	14.1	22.8	4.6	9.5	3.4
	60~65세	10.6	31.9	11.1	27.9	4.9	8.0	5.8
지역	도시	16.5	30.0	12.0	22.5	4.3	11.4	3.2
	도농	9.4	30.9	15.4	28.9	6.0	5.4	4.0
	농촌	22.2	24.2	8.1	24.2	5.1	8.1	8.1
학력	중졸 이하	7.3	30.3	12.8	28.4	5.5	4.6	11.0
	고졸	14.3	33.9	11.0	22.0	5.7	8.2	4.9
	대졸 이상	19.5	25.7	13.0	24.0	4.0	12.4	1.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1.7	32.7	12.9	24.2	6.5	4.0	8.1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6.5	29.8	13.7	24.2	4.2	8.8	2.8
	600만원 이상	21.0	23.3	9.1	23.9	3.4	18.8	0.6
취업 여부	취업	17.0	28.5	11.6	23.8	5.4	9.6	4.1
	미취업	12.2	32.2	13.9	25.0	2.8	10.0	3.9
배우자 유무	무배우	12.5	27.3	11.4	23.9	5.7	8.0	11.4
	유배우	16.3	29.7	12.3	24.1	4.8	9.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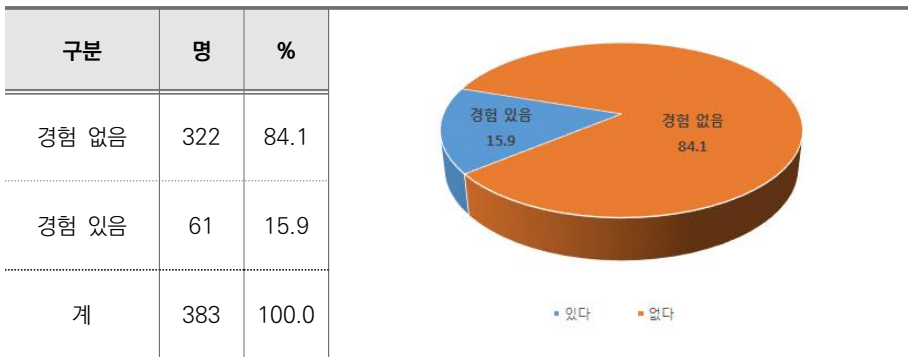
5)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 및 욕구

가)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경험

- 조사대상자들에게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이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4.1%가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이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에 불과함. 따라서 전라북도의 중고령세대 여성들은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이용경험이 매우 부족한 편인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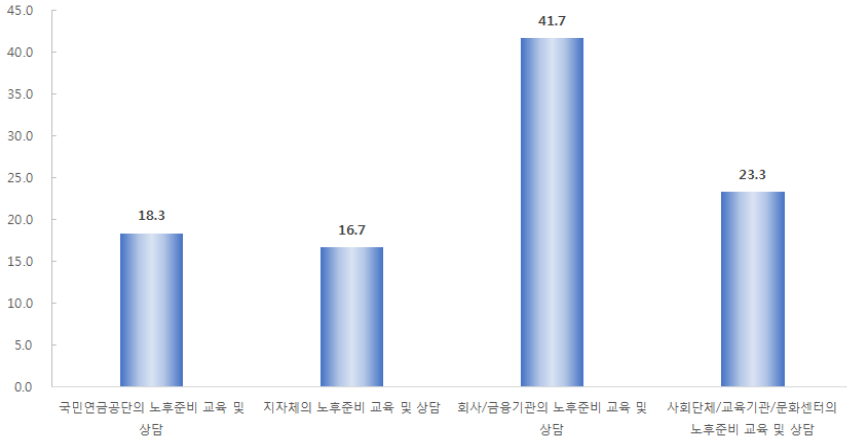
〈표 4-62〉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이용경험

(단위 : 명, %)



-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받았던 기관을 조사한 결과 ‘회사나 금융기관의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단체/교육기관/문화센터의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23.3%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18.3%, ‘지자체의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16.7%로 나타남. 노후설계 상담 및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60% 이상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4-24〉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이용 기관

- 응답자의 인구특성별로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이용 기관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지역별로 도시지역은 응답자의 51.3%가 ‘회사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도농지역은 ‘사회단체/교육기관/문화센터’를 통하여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농촌지역의 경우는 50.0%가 ‘지자체’를 이용했다고 응답하여 지역별로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위하여 이용한 기관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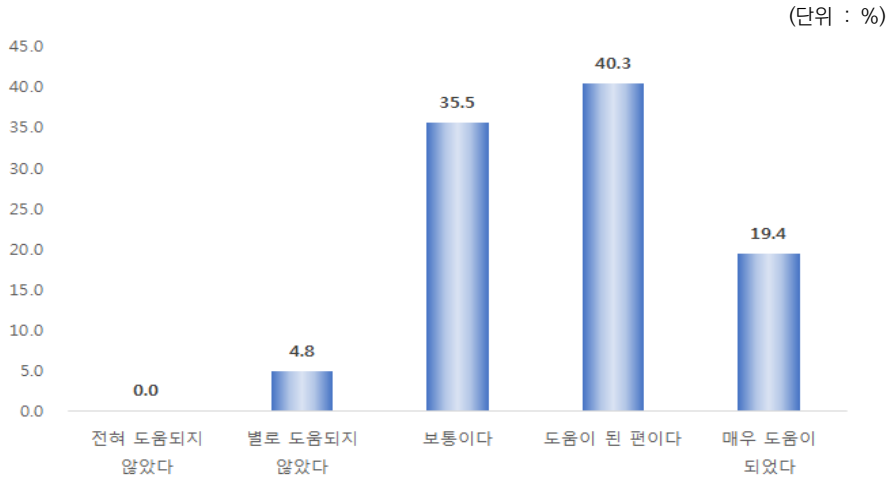
〈표 4-63〉 인구특성별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이용 기관

(단위 : %)

구 분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회사/ 금융기관	사회단체/ 교육기관/ 문화센터	χ^2 (p)
전체		18.3	16.7	41.7	23.3	-
연령	50~54세	20.0	20.0	40.0	20.0	1.720 (.944)
	55~59세	17.4	17.4	34.8	30.4	
	60~65세	18.2	13.6	50.0	18.2	
지역	도시	23.1	7.7	51.3	17.9	13.607* (.034)
	도농	7.7	23.1	30.8	38.5	
	농촌	12.5	50.0	12.5	25.0	
학력	중졸 이하	22.2	11.1	44.4	22.2	2.025 (.917)
	고졸	25.0	20.0	40.0	15.0	
	대졸 이상	13.3	16.7	43.3	26.7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3.5	17.6	23.5	35.3	8.840 (.183)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0.7	25.0	46.4	17.9	
	600만원 이상	26.7	0.0	53.3	20.0	
취업 여부	취업	19.0	19.0	40.5	21.4	0.780 (.854)
	미취업	16.7	11.1	44.4	27.8	
배우자 유무	무배우	40.4	10.0	20.0	30.0	4.973 (.174)
	유배우	14.0	18.0	46.0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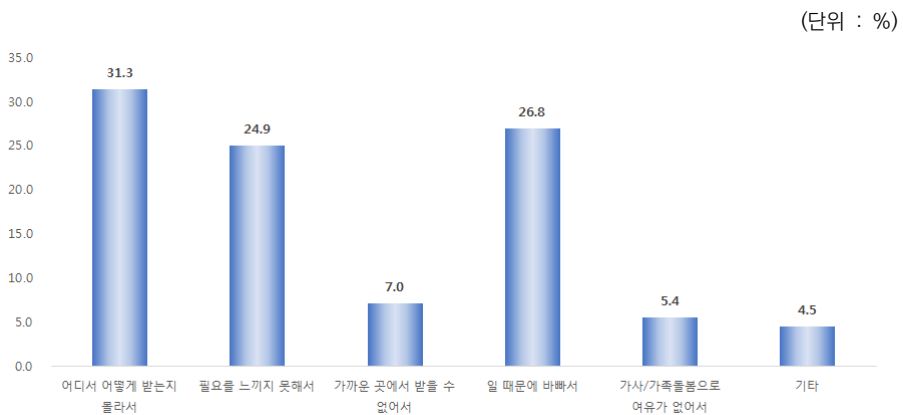
주 : ***p<0.01, **p<0.1, *p<0.5

-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노후 설계 교육 및 상담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59.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5.5%,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4.8%로 나타나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4-25〉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도움 정도

-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 때문에 바빠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6.8%였으며,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24.9%,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없어서’ 7.0%, ‘가사/가족돌봄으로 여유가 없어서’ 5.4%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6〉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 응답자의 인구특성별로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결과, 취업여부와 배우자 유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의 경우 ‘일 때문에 바빠서’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4.3%로 가장 많았으나 미취업자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남.
 -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자의 경우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27.1%인 반면 무배우자는 10.0%에 불과하였으며 ‘일 때문에 바빠서’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반대로 무배우자가 37.5%로 유배우자(25.3%)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4-64〉 인구특성별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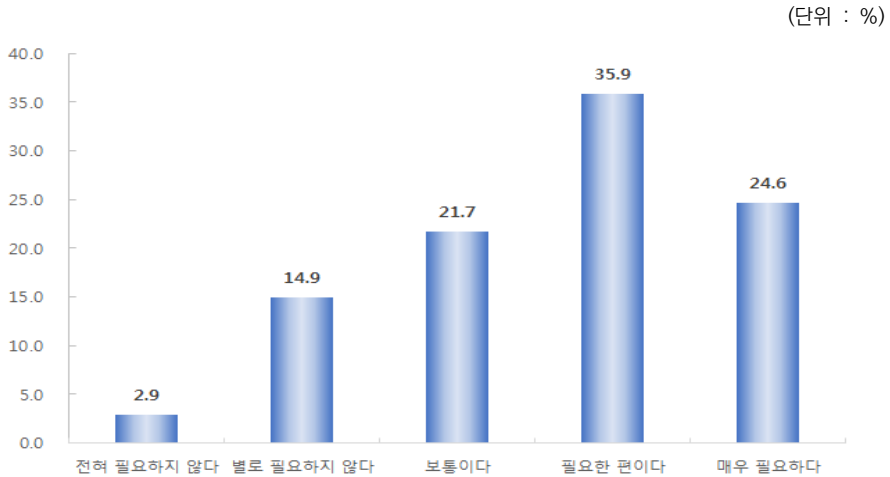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없어서	일 때문에 바빠서	가사로 여유가 없어서	기타	x2 (p)
전체		31.3	24.9	7.0	26.8	5.4	4.5	-
연령	50~54세	29.0	26.0	4.0	27.0	6.0	8.0	10.855 (.369)
	55~59세	28.9	22.8	7.9	31.6	5.3	3.5	
	60~65세	37.1	26.8	9.3	20.6	4.1	2.1	
지역	도시	26.3	28.3	7.3	28.3	4.9	4.9	12.609 (.246)
	도농	42.9	19.0	7.9	17.5	7.9	4.8	
	농촌	37.8	17.8	4.4	33.3	4.4	2.2	
학력	중졸 이하	41.7	22.9	8.3	22.9	2.1	2.1	6.813 (.743)
	고졸	26.5	27.4	8.0	27.4	7.1	3.5	
	대졸 이상	31.3	24.0	6.0	27.3	5.3	6.0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8.5	20.5	7.7	19.7	8.5	5.1	16.477 (.087)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5.2	25.2	5.9	33.6	5.9	4.2	
	600만원 이상	30.1	31.5	8.2	26.0	0.0	4.1	
취업 여부	취업	28.3	24.0	4.7	34.3	4.7	3.9	30.487*** (.000)
	미취업	40.0	27.5	13.8	5.0	7.5	6.3	
배우자 유무	무배우	30.0	10.0	5.0	37.5	5.0	12.5	12.956* (.024)
	유배우	31.5	27.1	7.3	25.3	5.5	3.3	

주 : ***p<0.01, **p<0.1, *p<0.5

○ 조사대상자에게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0.5%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21.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7.8%로 나타남

-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7.8%로 나타나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임



〈그림 4-27〉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

○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응답에 차이가 나타남

-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의 응답자가 평점 3.5점으로 다른 지역별 집단에 비해 필요성을 적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이 평점 3.8점, 도농지역이 평점 4.0점으로 도농지역의 응답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65〉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의 집단 간 차이

(단위 : 명, 점)

		N	M	SD	t/F	p
연령	50~54세	119	3.7	1.09	1.627	.198
	55~59세	140	3.7	1.04		
	60~65세	121	3.5	1.16		
지역	도시	253	3.5	1.10	6.995	.001**
	도농	76	4.0	1.01		
	농촌	53	3.8	1.04		
학력	중졸 이하	57	3.7	1.09	2.823	.061
	고졸	134	3.5	1.19		
	대졸 이상	188	3.8	1.0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5	3.7	1.14	0.450	.638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50	3.6	1.08		
	600만원 이상	93	3.7	1.06		
취업 여부	취업	281	3.7	1.10	0.539	.590
	미취업	101	3.6	1.08		
배우자 유무	무배우	50	3.6	1.04	-0.029	.977
	유배우	332	3.6	1.10		

주 : ***p<0.01, **p<0.1, *p<0.5

나) 영역별 노후준비 필요도

- 각 영역별 노후준비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건강’ 영역의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건강’ 영역에 이어 ‘사회적 관계’ 영역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3.6%, ‘재무’ 영역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1.3%로 나타났으며 ‘여가’(60.1%), ‘일’(53.2%), ‘노화, 노년에 대한 이해’(48.2%), ‘사회공헌’(42.8%), ‘자기 학습’(41.4%), ‘귀농 및 귀촌에 대한 상담과 교육’(20.8%) 순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 노후준비 필요정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건강’ 영역이 4.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영역별 노후준비 필요정도의 평균 점수는 ‘건강’(4.02점) > ‘사회적 관계’(3.75점) > ‘여가’(3.67점) > ‘재무’(3.65점) > ‘일’(3.51점) > ‘노화, 노년에 대한 이해’(3.50점) > ‘사회공헌’(3.27점) > ‘자기 학습’(3.22점) > ‘귀농 및 귀촌에 대한 상담과 교육’(2.55점) 순으로 나타남

〈표 4-66〉 영역별 노후준비 필요도

(단위 : %, 점)

구 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점)
재무	4.0	6.1	28.5	43.7	17.6	3.65
일	3.7	10.4	32.6	37.7	15.5	3.51
건강	0.0	4.8	20.4	42.9	32.0	4.02
여가	1.6	6.4	31.9	43.9	16.2	3.67
사회적 관계	0.5	3.2	32.6	48.1	15.5	3.75
자기 학습	6.2	16.1	36.3	32.3	9.1	3.22
사회공헌	5.3	14.6	37.2	33.0	9.8	3.27
노화, 노년에 대한 이해	1.3	8.3	42.1	35.9	12.3	3.50
귀농 및 귀촌에 대한 상담과 교육	22.7	25.7	30.7	16.0	4.8	2.55

3. 심층면접조사 분석결과

가.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심층면접조사에서는 표준화된 설문조사로 도출되기 어려운 노후준비에 관한 다차원적이고 다각적인 맥락을 분석하고자 노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노후기대, 노후준비 및 정책지원 요구를 파악함
 - 노후준비 정도는 노후를 바라보는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노후에 대한 기대 정도에 따라 노후준비 행위의 구체적 수준과 내용이 다를 것으로 예측
 - 또한 노후준비는 여성들이 살아 온 다양한 삶의 궤적과 분리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이들의 가족구성과 거주여부, 자녀의 취업 및 출가여부, 직업경력, 노후준비 경제적 여건, 현재의 취업유무와 노동형태 등의 배경요인 등을 고려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중고령여성 집단내의 다양성과 차이를 발견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방법

- 노후준비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고령여성의 노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노후기대, 노후준비 행위와 수준, 노후준비에 필요한 정책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반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함
- 심층면접장소는 면접참여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조용한 카페, 여성농업인 센터, 테마파크 공원 사무실, 연구원 회의실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평균 면접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장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 심층면접조사 기간은 2019년 3월 18일부터 3월3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총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모든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전화를 통해 연구목적과 인터뷰내용 등을 알렸으며 면담 당일에는 개인정보 비밀보장, 연구윤리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

-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 동의하에 녹취하였고 녹취된 내용은 전사하여 분석에 활용함. 전사된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면접조사 시 필사한 연구노트 자료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인터뷰 결과를 연구목적에 맞게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의미 있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함

3) 조사내용

- 심층면접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구체적 영역으로는 중고령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관계, 노후의 주관적 인식과 노후기대,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과 구체적 행위,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인지도 및 지원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함

〈표 4-67〉 중고령여성 대상 심층면접 조사내용

영역	질문내용
일반현황	-연령, 거주지, 학력, 소득수준, 취업여부 및 직종, 과거직업경력 -가족구성 및 자녀출가여부, 배우자유무 및 직업
노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과 시점(사건) -노후이미지와 늙음(Aging)에 대한 견해 -기대수명과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일
노후기대	-노후 일에 대한 의지 및 희망분야 -노후생활 계획이나 가장 하고 싶은 일 -행복한 노후에 대한 견해
노후준비 및 정책적 욕구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노후준비 주체와 시기 -영역별 노후준비 정도와 수준, 주관적 평가 -노후준비에 대한 어려움 -노후준비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

4) 연구참여자 및 인적특성

- 심층면접에 참여한 총 18명의 참여자는 연령별로는 50대 전반이 4명 50대 후반 6명, 60대가 8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59.4세임. 거주지별로는 농촌거주자가 6명 도시거주자는 12명임. 현재 취업상태 및 종사상 지위를 보면 무급 가족종사자(농업 6명과 자영업 3명, 주부 3명), 임금근로자 6명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됨
- 참여자의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이혼이나 별거, 사별인 3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유배우자임. 자녀상황은 무자녀 1명을 제외하고는 장성하여 출가하거나 현재 취업준비 중이거나, 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어 자녀양육이나 돌봄과 같은 책무에서 자유로운 참여자는 거의 없었음

〈표 4-68〉 심층면접 참여자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지역	연령	학력	현재직업	직업경력	혼인 상태	가족사항
1	읍면	54세	초등졸	농업	농업	유배우	2남1녀: 큰아들출가 미혼의 아들, 딸
2	동	60세	고졸	자영업 (부동산)	농업/ 자영업	유배우	1남2녀: 딸1 출가, 딸2 공무원, 아들 공부 중
3	동	51세	대학원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유배우	자녀 없음
4	동	59세	고졸	미용	미용/ 문화해설사	유배우	2녀: 작은딸 결혼, 큰딸 취업 중
5	동	55세	전문대졸	자영업 (피부관리)	피부관리	별거	1남2녀: 딸 1/2 취업, 아들 취업 준비 중
6	동	54세	대졸	자영업 (교재)	교육교재 (대표)20년	이혼	1남1녀: 아들 학생, 딸 직장
7	동	57세	고졸	주부	면사무소/ 중소기업	유배우	조부모/2남1녀: 큰아들 출가, 미혼 아들딸
8	동	67세	고졸	주부	자영업	유배우	2남: 출가 전, 직장
9	동	61세	대졸	주부/ 명예퇴직	교사/공무원 28년	유배우	1남1녀: 출가 전, 직장
10	동	63세	전문대졸	여성 노동조합	학교급식교사 18년	유배우	2남: 출가 전, 직장
11	동	65세	중졸	요양보호사	상업	유배우	2남: 모두 출가
12	읍면	66세	초등졸		농업	유배우	1남1녀: 아들(41), 딸(39) 모두 출가
13	읍면	58세	초등졸		농업	유배우	시아머니/2남1녀: 아들2(37,36), 딸1(30) 모두 출가
14	읍면	54세	중졸		농업	사별	큰아들 동거
15	읍면	59세	초등졸		농업	유배우	1남2녀: 아들(37)출가, 딸1/2 출가 전
16	읍면	64세	전문대졸		농업 (귀농)	유배우	1녀: 딸(34세) 출가
17	동	64세	대학원졸	퇴직교사	교사 39년	유배우	2남: 아들2(33세, 31세) 취업 준비 중
18	동	59세	대졸	공무원	공무원 34년	유배우	

나. 심층면접 분석결과

1) 노후에 대한 주관적 인식

① 노후시작 연령 : 70세, 제도와 현실사이의 간극

○ 고령화로 인한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와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노후’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합의는 부재한 상황임. ‘노후’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부재하므로 개인마다 ‘노후’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다르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노후준비나 노후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노후는 60세~70세 이후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으며 1~2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면접참여자들은 70세 이후를 노후 시작 시기로 보았음. 60세를 노후로 보는 시각은 ‘환갑’이나 ‘은퇴’, 노인복지정책 수혜시점인 65세와 같은 사회적·문화적 기준이나 인식에 근거하고 있었음. 반면 70세를 노후로 보는 시각은 100세 시대나 120세까지의 장수사회로 인한 ‘길어진 노년기’와 최근의 건강해진 노인들의 ‘신체적 노화정도’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음

○ 어떠한 사건을 경험할 때 노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손주를 봐줄 때’, ‘기력이 없어서 뭐든 못할 때’, ‘자녀를 모두 출가시킬 때’ 등의 시기를 노후의 시작시기로 보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면담 참여자들은 건강이 나빠졌을 때를 노후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음

- 중고령의 시기가 생애발달주기에 있어서 자녀의 결혼이나 출가 등의 과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애사건을 계기로 노후에 접어들거나 노후가 시작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일부 참여자들이 있었으나 상당수는 건강이 나빠져서 활동을 못하는 시기를 노후로 보고 있음

- 우리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환갑 지나면 노후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근데 체력이 떨어져 손주도 못 봐줘요. 지금도 체력이 떨어지는데 (사례1)
- 저는 애들이 학교 졸업하는 동시에 말하자면 아이들의 뒷바라지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어쨌든 경제적으로 뒷바라지가 끝날 때, 그 때 이후가

나의 노후가 내가 이제 어떤 생활을 하든지 내 생활을 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든지 그때부터 나를 찾는 거죠. 그 전에는 자식 위해 사는 거고(사례4)

- 예전에는 60세라고 하면 굉장히 늙어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제가 볼 때도 한 70세 이후를 노후로 봐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61인데 굉장히 젊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70살 이후부터라고 생각해요.(사례9)
- 저는 남들이 65세라고 하면 노인이다 하는데 그럼 내가 노인이 됐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70세부터 노후나 노인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70년을 살면 그래도 많이 산거잖아요? 그때 되면 진짜 아파서 다들 아프고...(사례8)
- 요즘에 보면 60대이신 분들은 거의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거 같아요.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배우기도 하고 일도 다니시고, 근데 70세 넘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거동도 좀 불편해지고 그때부터 티가 많이 나죠(사례17)
- 노후를 몇 살부터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75부터 80을 잡거든요. 그렇게 잡고도 좀 아프면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으면 노인이라고들 하는데(사례15)

○ 이외에도 노후의 시작 시기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시기’에 해당하거나 개인은 인정하기 싫지만 ‘사회적 시선’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노후를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음. 이와 같이 노동이나 근로활동을 중심으로 노후의 시작시기를 판단하는 면접참여자들은 주로 자영업이나 현재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이혼하여 생계부양자로서 가장역할을 하는 여성들에게서 나타났음

- 제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글쎄요. 그걸 나이로는 가늠하기 힘들겠죠.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하면 그건 노후라고 볼 수 없으니깐...80이 되어도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면 노후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나이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폐지 줍는 노인도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분들.. 그렇게 자꾸 노후라고 생각이 드네요(사례6)

- 사실은 사회적인 영향이 크죠. 요즘은 65세까지는 일을 해야된다. 그런 시각들도 많고... 그런데 70세까지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수명이 80~90세로 늘어났다고들 말하는데 실제 주변을 보면 건강수명은 한 70세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0세 넘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60세 이전의 은퇴는 너무 빠른 것 같고 은퇴=노후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길어진 수명만큼 일자리에서의 은퇴연령도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사례10)
- 숫자로는 70세, 근데 그 나이에다 일할 수 있고 힘이 있다하더라도 주위에서 사람들이 노인은 뒷전으로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노후하면 결국 힘 없는 거죠. 힘 없고 또 어디나가서든 활동도 뒤처지고 소외당하고 그런거죠 뭐... (사례2)

○ 결론적으로 면접참여자들은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근로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취약한 상태에 들어서는 시기를 노후 시작 시점으로 보고 있고 노후시작 시기는 70세로 보고 있음. 이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으로 보는 60세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노인 기준인 65세와 비교하면 약 10세가 많음. 이러한 사실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 약 10년이라는 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사회가 정하고 있는 65세라는 연령 기준으로 노인을 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노화를 경험할 때 노인이나 노후를 인식한다는 점임. 따라서 70세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중고령층이 근로활동이든 사회참여 등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실제 본 연구의 참여면접자 대부분은 70세 전까지 일할 의사가 높기 때문에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생산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지원이나 교육 등이 필요함을 시사

② 노후의미: 삶의 전환 또는 연속으로 보는 이분화 된 시각

- 나이 들어감(Aging)과 노후에 대한 이미지 등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이 노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이들에게 있어 노후는 그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터닝포인트,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과 같은 '삶의 전환'으로 받아들이거나 노후의 삶도 그 이전의 삶과 거의 변화 없이 지속적인 '삶의 연속'에 있다는 이분화 된 시각이 존재하였음
- 노후를 새로운 인생 출발점 등 삶의 전환으로 생각하는 배경으로는 이제까지는 먹고 살기에 급급하였고 찌들린 직장생활과 자식들을 돌보는 등 '가족에게 희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왔으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노후로 받아들임. 이들은 노후를 '책임'과 '계약' 등에서 벗어나 과거에 해보지 못한 '꿈'을 이루어보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나 공부'를 해보는 등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거나 더 이상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강하였음
- 저는 노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유유자적하는 것인데요. 저는 사느라고 바빠 못가본데 안가본데가 많아요. 그런데 다 가보고 싶고. 사실은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묶여가지고 맘대로 못 살잖아요. 만약에 그런 제약이 없어진다면 가고 싶은 데가 천지예요 그리고 벗어난다는 것.. 어떤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것. 애들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사례10)
- 퇴직하기 5년 전부터 퇴직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테데, 무엇을 해야 할까? 분명히 직장생활과는 다르고. 그리고 요즘에는 퇴직 이후의 삶이 길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퇴직 전보다 훨씬 좋은 것은 아니지만 퇴직 후에도 괜찮은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중략)그림을 제법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미대를 갈 수 없었고(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다가 교사가 됐는데 퇴직 후에는 내가 그것을 못했으니 하고 싶은 걸 해보는 제2의 인생을 꿈꾸죠(사례17)

-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인생 2막이라고들 하는데.. 왜 2막일까?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의 1막은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이었죠. 나 먹고 살기 바쁘고 허둥대고 남과 경쟁하고 남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이 벌고... 내일에 바빠서 몇 십년 일만 하다가 그것도 나와 가족을 위한 일만 한거죠. 그래서 노후에는 남한테도 베풀고 그렇게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제2의 인생을 꿈꿔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노인이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하고 쓸모 없다기보다는 노인이지만 참 괜찮다, 참 멋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례18)

○ 노후를 그 이전의 삶과 거의 변화가 없이 지속적인 삶에 불과하다는 ‘삶의 연속’으로 보는 시각은 대체로 농촌에서 거주하거나 전업주부인 중고령여성에게 나타남. 이들은 노후를 ‘세월에 순응’하거나 ‘하루하루 충실히’ 사는 것을 곧 노년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 노후나 노후준비는 도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노후 그 자체를 농사를 짓고 소일거리가 있는 삶의 연장으로 보았음. 노후준비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로는 벌어들여 살 ‘땅’(자본)을 소유하고 있고 ‘소일거리’(노동)로서의 농사는 늙어서도 자신의 체력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봄

-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일단은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순응을 해야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어가지만 우리는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 익히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이 있어서 많이 배우면서. 그리고 저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봉사활동 하면서 그렇게 하다보면 세월에 같이 익어가면서 늙어가는 세월따라 가야지 어찌겠어요. 순응하면서요(사례8)

- 저는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이고 내가 나이를 먹었나보네.. 뭐 그런 생각은 들어도 슬프다거나 외롭다거나 우울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저는 그래도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아요. 저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내가 늙었다 슬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어차피 늙는 것 인생에 다 정해진 길을 가는 것 아닌가요? 평생 시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하고... 무념무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생각 안 해보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사례16)

-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을 하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저축도 없고.. 논농사 그거 있는데... 그리고 시골사람들은 딱히 노후준비를 직장인들 아니고는 ... 한 사람들도 별반 없는 것 같고. 시골생활... 농사짓고 산 분들은 그냥 죽을 때 까지 내가 있는 땅 가꾸어 먹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거지 그게 노후인거지. 일손 놓고 편안하게 사는 게 노후가 아닌가요(사례1)

- 노후를 위한 준비나 노후대책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노후는 아직 할 나이도 안되었지만요.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평상시 살던 대로 쪽 살면 노후대책을 굳이 꼭 따로 할 필요가 있나...? 노후대책 노후준비.. 뭐 그런 것 방송이나 어디가든 하던데 농촌에서는 굳이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걸요. 왜냐하면 그냥 내 소일거리 있고 농사지으면 나 쓸 만큼 돈이 나오잖아요. 건강만 유지된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도 건강유지하면서 소일거리 하면되고..(중략) 제 생각에는 그래요. 꼭 노후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골사람보다는 도시권에 사는 사람들이 노후대책이 더 필요한건 아닐까요? 내 땅 지어먹고. 농사짓고, 소일거리 있고 그런 사람들 굳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사례14)

○ 노후를 '삶의 연속'으로 보는 시각이 농업종사자나 전업주부에서 나타나는 이유로는 이들에게는 '은퇴'라는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취업여성들에게 은퇴 전후의 삶은 큰 변화를 수반하는 반면 전업주부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는 은퇴라고 하는 명시적인 사건의 부재는 노후에 대한 실제적인 체감도를 떨어지게 하는 이유로 볼 수 있음

○ '은퇴'나 '퇴직'이라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는 다음의 사례 6은 현재 취업 중에 있음에도 노후를 삶의 연속선상에서 받아들이고 있어 노후나

노후준비에 대한 민감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음. 사례6의 경우는 자영업자로 20년째 교육교재 대표를 역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커리어를 기반으로 늦은 노후까지도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등 노후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음

- 공무원 같은 경우는 퇴직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러니 노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것 같네요. 근데 저희 같은 자영업자는 퇴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그런(노후)것들을 더 많이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일할 때까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교육이나 강사일 같은 경우에는 90세에도 강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콘텐츠만 다양하다면 그것에 대해 굳이 나이 구애받지 않고... 그러잖아요. 송해 선생님도 노래자랑 사회를 아직 보고 계시는데 그 분은 노후를 준비해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뭔가 계속 일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 안하는 게 아닌지(사례 6)

- 이상의 면접참여자들 사례를 통해 노후를 ‘삶의 전환’과 ‘삶의 연속’으로 보는 이분화 된 시각은 생애과정 동안 점유하여 온 직업활동이나 직업지위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③ 노후염려와 불안: 경제적 빈곤과 건강

- 면접참여자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되거나 염려하는 부분으로는 경제적 빈곤과 건강을 거론함. 일반적으로 노후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로 ‘건강’과 ‘경제력 상실’ 등은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노후의 불안 요인에 해당함
-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면접참여자들 일부는 경제적 빈곤을 상징하는 ‘폐지 줍는 노인’을 떠올렸으며 그런 노후의 삶을 자신도 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등을 갖고 있었음.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자신의 노후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제가 가끔 길 다니면서 폐지 줍는 분들을 보면.. 내가 저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가면서 폐지를 흘리면 그것을 주워서 올려

주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도대체 노후준비를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노후준비를 못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사례5)

- 노후하면 폐지 줍는 노인이 떠올라요.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사셨지만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노후까지 저렇게 고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사례3)
- 나이 들어 끔찍하게 걱정되는 것은 일단 돈이겠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요즘은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식이 나를 안 찾아요. 일단 돈이 있으면 자식이 한번이라도 오고, 전화라도 한번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내가 자식한테 전화하는 게 일단은 자식이 불편한 거예요.(중략) 이게 끔찍하면서 내가 정말 아프지 않고 생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것. 딱 그 거예요. 돈하고 내가 정말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내 발로 내가 걸어다니다가 죽을 수 있을까 자식에게 짐만 안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사례4)

○ 경제적 빈곤과 건강에 대한 불안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 것이라는 걱정이 노후에 가장 걱정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 노후하면 허리 굽어진 할머니가 생각나요. 요양병원 아픈 사람들 생각나요. 노후하면 거의 아프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를 정말 잘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아프면 자녀가 나몰라라 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걱정인데 아프면 어떻게 할까? 자녀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그때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되겠죠? (사례8)
- 노후하면 제일 불안한게 아프면 어쩔까하는... 아프면 정말 경제적인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자녀들) 멀리 살면 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게 제일 두려워요(사례7)

- 농사일 정말 안하고 싶어요. 남편은 일도 안하고 나만 일하지 돈 가치는 없지 빚만 지지 농사지어서 남는 게 없어요. 내손으로 내 몸으로 지어야 조금이라도 남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게 걱정이예요. 놓아버리면 평생 남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배움이 있어? 기술이 있어? 돈도 못 벌고 저희는 폐지도 못 줍잖아요. 농촌이어서 그래서 돈 벌 때도 마땅치 않고 먹거리는 내 손으로 어찌 먹는다 해도 빛이 있어요. 밭을 다 팔아버리면 빚 갚으면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지어서 작년에 괜찮게 지어서 좀 나았는데.. 그런데 농기계 임대료도 있고(사례13)

○ 노후에 대한 경제적 빈곤과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은 돌봄노동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음. 즉 이들은 대부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경험이 있었고 그들이 없는 살림에 오랜 간병을 해 오면서 노후와 늙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한 이미지가 내재화 된 경우였음

- 내가 저축해 놓은 건 없는데.. 늙으면 치매 이게 걱정이 되요.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30년 넘게 전 일이라, 그때는 치매라는 걸 몰랐어요. 젊으니까 치매라고 생각을 안했죠. 미쳤다고만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라고만 지금에서 생각해보니까 치매였어요. 치매라는 걸 모르고(눈시울을 붉히고).. 그래서 제일 염려되는 건 치매예요. 더욱이 오래 산다고 하니... 그래서 치매보험 들었어요.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사례12)
- 내가 걱정되는 건 내가 정신이 올바르게 살 수 있었으면.... 치매 같은 게 많으니까 저도 건강이... 근데 시어머니는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변을 그게 치매였는데.. 변을 그렇게 만지시더라고요. 그때가 89, 88세 정도였나 그때쯤 되었는데 병원에서 한 7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그렇게 만졌냐고 하면 안 만졌다고 해요...그래서 집에서 좀 돌보기는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형제들이 여럿 있었는데도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면 괜찮은데 너무 힘들더라고요(사례14)

- 이상에서 면접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노후에 대한 이미지나 불안은 경제적 빈곤과 건강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났음. 이는 장수사회에서 길어진 수명만큼 노후의 건강문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불안한 노후로 작용하는 가장 주된 요인 으로 나타남. 특히 과거 부모를 가까이서 간병하거나 모시고 사는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해온 여성들에게 내재화되어 현실에서 가장 큰 노후의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임

2) 노후기대

① 일자리에 대한 의지 : 보충적 소득보장과 의미추구로서의 일

- 면접참여자들은 노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거나 일을 꼭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었음. 일에 대한 의미나 의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는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거나 현재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노후에도 지속적인 임금노동을 희망하는 ‘보충적 소득보장’의 유형임.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다소 안정적이지만 노후에도 자신의 경험이나 역량 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만족감이나 성취감, 노후의 존재감 등을 찾고자 하는 ‘의미추구’형으로 구분 됨
- 다음의 사례는 주로 ‘보충적 소득보장’으로서 일에 대한 동기나 의미를 찾는 사례에 해당함. 사례5는 별거 중에 있고 사례10은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의 생계부담을 지고 있었음. 그러나 배우자 유무나 소득과 관계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례12와 사례14는 열악하고 척박한 농촌의 현실에서 ‘농가부채’와 ‘생활고’ 때문에 ‘생계부양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밖에 없었음. 이들은 고된 농사일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노후에도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함
- 이들 면접참여자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였는데 때론 감당하기 힘들지만 자녀들에게 향후에라도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의 노후정도는 스스로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였음
 -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하고 현재 하는 일로 넘어왔어요. 쉬고 싶었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커서 제가

무언가를 다시 해야 했었어요. 정년퇴직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무턱대고 놀기에는 삶이 너무 무료할 것 같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죠(사례10)

- 어디 식당에 가도 60세 넘은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설거지도 안시켜줄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저도 70세는 아니어도 그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할 의향이 있다기보다는 먹고 살아야하니까 해야 되겠죠.(사례5)
- 노후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있죠. 물론 자녀들이야 알아서 잘 하지만 자녀들한테 항상 손 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사례7)
- 농사일이 엄청 힘들어요. 힘든 만큼 가치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어요. 농산물 가격도 지금 엄청 폭락하고..정부에서 제대로 측정도 안 해주고 되게 지금 농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농사를 놓아버리면 평생 남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중략) 농가부채가 좀 있어요. 기계 임대료가 있는데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밭을 다 팔아버리면 빚은 갚는데 내가 힘들어서 도저히 (농사)할 수 없지만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으니(사례12)
- 이게 남의 땅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만 남아요. 그렇게 지어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짓는 거니까.. 가을이면 임대료 다 줘야하고 김제하고 부안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렇게 주고 나니까 겨우 얼마 남지도 않아요. 그래도 올해는 쌀값이 조금 올라서 조금 더 남았는데..다 빚갚고 나니까...(중략) 농사일은 쪼그리고 앉아서 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양쪽이 다 쪼그려서 앉지를 못하니까.. 지금은 힘이 닿을 때까지 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노후가 조금. 지금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니까(사례14)

○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두 번째 유형으로서 ‘의미추구’형은 노후에도 자신의 역량이나 취미활동이나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만족감과 성취감, 노인으로서의 존재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의 의미와 동기를 찾고 있었음.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 있는 일이 단지 활동으로써 그치는 것이나 아니라 약간의 '소득'으로 연계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이들이 노후에도 하고 싶은 일은 자신의 생애 주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이나 그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여가활동 등이 약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생업으로 연계,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이러한 의미에서 취미나 여가를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로 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여성들에게서 나타났음

- 성공적인 노후를 생각했을 때 저는 취미와 일이 병행되어서 지금처럼 일을 해서 돈을 얼마큼 버는가보다 취미생활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조금 더 보탬이 됐음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취미와 일을 병행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기간이 많으면 그게 성공적인 노후가 아닌가 싶어요(사례4)
- 저는 노후에 바리스타 같은 것을 배우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배워서 커피로 돈벌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일과 연계가 되는 교육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사례16)
- 어떤 기회가 있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쫓기듯이 하는 거 말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노후에 하는 일의 의미가 생계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아닌 취미나 여가, 자기 발전에서 연결되는 일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7)
-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우릴 선뜻 받아주겠다고 하는 데는 없어요. 일 자리를 찾으려고 새일센터 이런데도 기웃거리보았지만 요양보호사,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조리사 이런 것 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평생을 해 온 것들이라.. 조금은 색다른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하고 있는 솜리골지킴이 이런 일은 매우 만족스러워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잘 몰랐는데 공부도하고 또 이런 것들은 해설하면서 학생들이나 외

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 정말 보람되거든요. 자식들도 나이 들어서 힘들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런 엄마모습을 좋아하더라고요.(사례4)

- 장기화 된 장수사회에서 노인인력이나 중고령여성 인력활용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와 갭이 있음을 지적하는 사례도 있었음. 다음의 사례는 중고령 여성의 인력활용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이나 사회교육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포화’나 ‘교육효과’가 전혀 없이 단지 교육만이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었음
- 제 주변에 나이가 있는 여성분들 보면 대부분 교육은 정말 열심히 받아요. 근데 이 교육이 조그마하더라도 소득 창출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거 보면 정말 불안하기도 해요. 내가 정말 보람을 갖는다는 건 내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시간 떼우려고 배우러 다니다.. 그러면 제 삶이 좀 공허하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사례18)
- 정말 많은 중고령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배우는데 우리 지역사회가 그런 분들을 단순히 자원봉사로만 활용해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제가 그 구성원이 되었을 때 가치를 느끼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일년 정도야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활동이 경력이 되어서 해가 갈수록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봉사만 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여성들이 몇 십년간 정말 열심히 자식과 가정을 돌보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려고 열심히 교육도 받고 능력을 높이는데 우리 사회가 자원봉사만 하라고 할 때, ‘어 왜 우리 여성들을 저렇게 소비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가 여성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가 나요.(사례4)
- 중장년층 여성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중고령 여성들이 직업을 갖거나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잖아요. 대부분 청소나 식당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장년층 여성들 중에서도 고급인력이 있다. 교육만 조금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강사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직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에서 그냥 단기적이고 산발적으로 교육만 시키고 끝날게 아니라 몇 명이라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키워줘서 전문인력으로 만들고 그런 인력들이 협동조합 형식이든 다른 형식이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사례3)

② 나눔과 배움에 대한 욕구 : 배움며 뒤쳐지지 않는 삶

- 면접참여자자들이 노후생활로 기대하는 것들은 배움과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나눔 활동에 대한 사회참여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음
- 배움에 대한 의지나 희망은 그동안 생활에 쫓겨 바쁘게 사느라 미루어 두었던 것들을 배우고 싶거나 소질이나 관심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배움의 의지를 갖고 있었음
- 배움에 대한 의지나 열망은 주로 다음 사례에서와 같이 도시거주자나 취업활동 중에 있는 여성들에게 강하게 나타났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중노동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어 어떤 배움이나 여가보다는 ‘쉼’이나 ‘휴식’을 원하는 경향이 있었음
- 노후에는 여행도 여행이지만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제가 배움에 대한 욕망이 많나봐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글쓰기도 하고 사진도 배우러 다니고 힘 닿는데까지 여러 가지를 배워보려고 해요.(사례4)
- 지금까지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늙어서는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즐겁게 살 수 있게 노래도 배우러 다니고 싶고, 춤도 배우러 다니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꽃도 배워보고 싶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고 싶어요.(사례15)
- 퇴직 후에도 괜찮은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미대를 못 갔었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미대를 갈 수 있

는 분위기가 아니었기도 했고.. 그래서 퇴직 후에는 그림을 좀 배워봐야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죠(사례17)

- 요즘엔 동사무소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깐 그런 프로그램들 참여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면 호스피스 같은 것들 배우면서 즐겁게 살고 싶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게 좋잖아요(사례11)

○ 면접참여자들은 사회참여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 이들은 노후의 삶을 ‘베풀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한 ‘봉사’, ‘자원활동’을 하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

- 사회에 봉사를 하거나 사회에 조금은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내 일에 바빠서, 몇 십년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노후에는 남에게 베풀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노인이라서 쓸모없고 무능력하게 보이기보다는 노인이지만 참 괜찮다, 참 멋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사례17)
- 일을 그만두면 봉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나이를 먹어서 일을 그만두면 놀러 다닐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봉사를 다녀보니까 기술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기술을 배워놓으면 다음에 봉사할 때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사례5)
- 저는 딸들에게 미용을 배우라고 했어요. 돈 벌 수단으로 배우지 말고 자격증만 따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엄마 늙어서 힘도 없고 하면 너네는 가서 할머니들 머리카락 잘라드리고 파마해드리고 머리 감겨드리면 엄마는 청소를 하겠다. 나는 그렇게 살고싶다’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사례 15)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역할이 없는 역할’의 시기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 일상의 여가시간 소비와 역할은 노인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본 심층면접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장기화 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자원활동이나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역할을 통해 노후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학력수준이 높고 직업활동을 유지해 온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났음

○ 노후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기부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적응이나 사회공헌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자기성장에 기여하려는 바램은 기존의 선행연구(강유진, 2005; 신은식, 2002)에서 밝혀진 바와 다름 없었음

③ 성공적인 노후⁹⁾에 대한 견해 :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 본인의 노후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노후를 기대하는가에 따라 노후준비의 내용이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길어진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거나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함

○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고령여성들이 기대하는 행복한 노후나 성공적인 노후는 다수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인 것으로 나타남.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이란 구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아서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삶’을 의미하였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자녀들을 ‘귀찮게 하지 않는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면접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후’는 자신들의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삶이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삶 자체가 자신들의 삶의 만족도

9) 성공적노후의 개념은 국가, 시대, 학문마다 다양한 관점과 이론으로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어 합의된 정의는 없음. 성공적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등 공통된 영역이 있으며 각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다차원적이고 통합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나(오영희, 2012) 본 심층면접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중고령여성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나 성공적인 노후에 기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음

로 귀결되기보다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이 곧 성공적인 노후로 보는 이들의 노후부양관이 반영되고 있었음. 이러한 인식은 면접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 성공적인 노후라는 것은 자기의 일과 취미가 병행이 돼서 조금의 소득으로 연결되었음 좋겠어요. 이대로 건강하게 조금 일을 할 수 있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기간이 많으면 그게 성공적인 노후 아닐까 싶어요 (사례4)
 - 성공적인 행복한 노후가 되려면 건강이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나 자식들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좀 그런 삶은 안 살고 싶더라고요. 건강하게. 돈도 여의치 않은데 건강도 안 좋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짐이 되지 않는 삶.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건강한 삶.. 그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사례7)
 - 성공적인 노후나 행복한 노후는 부부가 같이 건강하게..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 말고 가급적이면 같이 끝까지 하는 것... 그게 가능할지 모르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자식들에게 염려끼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는 것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돈은 연금생활자이니 경제적 여유는 있는 편이고 시간적 여유도 함께 즐기면서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는 거죠(사례17)
 - 90세까지 살려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니까.. 경제력 그나마도 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살면 되고 자녀들만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면 더 바랄게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건강... 배우자와 내 건강 끝날 때까지는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부담주지 않고 부부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소박한 노후의 바람이죠(사례18)
-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노후의 삶에 대한 상(image)은 면접 참여자들이 경험한 ‘세대 간의 돌봄’을 통해서 내면화 되어 있는 모습으

로 보임. 즉 그들의 부모세대가 젊어서 자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정작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생활을 돌보지 않아 결국 노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자녀의 짐’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노후만큼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거나 다짐하는 경우도 있었음

- 저희 엄마는 82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을 그렇게 다녀도 암이라는 진단이 없었고 큰 병원을 가도 오진이 나와 암인줄 몰랐죠..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을 위해 사시더라고요. 공부를 마치지 않은 막내딸에게 재산을 다 퍼붓고 정작 당신은 병원에도 가지 않으면서....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살더라고요..그래서 나는 참 저렇게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사례5)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저분을 얼마나 만났는지? 짜증나고 불편한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내가 만들지는 않았는지? 병들었으니 부담되고 솔직히 부모지만 그런 감정이 있다가..(중략) 나도 내가 나중에 그런(부모모습)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고 뭘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사례3)

○ 즉 여성의 부양경험은 자신의 노후모습을 설계하거나 부양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년자녀와 노부모 세대와의 세대관계가 노후준비 행동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노부모와 돌보거나 동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관이 약할 경우,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독립성을 강조하고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강유진, 2005)

3) 노후준비와 정책욕구

①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현재에 발목 잡힌 삶, 뒤늦은 자각

- 면접참여자들은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제적인 노후준비만을 떠올렸으며 건강이나 취미와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의 정서적 준비 등의 노후준비와는 분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음

-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 면접참여자들은 현재 경제 상태가 여유가 없어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정도의 ‘최소한의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있거나 ‘노후자금이나 노후준비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유형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임
- 경제적 노후준비를 못하는 경우는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월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였고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한 생활고, 건강문제로 인한 병원비 지출 등으로 노후를 위한 준비는 거의 하지 못하였다고 말함
- 팍팍한 생활 때문에 그나마 노후를 위한 적금을 해지 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고 때문에 늘어나는 가게 빚, 부모부양 등으로 노후준비는 생각도 못해보는 등 현재의 삶에 발목을 잡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자녀들 키우느라 바빠서 지금까지의 제 삶을 자녀들에게 올인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그나마 연금이라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긴 하지만 연금으로는 부족하죠.(사례9)
- 연금이나 보험같은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큰딸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계속 해왔고, 남편이 실직하고 공백기간이 많았어요. 그 뒤엔 일을 하기는 해도 보수가 적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경제적인 소득을 위해서 투잡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후라는 걸 생각도 해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사례4)
-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보험을 조금 들어놓은 것 외에는 나를 위한 노후준비나 적금 같은 것 자체를 꿈도 못 꿔요. 그나마 있는 것도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다 없애버리니까요(사례5)
- 시댁이랑 친정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자녀가 없다보니까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만 그런만큼 부모님들께 자꾸 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남편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업종이 점점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2~3년이면 시대변화에 따라 없어질 영역이기 때문에 불안

한 상황이에요.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나한테 뭘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를 위해 돈을 쓰고, 미리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하는 것에 굉장히 야박했던 것 같아요(사례3)

- 노후를 위한 준비나 노후대책이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노후는 아직 할 나이도 안되었지만요. 그냥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평상시 살던 대로 죽 살면 노후대책을 굳이 꼭 따로 할 필요가 있나...? 노후대책 노후준비... 뭐 그런 것 방송이나 어디가든 하던데 농촌에서는 굳이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낄걸요(사례14)

○ 일부 면접참여자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거나 관심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면접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이제껏 노후준비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는데’ 인터뷰를 한다고 사전에 전화를 받게 되어 그때부터 자신의 노후준비를 뒤돌아보았다거나 ‘평소에 노후준비에 대해 별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면접참여자들도 있었으며 이는 주로 농촌여성이나 자영업, 전업주부들에게서 나타났음

- 인터뷰를 하다보니 지금부터라도 노후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노후준비라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죠(사례6)
-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지나쳤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 우리가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데 몸도 챙겨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몸이 망가지면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사례 13)

○ 면접참여자들은 노후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세워보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하거나 남편에게만 의존하고 경제관념을 갖지 못하고 생활해온 것을 후회하기도 함. 뒤늦은 자각이지만 노후준비는 이른 나이부터 해야 됨을 강조하기도 함

- 돈 같은건 남편이 전부 관리해왔거든요. 저는 복잡해서 금융하러 은행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따로 통장을 만들어둘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정엄마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엄마가‘아무래도 네 돈이 좀 있어야 된다,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사냐’고 하셨거든요. 한 40대부터는 준비를 했어야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죠(사례13)
- 30대부터는 노후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 해야지 제 나이 되어서 노후준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노후준비,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현재로서는 경제력이 없는거죠. 연금밖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연금을 쪼개서 쓰는 계획밖에 없어요. (사례9)
-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한 40대부터는 노후준비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아이들에게 얹매이다보니까 저를 돌보지 못했는데 지금 40대인 후배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노후준비를 지금부터해라, 아주 소량이라도 지금부터 해야한다.(사례5)

② 노후준비 주체 : 의존적, 독립적, 부차적 양상

- 남녀 간 노후준비 실태를 비교한 많은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준비율과 준비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수입원을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근로소득, 자녀지원, 정부보조 항목 등에서도 우리나라 남녀 간의 차이가 다른 국가보다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이상우, 2018)
- 이러한 문제는 특히 현재의 중노년 여성세대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나 남녀의 비대칭적 취업구조 등 젠더차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 노후준비율과 준비능력의 남녀 간 차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도 가정의 경제권을 주도하거나 생계부양자인 남편을 중심으로 노후준비가 이루어지는 가부장적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짐

-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노후준비에 있어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남편과는 별개로 여성 스스로 ‘독립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거나 노후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생계에 떠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부차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음
- 다음의 사례는 가정의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거나 가정의 재정살림을 남편이 주도하고 있는 가부장적 분위기로 인해 노후준비를 수동적으로 하고 있는 ‘남편의존’ 사례에 해당함. 이들은 노후준비를 ‘남편의 국민연금’만으로 대비하고 있거나, ‘모든 수입을 남편이 관리’하거나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면접참여자들은 남편 주도의 경제권이나 가정살림에 대해 ‘불안’하거나 ‘바보가 되는 느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농촌’에 거주하거나 ‘주부’들로 무급 가족종사자에 해당하고 있음
 - 저는 경제권이 없어서 소득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신랑이 다 알아서 아니까요.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니까 부채는 있겠죠.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노후준비도 영감이 알아서 했겠죠. 신랑이 국민연금 들어놓은 거 이제 타먹어야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해요 아마 우리 신랑 죽으면 못 살 거라고. 뭘 알아야 살지.(사례1)
 - 집안의 모든 수입을 남편이 관리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ATM기에서 돈을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저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심부름 같은 것도 시키고 하면 되는데 남편 성격이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성격이라.. 저는 카드가지고 다니면서 굿기만 해요. (중략)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 해봤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시키지 않고 날 바보로 만드냐, 당신이 나중에 사고나 어떤 경우에 치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건 생각 안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일 없을거라고 생각하나봐요. 우리는 정말 궁지에 몰릴 때는 너무 바보예요.(사례13)
 - 저는 집안일만 하고 모든 걸 남편한테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면에 약간 불안감은 있어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남편이 일을 못

하게 된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되나.. 그런 배우자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활하나 만약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좀 편찮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사례7)

○ 한편, 노후준비에 대해 일찍이 인식을 하고 있거나 자신의 노후생활을 주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독립적’ 형태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례6, 사례5, 사례10은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거나 ‘남편에 의존’하지 않고 개별적인 각자의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

○ 노후준비에 대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의식을 하고 있는 이들 사례에 해당하는 면접참여자들은 이혼(사례6)이나 별거(사례5)에 해당하거나 남편의 직업 활동이 가정경제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례 10에 해당함. 이들 사례는 모두 현재 실질적인 ‘가정의 생계부양자’나 ‘가장역할’을 하고 있어 배우자의 유무나 배우자의 직업활동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음

-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보니까 결국 나는 나고 자녀는 자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한다고 해도 자기들이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이만큼 모아놓고 이게 네 결혼 자금이다 해서 주고 그런거 저는 생각 안해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했다고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거나, 노후에 손자를 봐줘야 한다거나 그런 것에는 공감이 안돼요. 그리고 결혼 같은걸 책임져주지 않는 만큼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간병사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 같은 것도 많으니까 자녀에게 도와달라거나 그러지 않을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아이에게 집착하거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가 나한테 이러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사례6)

- 제 또래 많은 엄마들이 모든걸 자식에게 헌신하잖아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남에게 끌리지 않게 필요하다면 뭐든지 해줘야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졸업하고 크고 성인이 되면 부

모 품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느낀거예요. 재들이 내가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서 그때부터 내 노후가 걱정이 되는거죠. 나 잘못살았다, 큰일 났다. 그제서야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친구들 만나면 많이 느껴요. 저 친구처럼 저렇게 아프면 안되겠다. 저 친구는 아직도 아이에게 저렇게 얹매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나는 저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러면서 저를 더 챙기는 거죠.(사례5)

- 저희 부부는 남편은 남편이고 저는 저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물론 동반자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지만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취미가 있고 저도 제가 하고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노후에 남편에 대한 걱정을 하지는 않아요. 남편도 저도 각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사례10)

○ 노후준비로는 유일하게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정도에 가입을 하였지만 그것도 ‘남편만 가입’을 하였거나 부부가 가입을 하였어도 ‘생활고’로 인해 도중에 ‘연금불입 정지’ 등을 하는 사례들도 있어 이들의 노후준비는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차적인 형태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부차적인 노후준비 사례는 의존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례 7>이나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는 <사례5>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면접참여자들의 현재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이나 수준의 단면을 엿볼 수 있음. 즉 이들에게 있어 노후준비는 현재생활이 보장될 때 ‘잉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으로 노후생활을 위한 의무나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 국민연금은 하나만 넣었지. 남편 것만..(중략)그 당시에는 한집에 하나씩만 줬어요. 나중에 얼마 있다가 둘 다하라고..부부 둘 다하라고 그런데 그때는 안 넣었어요. 그때는 명청했죠(사례12)
- 예전에 국민연금을 들었었는데 그건 넣다가 중지했어요. 국민연금을 내다보니까 솔직히 너무 벅차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좀 금액을 감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감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 하나 있다는 이유로 돈을 많이 내야하니까 그걸 내는 게 너무 벅차더라고요. 내가 내는 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넣다가 이제는 안 넣어요. (사례5)

- 남편 국민연금은 불입기간이 끝났고 저는 9년 4개월 동안 넣었고 8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작년에 정지시켰어요. 좀 여유가 없어서요. 이제 여유가 생기면 다시 채우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사례7)

③ 노후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 : 자녀교육비와 결혼비용

- 중년여성들에게 있어 자녀의 존재는 현재 뿐 아니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노후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바 있음 이여봉(2011)은 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혼의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 뿐 아니라 노후에까지 보살펴야 할 책임으로 여겨지고 드물지 않게 기혼 자녀 역시 부모의 지원 범위 안에 있다고 봄
- 이러한 경향은 낀 세대라고 불리는 베이비붐세대의 경우 더욱 뚜렷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이들 베이비붐세대는 절대빈곤 시기에 유년기를 보내고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부모세대에 의해 높은 교육을 받았던 베이비붐세대는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개별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더 크게 장기적으로 지고 가는 경향성을 보임 (이여봉, 2011; 강혜원, 2016; 심우정 외, 2016)
-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인 중고령여성은 가족의 발달과업주기 상 자녀가 결혼과 취업에 즈음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녀관은 앞서 기술한 베이비붐세대의 자녀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있어 자녀는 일관되게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었음
- 다음의 사례4, 사례5, 사례10에 해당하는 면접참여자들은 자녀만을 위해서 살다보니 자신의 노후준비는 뒷전이었거나 자녀의 취업준비 지원이나 결혼을 앞두고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려는 계획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준비 자체를 생각할 수 없었거나 잠시 유보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었음

- 노후는 아이들에 대한 경제적 뒷바라지가 끝났을 때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 대학원까지 보내고 나면.. 그 이후가 나의 노후를 준비하고 그때부터 나를 찾는거죠. 그 전까지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다보니까 내가 내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자식 위해서만 살았으니까.(사례4)

- 노후준비에 대해서 생각은 했어요. 마음 속에는 노후준비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거기까지 준비하기엔 여력이 없었죠. 노후준비를 우선으로 하기에는 자녀들이 출가를 안했기 때문에 제 노후준비보다는 아이들을 어떻게 출가를 시켜야 할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직장을 어디로 어떻게 잡을건지 이런 것들을 신경쓰다 보니까 아이들과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신경쓰지 내 노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려 마음이 없었어요. 노후준비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난 거죠(사례7)

○ 이외에도 면접참여자들은 최근의 청년실업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미취업으로 인하여 결혼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자녀들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음을 토로함. 또한 부부가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여유있게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자녀의 취업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양으로 인하여 그 연금이 다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음

○ 베이비붐세대에 해당하는 이들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까지만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등 그 이전세대와는 다른 자녀관을 갖고 있기는 하여도 실제로는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결혼 때 주택마련을 위한 비용까지는 지원하는 게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자녀가치관이 혼재되어 나타났음

-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아직 결혼도 안하고 취업도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상 아직까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거죠.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되요. 제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싶어요.(사례10)

- 요즘 최대 관심사는 자녀들 취업과 결혼문제예요. 아이들 취업도 하고 결혼시키고 나면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제가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면 자녀들이 일단 제때제때 취직하고 결혼해야지 제 짐이 반절 이상 놓일 것 같아요.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자식들이 아직 취업도, 결혼도 안했는데... 그래서 둘다 공무원생활을 해서 연금을 풍족히 받고는 있지만 연금을 받아도 그것이 다 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17)

-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신랑은 결혼비용을 안 보태준다고 하지만 제 마음을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게 없어서 어렵게 살았으니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집 살 때 1~2천만원이라도 보태주고 싶은데 신랑은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대학까지 보내줬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2천만원 보태준다고 그게 보탬이 될까 싶기도 하고(사례14)

○ 자녀세대가 처한 현재의 불황과 역경으로 인해 성인자녀에게 노후를 기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후까지도 자녀를 지원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여봉, 2011)은 자녀에 대한 투자가 노후의 어려움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음

○ 자녀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는 식의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청년의 고용문제가 궁극적으로 중년의 노후문제와 함께 엮일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가족은 여전히 개인 삶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가치이며 핵심적인 삶의 원리에 해당하고 있음(장경섭 2001; 강유진, 2005에서 재인용)

④ 노후영역별 준비와 평가 : 건강보험 위주의 노후준비

○ 노후준비 영역은 구체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취미와 여가활동, 대인관계(정서적) 준비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면접 참여자들 대부분이 노후준비를 경제적 준비로만 환원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 경제적 노후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남편에게 의존적이거나 남편만이 연금에 가입하여 중고령여성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거나 미가입도 많아 노후의 정기적인 현금수입이 부족하여 노후빈곤이 예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노후준비에서 가장 중요한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아프면 병원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애들한테 신세 안져도 되고요.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거죠.(사례12)

- 노후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부분 같아요. 돈이 없으면 생각만 많지 실행을 할 수 없으니까요. 경제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독립을 못 했고, 남편하고 제 연금이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그걸로는 충당하기가 힘들죠. 제가 만약 일을 안한다면 남편도 언제까지 돈을 벌지 모르는거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의탁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해요.(사례10)

- 제가 나이 먹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돈이에요. 아시다시피 요즘은 돈이 없으면 자식이 나를 안 찾아요. 일단 돈이 있으면 자식이 한 번이라도 오고, 전화라도 한 번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자식에게 전화하는 것부터 자식이 불편해 할 것 같아요.(사례5)

- 노후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돈이 가장 중요하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야한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어요. 노후준비라고 하면 돈만 많이 모아놔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사례4)

○ 노후준비 영역에 있어서 신체적 준비는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음.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 행복감, 생활만족도, 삶의 질 등 소위 성공적인 노후를 평가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노인의 건강수준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음(이정화, 2009; 강유진, 2005; 김백수 외, 2010; 진주영, 2016)

-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들도 노후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대부분 경제적 준비와 건강관리를 떠올렸으며 노년기에 건강상 어려움을 겪을 것을 불안해 하기도 함. 그러나 건강을 위한 노후준비의 구체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건강보조제를 먹는다거나 음식을 조심한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실비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등에 대부분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과 더불어 가입배경에는 장수화 된 고령사회에 대한 불안,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거나 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등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았음
- 행복한 노후가 되려면 건강이 가장 우선시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이 무의미해지잖아요. 주변 사람들이나 자식들에게 폐를 많이 끼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서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돈도 여의치 않은데 건강도 좋지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거 하고 그런 건강한 삶,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살면서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사례7)
- 저는 제가 늙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정신이 올바르게 않게 되는 것 이에요. 늙으면 치매 같은 것들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었는데 집에서 돌보다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 괜찮은데 경제적인 부양까지도 혼자 다 해야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도 안들고 오래 살면 자식들에게 피해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사례14)
- 국민연금이나 연금보험은 남편 앞으로만 들었는데 건강보험은 실비, 암, 치매보험을 저부터 아들까지 가족 모두 들었어요. 그래서 아플 때 걱정은 별로 안돼요. 저는 보험이 제일인 것 같아요. 아플 때 다 보장받고 자식들에게도 부담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보험은 짚짚하게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사례 11)

-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몸이 재산이니까 아프면 일단 고쳐서 살아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질병, 상해 이런 쪽으로는 보험이 다 들어가있죠. 좀 더 젊었을 때도 애들 다 가르치고 나면 내가 몇 살인가를 계산하니까 내 노후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돈은 못 모아도 괜찮지만 아프면 병원은 가야하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사니까 보험을 하나씩 준비 해야겠다.’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사례15)

○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취미나 여가, 교제 등의 부분에서 현재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참여자는 제한적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바쁘게 살아서 지금껏 못해왔지만 향후에는 적극 하고 싶다는 욕구나 계획을 갖고 있었음. 이러한 성향은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농촌 중고령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남

- 옛날에는 책 보는 것도 좋아했는데 시간이 없다보니까, 매일 휴대폰으로 동영상만 보고 있어요. 저는 남들처럼 어디가서 취미생활 그런 것 할 줄도 모르고 농촌에만 매어서 있으니까 시골에서 하루종일 일하고 저녁되면 자고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여가생활 할 시간도 없어요.(사례13)
- 지금까지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늙어서는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즐겁게 살 수 있게 노래도 배우러 다니고 싶고, 춤도 배우러 다니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꽃도 배워보고 싶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고 싶어요.(사례15)

○ 반면 중고령여성들의 사회관계는 자신의 생활반경에서 활동하는 이웃이나 자매 등 가족 등과 만남은 비교적 많았으며 가족 이외에 농민회와 같은 단체 활동 등 확대된 사회관계망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는 농촌여성들도 있었음

- 저희는 가족 중에 세 자매가 가까이 살아서 주말마다 같이 모여서 놀러도 가고 밥도 항상 같이 먹고 그래요. 텃밭농사도 같이 짓고 자주 어울리는게 제 여가인 것 같아요. 여행같은 것도 같이 자주 다니고 하니까 그런 관계에서 많은 위로를 받죠.(사례10)

- 저는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정말 좋은 지인을 만나는 경험이 노후에 대한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성농민회 회장님을 만나서 회장님이 저를 많이 생각해주시고 배려해주세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을 떠나서 인간과의 관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사례2)
- 제가 지금 하는 활동은 주민대책위원회, 생활개선회, 의용소방대, 예비군 이에요. 집에서 가만히 농사짓고, 밥 먹고, 자고, 놀고 그런 것보다 일 하면서 시간나면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면 인맥도 넓히고 사회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이런 활동을 해야지만 한번씩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사례 5)

○ 취미나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의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는 노년기 역할 상실과 관련되어 있음. 노년기에는 다양한 역할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역할상실은 노년기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노후시기에 진입하기 이전에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실천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함

○ 심층면접참여자들은 중고령여성들로 가족의 발달주기에 있어 자녀취업과 결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있고 아직은 생업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미와 여가활동을 담보하거나 향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음. 한편 농촌지역에서는 생활을 거점으로 연계된 여성농민회 활동 등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참여자도 있었음

⑤ 노후준비 정책인지도 및 욕구 : 낮은 인지도, 서비스 효과에 대한 불신

○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후지원법이나 관련 서비스에 대한 면접참여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음. 2015년에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용어도 처음 들었다고 하는 참여자들이 많았고 개인의 노후지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함. 즉 면접참여자들은 노후준비는 사적영역에서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였음

- 노후준비법이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국가에서 그냥 작게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 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있다는 건 몰랐어요.(사례5)
 - 너는 네가 알아서 살어라고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딱 볼 때, 너 볼 났어? 네가 알아서 볼꺼. 이런 게 가끔씩 느껴져요. 국가가. 야 우리한테 알아서 살어라고 하니까 어떻게 같이 힘을 모아? 이러자고 한다고 해도 솔직히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힘이 워낙 나약하다보니.. 그제 우리 국민이고 그제 국가인거죠. 노후준비요? 개인이 알아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사례10)
 -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것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제 생각으로는 노후준비는 개인이 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개인이 준비를 해야지 국가 탓,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건강관리를 안한 것이고 노후준비를 안한 것이고 제 나이때는 나라에서 이런 것을 해주었음 좋겠다, 이런 기대는 없었어요. (사례15)
- 노후준비 관련 진단, 상담, 교육 등에 관한 서비스에 대해 연구자가 설명해주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면접참여자들의 반응은 부정적, 소극적이었음. 일단 교육 자체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단 1회에 한하여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였음.
-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참여자 가운데에도 일부러 본인이 찾아가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찾아와주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단 1회에 한하여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에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후준비 교육 받아볼 생각은 없어요.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말로만 하는거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뉴스보면 지금은 그래도 복지사회가 돼서 노인들한테 노인연금도 주고 복지관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야하는데 말로만 어떻게 설계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설계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래서 교육은 별로 안 받아보고 싶어요.(사례8)

- 제 생각엔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도 거기 가서 상담 받는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담 받아도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받으려는 안 갈 것 같아요.(사례4)
- 제가 굳이 찾아가지 않고 그쪽에서 찾아와서 해준다고 하면 받아볼 의향은 있어요. 무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이니까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죠. 자주는 아니고 한 번쯤은 받아볼 생각은 있어요. 자주는 필요 없고 딱 한번은 들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례1)

4. 소결

1) 전북 중고령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보장 특성

- 2018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고령인구 구성비(19.5%)가 높은 전북은 2045년에는 41.9%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전북의 중고령세대 가운데 1인가구의 비율은 23.9%로 전국 (21.2%)보다 높고 1인 가구의 대다수가 여성노인이며,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불균형(70.6명) 현상 등 전북 노인인구 특성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
- 중고령 인구의 지역별 분포는 진안군(28.2%)>장수군(27.5%)>무주군(27.4%)>부안군(27.2%) 순으로 군 지역에서의 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북 중고령세대의 성별·지역별 학력 차는 매우 큰 편으로 미취학 학력자의 경우 여성 71.6% 남성 28.4%이고 대졸 이상 학력자는 남성 66.2%, 여성 33.8%으로 저학력일수록 여성이, 고학력일수록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읍면부에 거주하는 여성의 66.9%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로 동부의 40.4%보다 높게 나타남. 학력이 높을수록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읍면부 중고령여성은 노후준비 취약계층에 해당
- 중고령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있어 전북여성 임금근로자는 50.2%, 전국은 61.0%로 전북이 전국보다 낮았으며 여성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전북 25.1% 전국 14.7%로 전국 평균보다 10.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북 여성의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점은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무소득 배우자)점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의 취약계층이 많고 그로 인한 노후 여성빈곤 개연성이 크다 할 수 있음
-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성별 편차가 큰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2017년 기준 40.3%이며 전북은 46.3%로 17개 시도 중 5번째로 여성가입자 비율이 높아 국민연금 여성가입자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민연금 연령별 가입자 특성으로는 전북은 55~59세

연령대 가입자가 18.3%로 가장 많고 전국은 45~49세 연령가입자 수가 16.1%로 가장 많음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고령자부가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55세~79세의 동일 연령대 인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반면 연금수령자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8년 기준 55세~79세의 인구대비 연금수령자는 45.5%이고 이 가운데 남성은 49.7% 여성은 41.8%로 연금수령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2018년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57만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액 연금수령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월10~24만원의 소액연금수령자가 61.4%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 이상의 고액연금수령자는 남성 14.8%에 비해 여성은 불과 4.2%에 지나지 않아 연금수령액의 성별 격차가 컸음

2) 설문조사 분석결과

- 첫째, 노후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은 평균 64.6세이고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7.0%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시기'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 등으로 보고 있음. 이는 소득상실이나 건강상태의 악화와 같은 취약한 상태에 들어서는 시점을 노후의 시작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인식은 노후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와도 일치하고 있었음. 즉 노후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병이나 죽음 등의 '건강관련 문제'와 소득상실 등 '경제문제'를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노후준비의 주체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5점 만점 척도에서 4.6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노후준비 불안도는 3.2점으로 대체로 노후불안 인식 정도가 높은 편임.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노후준비 불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후준비와 역량에 있어 계층적 차별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노후준비 주체나 의존도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평균

4.4점, 배우자 3.8점, 정부 3.6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노후준비에 대한 의식이 높고 정부에 대한 노후의존이나 기대는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하는 중고령 여성들의 노후부양관을 엿볼 수 있는 사항으로 자녀로부터의 노후부양에 대한 기대는 낮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셋째, 건강, 재무나 경제, 대인관계, 취미와 여가활동 등 각 영역별 노후준비정도에 대해 살펴 본 결과, ‘건강’에 대한 준비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취미와 여가생활’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과 미취업 여성,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취미와 여가생활에 대한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와 여가생활은 노후생활의 역할이나 무위하지 않는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수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한편, 노후준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8.8%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로 응답함. 노후준비에 대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점은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취업여부 및 배우자 유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아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는 데 60~65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노후에 예상되는 연금수령액과 노후대비 소득마련 수단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었음. 60~65세 연령대는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가족발달 주기 상 ‘자녀교육과 결혼준비’에 맞물려 있는 점, 배우자나 본인의 퇴직이라는 시점과도 겹쳐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후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넷째, 중고령여성들의 노후준비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각 분야별 역량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역량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나 ‘경제적 준비(저축, 연금, 보험 등)’와 ‘노후에 일을 하기 위한 취창업에 관한 정보와 방법’ 등이 가장 취약한 것

으로 나타났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저축이나 연금, 보험 등 경제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39.6%에 지나지 않아 전국 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음. 노후에 일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비율도 22.4%에 지나지 않아 전국 조사(43.2%)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소득창출이나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음. 노후 여성빈곤을 예방하고 생산적인 노후 활동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과 일자리에 대한 노후준비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다섯째, 노후준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 경제, 건강, 여가 및 대인관계 등으로 개별항목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노후준비는 지역, 학력, 가구소득별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시에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층의 노후준비가 구조적으로 계층화 되고 있음을 시사. 이러한 경제적 노후준비의 계층화는 노후빈곤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전환되고, 경제적 노후준비의 수준에 따라 여가와 문화 등의 활동적 노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의미함. 경제적 노후준비의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 일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나 저축이나 금융상품, 정보수집 행위보다는 ‘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할 기회와 의향’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응답률이 높았음. 따라서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 차원의 복지-일자리 연계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신체적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연령과 가구소득별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신체적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신체적 노후준비의 구체적 행위에 있어서는 ‘병원에서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가장 잘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규칙적인 운동’은 가장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섯째, 노후준비 여건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가구원 소득은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의 비중이 컸으며 부동산이나 금융소득과 같은 2차 가

구소득원이 있는 응답자도 10% 범주 안에 있어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낮은 편임.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상품 및 소득마련 수단으로는 ‘질병보험, 실비보험’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사적 시장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가입에 있어서는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률은 비교적 높았으나 부부 중 한사람만 가입한 경우도 27.3%나 되고 있음. 부부 중 한사람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들이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에 대한 미흡한 노후소득보장은 여성의 빈곤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음. 노후예상 연금 수령액(50만원 이하가 37.8%)과 노후 적정생활비 사이(200~300만원, 63.2%)에는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후 소득준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의향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향후 근로활동 의향은 62.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국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근로활동 의향은 가구소득이 낮고 중졸 이하에서 그리고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집단에서 근로활동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근로활동 이유로는 소득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응답률이 51.1%에 해당하고 있어 노후 일에 대한 의미는 자기발전이나 여가 및 사회활동 등의 가치보다는 소득보전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들이 원하는 근로형태도 시간제 주2-3일의 근무와 전일제 중 주2-3일 근무형태를 원하고 있었으며 전일제 주5일 근무 형태는 16.2%에 불과하였음

- 일곱째,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경험 및 욕구를 분석한 결과,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을 이용한 비율은 15.9%에 불과하였고 서비스 이용기관으로는 60% 이상이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이용율은 지역별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도시지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촌지역이나 도농지역은 서비스 인프라와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보임. 또한 노후설계 서비스(교육 및 상담)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취업여성은 ‘일 때문에 바빠서’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미취업여성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라는 응답

률이 높았음. 노후설계관련 서비스 경험은 개인의 노후준비와 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접근성과 서비스 대상 확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향후 받고 싶은 노후설계 서비스 부분에서는 건강>사회적 관계>여가>재무>일>노년노화에 대한 이해>사회공헌>자기학습>귀농 및 귀촌에 대한 상담 순으로 나타남

3) 심층면접 분석결과

- 심층면접 결과, 노후에 대한 인식과 기대, 이를 토대로 한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중고령여성의 공통점과 여성집단 내의 차이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우선 공통점으로는 노후의 시작시기, 노후에도 소득이 되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점, 노후준비 중 건강에 대한 준비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점, 노후준비의 가장 걸림돌이나 불안요소를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생활’로 보는 견해, 노후준비의 주체는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견해 등에 있어서는 중고령여성의 연령, 학력, 거주지, 노동이력이나 직업경력에 관계없이 유사한 관점이나 견해를 갖고 있었음
 - 노후의 시작시기를 대부분 건강과 기력이 쇠퇴하는 70세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에게 노후는 아직 ‘먼 훗날’로 간주되고 있어서 노후준비나 노후인식에 대한 체감도는 비교적 낮았음. 또한 70세를 노후로 보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의 기준인 65세 노인과는 약 5년~15년(50세 중반을 평균 퇴직연령으로 볼 때)의 시간적 gap을 극복할 수 있는 중고령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노후에 가장 불안하고 염려되는 일로는 ‘경제와 건강’이었으며 건강문제나 노인성 질환으로 자녀에게 부담이 되거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얼마간의 소득이 창출되는 (노인형)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었음. 기존의 노인형 일자리(가사도우미, 청소, 요양보호사)보다는 소득이 많지는 않아도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새일센터 등 여성취업교육기관은 ‘경력단절여성’만이 아닌 ‘중고령여성’ 일자리와 취업교육 개발 필요성을 시사

- 노후준비는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취미나 여가 등의 정서적 준비와 가족이나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준비 등의 다차원적 준비로 구성되는 점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의 인지는 매우 낮았음. 노후준비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일부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직업경력이 안정적인 여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득보장 준비정도나 수준은 낮은 편임. 다만 건강에 대한 염려들이 큰 탓인지 사적시장에서의 건강보험(실비보험, 치매보험, 요양보험, 암보험 등) 준비는 매우 잘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입되어 있었음. 그러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준비 외에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의 구체적인 신체적 노후준비는 부족한 편이었음
- 노후준비에 있어 어려운 점이나 걸림돌로는 '자녀의 교육이나 결혼준비'로 응답한 경우가 많아 자녀의 교육과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노후준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음. 이는 중고령여성 대부분이 가족발달주기 상 자녀의 결혼이나 교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자녀'에 대한 변수는 노후준비에 있어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 변수임을 알 수 있었음
- 예를 들어 본격적으로 노후가 시작되는 시점도 '자녀의 출가'로 보거나 개인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에 대한 견해도 대다수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로 받아들이는 노후부양관을 갖고 있는 점 등은 노후와 자녀가 매우 밀접한 상호 영향력있는 변수임을 반증함
- 이러한 심층면접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자녀)은 여전히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가치이며, 핵심적인 삶의 원리(장경섭, 2001;강유진,2005)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임
- ㄹ 또한 이들 중고령세대는 대부분 베이비붐세대들로 이들은 변화하는 가족가치관을 수용하고 있는 '끼인 세대'로서 가족 내에서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해왔거나 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독립적인 노년기를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 세대(장경섭, 2001;강유진,2005)라는 점에서 자녀 지원이 계층에 따라서는 노후의 열악한 삶으로 직결 될 수 있다는 점임
- 한편 이들은 노후준비에 대한 국가적, 정책적 지원제도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며 노후준비의 주체는 개인 스스로 해야하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인 양상을 보였음

- 노후에 대한 인식과 노후준비 등에 있어 여성집단 내의 차이점으로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 노후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거나 ‘삶의 연속’으로 보는 이분화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사회적 관계나 여가활동 등의 노후준비 기반이 도농간 매우 다르다는 점임
-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등 경제적 노후준비의 주체에 있어서는 주로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독립적으로 혼자서 준비하는 유형, 필요성은 공감하나 생활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우선순위에 밀리는 부차적으로 준비하는 유형 등으로 종교·경력·성별·거주지역과 학력, 직업 경력 등에 있어 차이를 보였음. 경제적 노후준비에 있어 가부장적 문화가 존속하는 농촌에 거주하거나 또한 농업이나 자영업 등 무급 가족종사자로 일하는 여성들은 주로 국민연금가입 여부, 연금의 유지 중단 등에 관련된 의사결정 등을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남편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음. 이러한 점은 여성 주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개별적 수급권을 갖기보다는 남편에 의한 파생적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의 젠더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임
 - 노후를 바라보는 관점이 ‘삶의 전환’이나 ‘삶의 연속’으로 이분화 되고 있다는 점은 노후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심층면접 참여자 가운데 노후를 ‘삶의 전환’으로 보는 시각은 임금근로자로서 ‘퇴직’이나 ‘은퇴’라는 생애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노후를 삶의 전환으로 의식하고 있었음.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이나 경력,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사회봉사나 같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있었고 직장생활로 인해 미루어두었던 취미나 여가,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생교육 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활동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있었음. 반면 ‘삶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농업인이나 주부와 같은 무급 가족종사자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들은 노후가 특별한 인생의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이제껏 생활해온 삶의 연속선상에서 노동의 연장, 생활의 연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서인지 노후준비 필요성이나 노후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해 다소 의문이나 부정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면접참여자도 있었음
 - 노후준비를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취미나 여가 등의 정서적 준비와 가족이나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준비 등의 다차원적 준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농촌여성들은 취미나 여가관련 정서적 준비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이는 노동과 여가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노동의 특성과 취미나 여가 등의 인프라 부족, 이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의 제한 때문으로 보임. 반면 농촌거주 여성들은 도시에 비해 이웃이나 마을사람들과의 접촉빈도와 접촉횟수 등이 빈번하였으며 농사일을 매개로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해 나가는 특성이 있었음

5

장

논의 및 정책제언

Jeonbuk Institute

-
1. 주요결과 및 논의
 2. 정책제언

제 5 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및 논의

-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2030년에 100세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50대 후반에 퇴직하면 길게는 40~45년에 해당하는 장기화된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정책적·학문적 관심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노후준비나 노후설계가 대부분 남성은퇴자를 모델로 하고 있어 여성의 생애경험과 특성 등 성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노후준비에 있어 여성의 실태와 경험, 욕구 등의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노후준비에 있어 여성의 상황이 남성보다 더 취약하기 때문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낮아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장이 미흡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의 주변적 일자리와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자산이 적은 점 등은 생애 누적빈곤으로 작용하여 여성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이러한 경제적 노후준비의 취약성은 건강과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등의 다차원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쳐 노후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노후준비에만 치우쳐 왔음. 따라서 노후준비에서의 젠더적 관점과 다차원적인 여성 노후준비 실태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65세에 해당하는 중고령여성의 경제,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여,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년기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노후준비의 지표와 주요 변수 등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구체화하였으며 2)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토대로 노후생활에 관한 시계열적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전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또한 노후준비에 관한 정책 흐름과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지역차원의 노후준비 정책 방향성과 시사점을 도출함. 3)50~65세에 해당하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인식과 기대, 노후준비 현황 및 구체적 행위, 노후준비를 위한 경제적 여건, 노후서비스 이용 및 욕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4)FGI를 실시하여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노후준비에 관한 다차원적이고 다각적인 경험과 견해를 분석하였음. 이상의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전북 중고령여성 임금근로자 비율 낮고 무급 가족종사자 비율 높음

- 2015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중고령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있어 전북은 임금근로자 비율이 50.2%(전국 61.0%)이고 무급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5.1%(전국14.7%)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무소득배우자)되는 비율이 높음
- 또한 중고령세대 가운데 1인가구의 비율이 2018년 현재 23.9%로 전국의 21.2%보다 높고 65세 이상 인구의 성비불균형(70.6명)이 심하게 나타남. 또한 중고령층의 미취학 학력자는 남성(28.4%)에 비해 여성(71.6%)의 비율이 높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은 여성(33.8%)보다 남성(66.9%)이 높음.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변인 중 소득과 학력은 서로 상관성이 높아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전북 중고령여성 인구학적 특성이 시사하는 점은 노후소득보장 취약계층이 많고 그로 인한 여성노인 빈곤 개연성이 크다는 점임. 따라서 여성노인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전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후준비 지원정책은 시급성과 우선순위가 요구되며 노인복지정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임

나. 공적연금가입률과 수령액은 낮고 노후적정생활비와의 격차는 큼

- 2015년 기준 전북의 국민연금가입률은 68.7%로 전체 가입률 70.2%보다는 낮은 편임. 국민연금가입자 수는 성별 편차가 큰 가운데 2017년 현재 전북 여성의 가입률은 46.3%로 전국 가입률인 44.3%를 약간 상회하고 있음. 성별 편차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40.3%임
- 국민연금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전북 중고령여성 국민연금 가입률은 50~54세는 47.6%, 55~59세는 48.4%, 60세 이상은 70.9%로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높으며 매년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 한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부 둘 다 가입을 해야 하지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부부 중 한명만 가입'한 비율은 27.3%이고 '둘 다 가입안한 경우'는 8.9%로 36.2%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 고령자부가조사에 의하면 2018년 월 평균 연금수령액은 평균 57만원임. 최근 5년 동안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에서 여성은 10~24만원의 소액 연금수령자가 61.4%로 가장 많았고 150만원 이상에서는 남성 14.8% 여성 4.2%로 연금수령액에서의 성별 격차가 컸음. 본 실태조사에서 가구 당 노후 예상연금수령액은 50만원 이하가 3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1/3이 넘는 응답자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연금수령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2017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 의하면 부부 최소 노후생활비는 1,313천원이고 개인은 856천원, 부부 적정 노후생활비는 1,897천원이고 개인은 1,238천원으로 조사됨. 따라서 공적연금 수령액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상황은 최소한의 개인 노후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있어 노후빈곤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한편 본 실태조사에서는 노후 예상생활비가 평균 26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 대비 노후 예상생활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불안정한 노후생활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노후준비가 크게 불충분 하다는 점임
- 더불어 심각한 점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공적연금 가입률

이 낮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FGI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무급 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 주부들은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연금가입을 남편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노후준비에 있어 남편의존 성향이 높았음. 또한 연금을 받더라도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7년이 더 긴 여성들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개별적 수급권이 아닌 파생적 수급권을 받게 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액의 절대액 부족으로 인한 여성노인빈곤 개연성이 크다는 점임

다. 노후시작 연령은 64.6세, 퇴직에서 노후진입까지 10년 간 gap 극복방안 필요

-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를 본 설문조사에서는 64.6세, FGI 조사에서는 70세부터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 나타나는 노후시작 시기는 제4차에서 67.6세 제7차에서는 68.5세로 매년 노후시작 시기를 늦게 인식하는 경향이 보임. 노후시작 시기를 늦추는 경향은 건강하고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노년기에 대한 지연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노후가 시작된다고 인식하는 사건도 절반이 넘는 57.0%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시기’와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로 보고 있어 소득상실이나 건강상태의 악화와 같은 취약한 상태에 들어서는 시점을 노후시작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가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하는 것과 달리 기능적인 측면에서 노화를 경험할 때 노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을 의미함(이정화, 2009)
- 그러나 우리사회의 평균 퇴직연령은 57세로(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8) 대부분 50대 중반에 은퇴를 한다고 보면 노후 진입시기까지 10년 간의 gap이 생김. 더욱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2030년에 100세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후시기를 70세로 보면 은퇴 이후의 기간이 30년에 이르게 됨

-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생애주기 모델에서는 교육30년: 근로30년: 은퇴20년으로 산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였으나 이제는 교육30년: 근로40년: 은퇴30년으로 생애주기 모델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이철선, 2010; 양정선, 2011 재인용)
- 따라서 50대 중반에 은퇴해서 노후 진입시기까지 10년 간의 gap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경제·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교육과 경력을 살려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인력으로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함

라. 자녀의 의미와 부양책임 인식 높아 노후준비보다 우선

- 본 실태조사에서 중고령여성의 최근의 관심사는 ‘자녀의 교육과 취업, 결혼’이 41.1%이고 ‘본인의 노후준비’는 14.9%에 지나지 않았음. 또한 FGI 조사에서는 이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후나 행복한 노후는 ‘자녀의 안정적인 취업과 결혼’으로 인생에서 자녀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부양의 책임의식이 매우 높았음
-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이 베이비붐세대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 베이비붐세대는 자녀와 부모부양의 이중책임을 진 세대들로서 소위 긴 세대의 자녀부양관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베이비붐세대는 부모부양-자녀부양-자신의 노후준비라는 트라이앵글에서 무게 추를 자녀 쪽에 기울이다 보니 정작 자신의 노후준비는 소홀한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음
- 중고령여성에게 자녀의 졸업, 취업, 결혼 등 성인기의 전이를 완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교육비와 자녀 결혼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노후준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노후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중고령세대의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높은 성향은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녀부양으로 인한 노후준비금 부족과 노후준비 유보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지원방식과 재무설계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 노후 재무설계에서 최소수준의 노후생활비 준비는 현재의 소득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반면, 적정수준의 노후생활 준비는 자녀 및 부모부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도균 외, 2016). 따라서 중고령세대의 노후설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과 부양수준에 대한 한계와 경계설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도 중고령세대의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부양 문제이므로 청년세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노인정책과 연계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함

마. 노후준비 필요성 인식 높지만 전반적인 노후준비는 미흡, 장애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 척도에서 4.6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노후준비 불안도는 3.2점으로 대체로 불안하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은 편임.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 불안도는 높았고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반면 불안도는 낮았음
-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총 점수는 100점 만점에 59.1로 매우 낮았으며 이는 2012년도 ‘노후준비지표개발 및 국민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58.8점과 유사함. 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노후준비 정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음’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음. 가구소득과 학력은 서로 상관성이 높기 때문에 노후준비 인식이나 불안도, 주관적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 가정의 노후준비가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노후준비를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이고 이는 저소득가구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하는 점은 중년기의 경제적 계층의 차이가 이들이 맞이할 노년기에도 계층적 차별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따라서 여성 내부집단 간의 계층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고령여성 가운데 상대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 사업을 추진하고 이들의 노후준비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바. 노후에도 근로활동 의지 높고, 근로활동 이유는 계층 간 상이

- 65세 이후에 근로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62.8%로 여성들의 노후 근로의지는 비교적 높았음. 가구소득과 취업여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고 현재 취업하고 있는 집단에서 근로의지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65세 이후에도 근로할 의향이 높았음
- 65세 이후에도 근로활동을 하려는 이유로는 ‘소득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자기발전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21.3%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소득 때문에 일할 의사를 갖고 있어 노후의 경제적 생활이 취약함을 시사. 소득을 위해 일하려는 의사는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60~65세 연령대와 농촌에서 높았으며 FGI를 통해서도 농기계 및 토지임대료가 높아 건강이 안 좋아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농촌의 열악한 현실이 근로동기와 맞닿아 있었음
- 한편 65세 이후에도 근로활동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37.2%의 대상자들이 근로활동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고 지역을 제외한 모든 인구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특히 퇴직연령에 해당하는 55~59세와 학력수준이 높은 대졸,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계층에서 ‘노후를 즐기기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100세 시대의 길어진 장수사회에서 ‘생산적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를 제기하고 있음
- 현재 중고령세대에게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고령화로

인한 보호대상이 되는 고령자의 인구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의 저하속도에 비하여 공적보호체계의 구축속도가 늦기 때문에 개인-정부(국가)-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함

-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노년에 대한 시각이 ‘의존적 노년’에서 ‘생산적 노년’으로 옮겨가야 하며(이어봉, 2011) 생산적 노년이라 함은 경제·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여하는 점과 개인적으로는 활기찬 노후(박성정 외, 2013), 단순히 노후생계를 위한 하층 노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경력을 살려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인력으로서의 역할이 연장되는 것(이어봉, 2011)이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생산적 노년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단순히 노후를 즐기기 위해 근로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여성이 주로 교육수준이 높고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교육과 경력을 살려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인력으로서 역할 연장이 필요함을 시사
- 본 연구의 FGI에서도 다수의 여성들이 노후에 일하기를 원했으며 그러한 일은 단순한 노동력만 제공하는 ‘자원봉사’보다는 ‘소액이라도 소득이 창출되고 자신의 취미를 살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하는 희망이 높게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100세 시대의 노년기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육30년: 근로40년: 은퇴30년으로 생애주기 모델로의 변화가 필요함. 또한 노동도 1생애에 1직업(양정선, 2011)이라는 시각을 탈피하여야 하며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중고령여성 대상의 커리어개발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여성의 일자리정책도 ‘경력단절여성’에서 ‘중고령여성’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함

사. 노후건강에 대한 염려 높아 건강관련 보험가입을 높지만 건강관리 행동은 미흡

- 노후생활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으로는 ‘질병 및 죽음 등의 건강관련 문제’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영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61.5%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으로 응답함
- 노후준비의 다차원적 영역(건강, 대인관계, 경제, 취미·여가생활)에 대해서 현재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를 가장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점 만점에 평점 3.34점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한편,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항목으로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는 편이다’였으며 신체적 노후준비 중 가장 정도가 낮은 것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유지를 잘하고 있다’는 항목이었음
- FGI 응답에서는 다차원적 영역(건강, 대인관계, 경제, 취미·여가생활)의 노후준비에 대해 다수의 여성들은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설문조사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건강에 대한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이나 치매, 암 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을 많이 들어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건강증진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한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고령장수 사회에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노후준비도 개인들이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임
- 선진국의 경우, 최고의 노인복지정책은 스포츠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를 이미 경험했거나 진입한 서구 유럽 국가들은 고령자의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 확립을 개인적·사회적 과제로 간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

양한 노인스포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령자 신체활동 증진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프로그램과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 특히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예방적 관리체계가 중요함. 따라서 노인의료비 및 사회복지비용 절감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스포츠가 최고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고령자스포츠 정책과 기반 마련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아. 노후준비 관련 제도 인지도 낮고 노후설계 서비스 경험 미흡

- 건강, 대인관계, 경제, 취미·여가생활 등 각 영역별 노후준비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수준은 5점 만점에 평점 3.02부터 3.34점으로 조사대상자들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높게 인식(4.6점)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후준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높은 인식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녀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4.4점)와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는 노후준비(3.8점) 등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자립의지는 비교적 높지만 노후준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총 점수는 100점 만점에 59.1점으로 매우 낮았음
-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FGI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노후준비지원법이나 노후준비 상담과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에 대한 정책인지도가 낮고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극적 반응을 보임.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인터뷰를 계기로 관심과 향후 구체적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함
- 한편, 노후준비는 전반적으로 개인의 학력 및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정책개입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 상태를 향상시키기는 어려움(박성정 외, 2013). 따라서 학력과 소득수준으로 인한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후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은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함. 노후설계서비스 경험은 개인의 노

후준비 인식이나 노후준비의 구체적 행위, 노후준비 역량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임

- 본 설문조사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고령여성은 단 15.9%에 불과하였고 노후설계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몰라서’가 3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 때문에 바빠서’가 26.3%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의 수혜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자. 노후인식, 노후준비, 노후준비 역량수준 등 여성집단 내 격차

- 본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노후준비에 관한 중고령여성의 전체적인 실태파악 뿐 아니라 학력, 지역, 직업, 가구소득, 배우자 유무 등 여성 집단 내의 다양한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에 바탕을 둔 여성 노인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학력과 가구소득이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와 노후준비 역량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은 노후준비의 필요성, 노후준비도 노후역량도 높는데 이는 학력과 가구소득이 서로 상관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이점이 시사하는 바는 노후준비에 계층적 차별성이 작용하고 있고 중년세대의 노후준비가 구조적으로 계층화되어 곧 이들이 맞을 노년기에도 계층적 차별성을 유발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임
- 학력과 소득이 낮아 노후준비도가 낮고 이로 인한 노후불안도가 높은 집단은 주로 저소득가구와 농촌의 무급 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주부들로 이들은 소득활동과 기여금 납부를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고 주로 남편의 연금에만 의존하여 자립적인 노후준비가 취약한 집단임. 따라서 다가올 미래의 노년 여성들 간의 계층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계층을 대상으로 노년준비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지원을 강구해야 함. 저소득층 대상을 타

것으로 하는 적극적인 방문상담이나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외에도 노후인식과 노후준비, 노후역량에 있어 지역과 현재의 취업여부도 유의미한 변수 중 하나였음. 특히 노후에 대한 인식에 있어 도농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FGI를 통해서도 확연히 알 수 있었음. 농촌의 경우 노후를 삶의 전환점이나 제2의 인생이라는 터닝포인트의 관점보다는 노년기 역시 중년에 의한 연속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음. 이들은 늘 해오던 일자리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과 건강이 뒷받침 될 때까지 계속 일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는 여성의 직업이력이나 특성과도 관련성을 갖고 있어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이 ‘은퇴’ 이후 노후의 삶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후준비에 대한 지각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에 직업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임. 여성들의 직업이력은 경력단절, 무급가족종사자, 전업주부, 재취업 등 노동참여에서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만큼 여성내부 안에서의 노후준비 격차를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로 고려되어짐

2. 정책제언

가. 노후준비지원 정책의 성인지 관점 반영

- 정부는 전체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증년’으로 명명하고 이들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집단으로 규정(관계부처합동, 신증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 2017). 이들을 위해 『주된 일자리➡재취업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최초로 발표함.
- 또한 지난 2018년 11월에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서는 현재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을 ‘노후준비 인프라 확충’,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 집중지원’, ‘중장년층 인생3모작을 위한 취업지원 활성화’ 등이 핵심과제로 발표
- 이상 두 개의 중장기 정부정책은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장년 인력활용과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표로 취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중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된 일자리경력이 짧고 재취업이 안 되는 경력단절여성이나 비정규직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현재의 중고령여성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 이외에도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원센터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등을 통해 노후준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 단계의 정부와 지자체 노후준비 지원사업은 ‘남성은퇴자 모델’에 기초하고 있고 ‘재무중심’의 제한적 노후준비 지원과 ‘도시근로자’ 중심의 노후준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따라서 경제활동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제한적이고 경력단절 등으로 인한 생애기간의 소득 불평등, 가족돌봄자로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해 온 대부분의 여성들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음
- 따라서 성별 특성과 경험을 고려한 성 평등한 노후지원 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되며 현 단계에서 노후준비와 관련된

부처별, 분야별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등을 추진하고 노후준비 및 노후설계 관련 성인지 통계 생산이 요구됨

- 현재 노후보장과 관련된 성별영향평가는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2015)』가 있음. 향후 중고령여성 노후준비와 관련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통계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장년고용서비스강화방안(16. 고용부)	-소상공인 경쟁력강화방안 (16.중기청)
-귀농귀촌지원종합계획(16,농림부)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16, 복지부)
-자원봉사진흥시행계획(17,행자부)	-국민노후보장패널 통계(격년, 국민연금연구원)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에 관한 조례(2017)	

나. 은퇴자를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창출과 새일센터 경력설계프로그램 운영

- 노후가 시작되는 시기는 매년 늦추어져 2017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에서는 68.5세이고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64.6세임. 또한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도 57.0%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시기’로 보고 있어 장수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가 갖는 의미가 커짐에 따라 생산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 강화 필요
- 현재 평균 퇴직연령이 55세 ~57세인 점을 감안하면 노후진입까지 약 10년의 gap이 존재하기 때문에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따라서 이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경력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경력설계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
- 또한 본 설문조사에서는 62.8%가 노후에도 일할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전국 노후보장패널조사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는 자신의 취미와 여가가 소득창출과 사회적 공헌에 연계되기를 바라는 여성들이 많아 중고령여성을 대상으로 커리어 개발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사회참여 차원의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함

○ 즉 현재의 중고령여성은 베이비붐세대들로 이들의 사회적 특성은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세대들로 이들이 꿈꾸는 노후는 이전 노인세대와는 많은 측면에서 차별성이 드러남. FGI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베풀며 나누는’ 삶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또한 퇴직 이후에 받는 수많은 평생교육이 단순히 교육으로 소비되지 않고 교육-소득창출-사회공헌이 결합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형 은퇴 일자리 창출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 고용규모는 EU(6.5%)에 비해 한국은 0.54%에 불과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신중년 참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마을기업 설립을 500개로 확대하고 업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농산물 가공·제조와 관광교육·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은퇴형 여성친화업종의 일자리 창출 추진이 필요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 구축(2019년)을 위해 폴리텍을 신중년 특화 캠퍼스로 지정, 운영할 계획임(서울강서, 남인천, 대구, 울산, 동부산, 섬유패션 특성화)
 ➡전국에서 3번째로 고령인구가 높은 전북 선제적 대응 필요
 -사회공헌형일자리 : 관광교육·문화·환경 등 여성친화적 마을기업 확대
 -신중년 사회공헌형 일자리 개발 ➡전북 지역특화여성일자리 창출로 유관직종 발굴

○ 새일센터 등 여성취업교육기관은 그동안 경력단절여성을 타깃으로 취업 지원과 교육을 운영하여 왔으나 ‘경력단절여성’만이 아니라 ‘중고령여성’을 대상으로 경력설계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형 일자리 개발과 지원 등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교육기능을 다각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 100세 시대 노후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재무설계 교육

- 2017년 현재 전북 중고령여성 국민연금 가입률은 50~54세는 47.6%, 55~59세는 48.4%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50% 이하 수준임. 또 이들의 월 평균 연금예상 수령액은 57만 원 정도로 이들이 원하는 노후최소생활비인 86만원과 노후적정생활비 124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
- 국민연금 미가입과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한 저연금문제는 노후의 빈곤과 직결되어 있음. 따라서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중고령여성들에게 다층적인 노후준비는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음
- 이와 같이 중고령여성들의 다층적 노후준비가 불충분한 이유에 대해 기존의 대다수의 연구들은 자녀교육비나 취업지원비, 결혼자금 지원 등 자녀부양에 대한 높은 책임이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고령세대의 노후설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과 부양수준에 대한 한계와 경계설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해왔음
- 따라서 향후 ‘활동적 노년’을 위해서는 자녀양육이나 자녀부양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100세 시대에 부합하는 소득과 지출의 합리적인 운영, 자산축적과 운영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의 노후 재무교육이 주로 금융상품 위주로 진행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농지연금 등의 부동산을 활용한 재무교육을 강화하고 자녀의 결혼과 독립 후 주거규모 축소에 따른 금융자산 증대 방안 등 중고령세대의 생애주기에 맞는 재무교육과 함께 100세 시대를 겨냥하는 자산축적과 운영설계 등의 구체적인 재무설계 교육이 필요함
- 설문조사에서 중고령여성들의 노후준비 역량에 있어 ‘저축이나 연금, 보험 등 경제적으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잘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39.6%)은 전국 단위 조사의 절반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북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지원사업에서는 재무교육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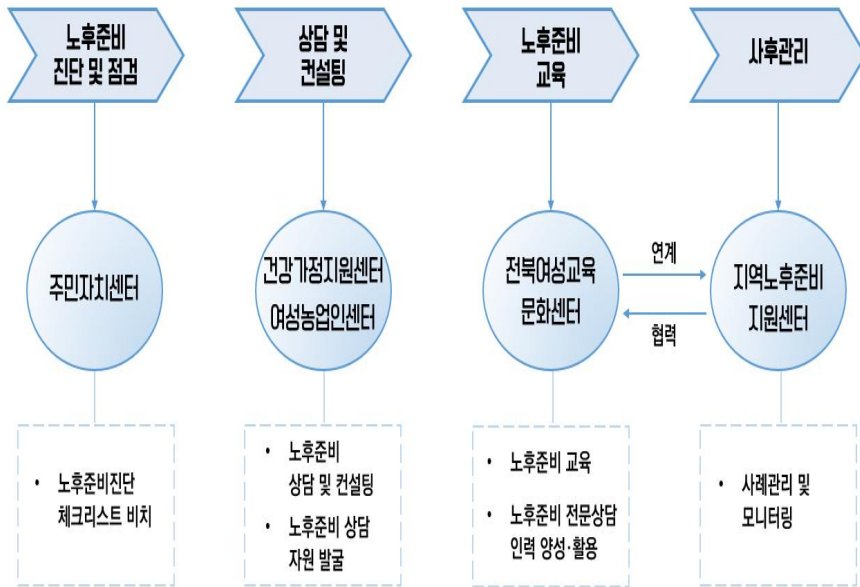
라. 노후준비 취약계층을 위한 아웃리치 사업

- 조사결과,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고 농촌거주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노후준비가 취약한 계층에 해당하며 노후준비 필요성이 가장 큰 집단으로 나타남. 이들은 노후준비도가 낮고 노후불안도도 높지만 노후준비 역량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이 필요함
- 노후준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지만 소득대체율에 못 미치는 저연금 등으로 인해 노후에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연금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 제도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는 소득과 학력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와 방법, 노후 건강관리 방법, 노후 사회적 관계 유지 정보와 방법에 관한 노후준비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노후대비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접근 및 역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확산하더라도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준비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임금근로자로 오래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내용임. 저학력과 저소득층 등 노후준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인식과 정보, 인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후준비 지원 무료프로그램, 전화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마. 다차원적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기반시설 연계

-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대국민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재무영역과 비재무영역에 대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 왔지만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영역 중심의 제한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왔음

-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기관 수가 적어 공간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임. 또한 지금까지의 재무 위주의 노후지원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대인관계·여가 등 네 가지 영역의 다차원적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현재의 중고령층은 최소한의 노후준비는 하고 있으나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노년을 위한 준비는 미흡한 상황으로 중고령층을 위한 여가·취미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서비스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음. 앞으로는 경제적 노후준비와 함께 건강, 여가 및 취미생활, 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각 영역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다차원적 노후준비가 중요함
- 다차원적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노후준비 관련 지역기반시설 연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우선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주민자치센터에 노후준비 진단지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노후준비 정도를 진단하고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2차 단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성농업인센터를 이용하도록 함. 이 단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원발굴이 어려워 본래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한계를 극복·보완 할 수 있음. 노후준비 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성 교육문화센터에 노후준비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교육문화센터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도록 함. 또한 현 단계에서는 이들 기관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으므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노후준비와 노후설계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양성 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노후준비 상담과 컨설팅 이후의 사후관리는 전문기관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담당하도록 함



〈그림 5-1〉 전라북도 중고령여성 노후준비 지원체계

바. 노후준비지원조례 제정 및 확대 등 제도정비

- 전북은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65세 인구가 2045년에는 41.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거대 고령인구 집단의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7년 4월에 「전라북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4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완주군이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2019년 1월 제정·시행 중에 있음
- 본 조례에서는 장년층 생애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시군설치 운영과 생애재설계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노후준비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도 14개 시군 가운데 단 5개소만이 운영되고 있음
- 전북의 50~65세 중고령인구는 24.1%로 전국 평균 23.9%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인구조건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 대상의 노후준비 지원서비스 정책과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이로 인해 기대되는 노인빈곤이나 노인자살과 같은 노인문제의 사전적·예방적 효과도 매우 큼. 따라서 노후지원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각 시군에서는 노후준비지원 조례의 제정과 확대를 통해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향후 노후준비지원 조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작업 추진이 필요함

- 각 기초지자체의 노후준비지원 조례 제정
- 조례에 근거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전라북도 노후준비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역복지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여성관련 유관기관 등)
-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노후준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후준비지원협의회와 네트워크 구축

부록

부록

〈부록-1〉 인구특성별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 1)경제적 여유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6.8	27.1	37.5	26.3	2.3	-
연령	50~54세	8.4	29.4	36.1	22.7	3.4	3.745 (.879)
	55~59세	5.0	25.5	39.0	29.1	1.4	
	60~65세	6.6	27.0	36.9	27.0	2.5	
지역	도시	6.7	27.2	35.0	28.0	3.1	6.232 (.621)
	도농	6.5	28.6	37.7	26.0	1.3	
	농촌	7.5	24.5	49.1	18.9	0.0	
학력	중졸 이하	10.5	24.6	38.6	26.3	0.0	10.186 (.252)
	고졸	6.7	34.3	31.3	23.9	3.7	
	대졸 이상	5.8	23.2	41.1	27.9	2.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9.5	33.6	34.3	21.9	0.7	21.331** (.006)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3	26.7	34.0	30.0	2.0	
	600만원 이상	2.2	17.2	49.5	25.8	5.4	
취업 여부	취업	7.1	26.0	38.8	25.6	2.5	1.404 (.844)
	미취업	5.8	30.1	34.0	28.2	1.9	
배우자 유무	무배우	11.8	17.6	37.3	33.3	0.0	6.584 (.160)
	유배우	6.0	28.5	37.5	25.2	2.7	

주 : ***p<0.01, **p<0.1, *p<0.5

〈부록-2〉 인구특성별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 2)노후를 대비한 저축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5.0	13.1	35.5	38.6	7.8	-
연령	50~54세	5.9	11.8	33.6	42.9	5.9	6.763 (.562)
	55~59세	3.6	17.1	32.9	37.1	9.3	
	60~65세	4.9	9.8	41.0	36.9	7.4	
지역	도시	4.7	9.9	35.6	40.7	9.1	14.531 (.069)
	도농	5.2	23.4	28.6	35.1	7.8	
	농촌	5.7	13.2	45.3	34.0	1.9	
학력	중졸 이하	7.0	14.0	36.8	36.8	5.3	14.389 (.072)
	고졸	7.5	14.2	29.9	35.8	12.7	
	대졸 이상	2.6	11.6	39.7	41.3	4.8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8	23.5	40.4	24.3	2.9	48.971** *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3	8.7	34.7	45.3	8.0	
	600만원 이상	1.1	5.4	30.1	48.4	15.1	
취업 여부	취업	4.6	12.9	33.2	41.1	8.2	3.571 (.467)
	미취업	5.8	13.6	41.7	32.0	6.8	
배우자 유무	무배우	7.8	15.7	35.3	31.4	9.8	2.395 (.664)
	유배우	4.5	12.7	35.5	39.8	7.5	

주 : ***p<0.01, **p<0.1, *p<0.5

〈부록-3〉 인구특성별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 3)부동산/금융상품 등에 투자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x2 (p)
전체		19.8	27.4	27.4	20.9	4.4	-
연령	50~54세	14.4	27.1	32.2	24.6	1.7	9.858 (.275)
	55~59세	20.6	25.5	25.5	22.7	5.7	
	60~65세	23.0	30.3	25.4	15.6	5.7	
지역	도시	13.4	25.3	30.8	24.5	5.9	35.460** * (.000)
	도농	39.0	32.5	14.3	13.0	1.3	
	농촌	22.6	30.2	30.2	15.1	1.9	
학력	중졸 이하	36.8	29.8	17.5	14.0	1.8	31.724** * (.000)
	고졸	23.1	29.9	20.9	18.7	7.5	
	대졸 이상	11.6	25.4	34.9	24.9	3.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30.7	35.0	23.4	10.2	0.7	58.192** * (.000)
	300만원 이상	18.0	28.7	28.0	22.0	3.3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6.5	15.2	31.5	34.8	12.0	
취업 여부	취업	19.6	25.7	26.4	23.6	4.6	5.177 (.270)
	미 취업	20.4	32.0	30.1	13.6	3.9	
배우자 유무	무배우	17.6	31.4	23.5	23.5	3.9	1.035 (.904)
	유배우	20.2	26.8	28.0	20.5	4.5	

주 : ***p<0.01, **p<0.1, *p<0.5

〈부록-4〉 인구특성별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 4)개인연금/보험상품 등에 가입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6.5	17.0	33.4	36.0	7.0	-
연령	50~54세	9.2	14.3	32.8	37.8	5.9	4.511 (.808)
	55~59세	5.7	20.0	31.4	35.0	7.9	
	60~65세	4.9	15.6	36.9	36.1	6.6	
지역	도시	4.7	13.4	33.6	39.5	8.7	23.004** (.003)
	도농	11.7	24.7	23.4	35.1	5.2	
	농촌	7.5	22.6	47.2	20.8	1.9	
학력	중졸 이하	12.3	19.3	38.6	24.6	5.3	20.168* (.010)
	고졸	7.5	20.3	21.1	42.1	9.0	
	대졸 이상	4.2	14.2	40.0	35.3	6.3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4.6	22.6	40.1	21.2	1.5	59.105** *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7	17.3	30.0	43.3	6.7	
	600만원 이상	1.1	8.7	28.3	46.7	15.2	
취업 여부	취업	6.1	16.4	32.5	36.8	8.2	2.944 (.567)
	미취업	7.8	18.4	35.9	34.0	3.9	
배우자 유무	무배우	9.8	13.7	35.3	37.3	3.9	2.236 (.692)
	유배우	6.0	17.5	33.1	35.8	7.5	

주 : ***p<0.01, **p<0.1, *p<0.5

〈부록-5〉 인구특성별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 5)보수가 주어지는 일을 할 의향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3.1	10.4	21.4	38.8	26.3	-
연령	50~54세	4.2	7.6	24.4	40.3	23.5	7.508 (.483)
	55~59세	1.4	9.2	21.3	39.0	29.1	
	60~65세	4.1	14.8	18.0	36.9	26.2	
지역	도시	3.5	9.8	24.4	40.9	21.3	26.837** (.001)
	도농	3.9	9.1	9.1	31.2	46.8	
	농촌	0.0	15.1	24.5	39.6	20.8	
학력	중졸 이하	5.3	14.0	12.3	43.9	24.6	8.854 (.355)
	고졸	1.5	8.2	22.4	36.6	31.3	
	대졸 이상	3.7	10.5	23.7	38.9	23.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4.4	9.5	18.2	32.8	35.0	25.486** (.001)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7	5.3	24.7	46.7	20.7	
	600만원 이상	2.2	20.4	20.4	33.3	23.7	
취업 여부	취업	1.8	10.3	21.4	39.9	26.7	6.441 (.169)
	미취업	6.8	10.7	21.4	35.9	25.2	
배우자 유무	무배우	2.0	7.8	27.5	39.2	23.5	1.827 (.768)
	유배우	3.3	10.8	20.4	38.7	26.7	

주 : ***p<0.01, **p<0.1, *p<0.5

〈부록-6〉 인구특성별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 - 1)친구/친지/이웃과 자주 관계를 맺음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0.3	4.7	25.8	51.0	18.2	-
연령	50~54세	0.8	5.9	32.8	41.2	19.3	11.095 (.196)
	55~59세	0.0	4.3	26.2	53.2	16.3	
	60~65세	0.0	4.1	18.9	57.4	19.7	
지역	도시	0.4	5.5	24.0	49.6	20.5	5.813 (.668)
	도농	0.0	3.9	28.6	55.8	11.7	
	농촌	0.0	1.9	30.2	50.9	17.0	
학력	중졸 이하	0.0	5.3	15.8	64.9	14.0	7.784 (.455)
	고졸	0.7	4.5	26.1	50.0	18.7	
	대졸 이상	0.0	4.7	28.4	47.9	18.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0.7	4.4	29.9	50.4	14.6	5.252 (.73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0.0	4.7	23.3	51.3	20.7	
	600만원 이상	0.0	5.4	22.6	51.6	20.4	
취업 여부	취업	0.4	5.3	24.2	51.6	18.5	2.438 (.656)
	미취업	0.0	2.9	30.1	49.5	17.5	
배우자 유무	무배우	0.0	3.9	27.5	52.9	15.7	0.541 (.969)
	유배우	0.3	4.8	25.5	50.8	18.6	

주 : ***p<0.01, **p<0.1, *p<0.5

〈부록-7〉 인구특성별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 - 2)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지냄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0.8	4.7	23.0	50.7	20.9	-
연령	50~54세	0.0	5.1	20.3	50.8	23.7	9.925 (.270)
	55~59세	2.1	4.3	21.3	55.3	17.0	
	60~65세	0.0	4.9	27.9	45.1	22.1	
지역	도시	0.0	4.7	20.9	53.8	20.6	19.190* (.014)
	도농	3.9	6.5	31.2	39.0	19.5	
	농촌	0.0	1.9	20.8	52.8	24.5	
학력	중졸 이하	0.0	5.3	31.6	43.9	19.3	15.074 (.058)
	고졸	2.3	6.8	25.6	45.1	20.3	
	대졸 이상	0.0	2.6	18.9	56.8	21.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5	6.6	35.0	38.0	19.0	26.146** (.001)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0.7	4.7	18.1	56.4	20.1	
	600만원 이상	0.0	2.2	12.9	59.1	25.8	
취업 여부	취업	0.4	4.6	21.7	52.7	20.6	4.089 (.394)
	미취업	2.0	4.9	26.5	45.1	21.6	
배우자 유무	무배우	5.9	3.9	19.6	58.8	11.8	23.016** * (.000)
	유배우	0.0	4.8	23.5	49.4	22.3	

주 : ***p<0.01, **p<0.1, *p<0.5

〈부록-8〉 인구특성별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 - 3)종교단체/사회단체 등에 참여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8.1	16.7	26.6	32.0	16.7	-
연령	50~54세	10.1	18.5	19.3	37.0	15.1	8.651 (.373)
	55~59세	7.8	16.3	32.6	28.4	14.9	
	60~65세	5.7	15.6	27.0	32.0	19.7	
지역	도시	7.5	16.1	26.8	32.3	17.3	2.073 (.979)
	도농	10.4	15.6	28.6	29.9	15.6	
	농촌	7.5	20.8	22.6	34.0	15.1	
학력	중졸 이하	10.5	19.3	33.3	24.6	12.3	6.711 (.568)
	고졸	9.7	17.9	26.9	29.9	15.7	
	대졸 이상	6.3	14.7	24.7	35.3	18.9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0	16.8	29.2	29.2	16.8	3.226 (.919)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7	14.7	25.3	36.0	17.3	
	600만원 이상	9.7	19.4	24.7	30.1	16.1	
취업 여부	취업	9.3	17.8	27.0	31.0	14.9	4.931 (.294)
	미취업	4.9	13.6	25.2	35.0	21.4	
배우자 유무	무배우	11.8	5.9	23.5	35.3	23.5	7.158 (.128)
	유배우	7.5	18.3	27.0	31.5	15.6	

주 : ***p<0.01, **p<0.1, *p<0.5

〈부록-9〉 인구특성별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 - 4)노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강습회 등에 참여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8.6	28.7	31.9	24.8	6.0	-
연령	50~54세	9.2	26.9	31.9	26.1	5.9	1.841 (.986)
	55~59세	7.9	30.0	34.3	22.1	5.7	
	60~65세	8.2	29.5	28.7	27.0	6.6	
지역	도시	8.7	28.0	30.7	26.8	5.9	8.102 (.424)
	도농	11.8	31.6	36.8	15.8	3.9	
	농촌	3.8	28.3	30.2	28.3	9.4	
학력	중졸 이하	8.8	40.4	28.1	19.3	3.5	33.771** * (.000)
	고졸	13.5	38.3	28.6	16.5	3.0	
	대졸 이상	5.3	18.9	35.3	32.1	8.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8	33.8	33.1	19.9	4.4	6.275 (.617)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8.0	24.7	33.3	26.0	8.0	
	600만원 이상	8.6	28.0	29.0	29.0	5.4	
취업 여부	취업	8.9	29.3	30.4	25.7	5.7	1.460 (.834)
	미취업	7.8	27.2	35.9	22.3	6.8	
배우자 유무	무배우	9.8	19.6	39.2	27.5	3.9	3.390 (.495)
	유배우	8.4	30.1	30.7	24.4	6.3	

주 : ***p<0.01, **p<0.1, *p<0.5

〈부록-10〉 인구특성별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 - 5)규칙적인 여가활동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9.4	26.3	37.2	21.6	5.5	-
연령	50~54세	8.4	25.2	32.8	26.9	6.7	4.839 (.775)
	55~59세	10.6	26.2	40.4	17.7	5.0	
	60~65세	8.2	27.9	38.5	20.5	4.9	
지역	도시	7.5	24.4	37.8	23.2	7.1	16.773* (.033)
	도농	18.2	31.2	36.4	13.0	1.3	
	농촌	5.7	28.3	35.8	26.4	3.8	
학력	중졸 이하	12.3	33.3	40.4	12.3	1.8	28.551** * (.000)
	고졸	14.9	32.8	32.1	15.7	4.5	
	대졸 이상	4.7	20.0	38.9	28.9	7.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3.9	31.4	40.9	11.7	2.2	28.572** *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5.3	24.7	40.0	24.0	6.0	
	600만원 이상	9.7	21.5	26.9	32.3	9.7	
취업 여부	취업	10.7	26.3	36.7	22.1	4.3	4.837 (.304)
	미취업	5.8	26.2	38.8	20.4	8.7	
배우자 유무	무배우	11.8	21.6	41.2	23.5	2.0	2.527 (.640)
	유배우	9.0	27.0	36.6	21.3	6.0	

주 : ***p<0.01, **p<0.1, *p<0.5

〈부록-11〉 인구특성별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 - 6)여가활동 시간이나 종류를 늘릴 의향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4.7	15.9	35.4	33.6	10.4	-
연령	50~54세	3.4	15.1	28.6	37.0	16.0	12.797 (.119)
	55~59세	5.0	12.1	39.0	35.5	8.5	
	60~65세	4.9	21.3	37.7	28.7	7.4	
지역	도시	3.1	15.7	31.1	39.4	10.6	19.268* (.013)
	도농	9.1	19.5	45.5	16.9	9.1	
	농촌	5.7	11.3	41.5	30.2	11.3	
학력	중졸 이하	8.8	28.1	36.8	22.8	3.5	26.152** (.001)
	고졸	5.2	19.4	38.8	26.9	9.7	
	대졸 이상	3.2	9.5	33.2	41.6	12.6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0	26.3	35.8	22.6	7.3	37.411** * (.00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7	12.0	40.7	34.0	10.7	
	600만원 이상	3.2	7.5	25.8	48.4	15.1	
취업 여부	취업	4.6	16.0	34.2	35.2	10.0	1.526 (.822)
	미취업	4.9	15.5	38.8	29.1	11.7	
배우자 유무	무배우	7.8	17.6	29.4	37.3	7.8	2.572 (.632)
	유배우	4.2	15.6	36.3	33.0	10.8	

주 : ***p<0.01, **p<0.1, *p<0.5

〈부록-12〉 인구특성별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 - 1)체질과 건강을 고려한 식생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2.9	16.1	40.4	34.9	5.7	-
연령	50~54세	3.4	22.7	32.8	36.1	5.0	9.299 (.318)
	55~59세	3.5	13.5	44.7	31.9	6.4	
	60~65세	1.6	12.3	42.6	37.7	5.7	
지역	도시	3.1	14.6	37.4	38.2	6.7	14.066 (.080)
	도농	2.6	26.0	40.3	28.6	2.6	
	농촌	1.9	9.4	54.7	28.3	5.7	
학력	중졸 이하	3.5	14.0	43.9	35.1	3.5	7.472 (.487)
	고졸	3.0	20.1	39.6	29.1	8.2	
	대졸 이상	2.6	13.7	40.5	38.9	4.2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5	19.7	43.8	28.5	6.6	11.842 (.158)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7	16.0	40.0	36.0	3.3	
	600만원 이상	2.2	11.8	35.5	41.9	8.6	
취업 여부	취업	3.2	17.1	38.8	34.9	6.0	1.819 (.769)
	미취업	1.9	13.6	44.7	35.0	4.9	
배우자 유무	무배우	3.9	9.8	45.1	41.2	0.0	6.055 (.195)
	유배우	2.7	17.1	39.6	33.9	6.6	

주 : ***p<0.01, **p<0.1, *p<0.5

〈부록-13〉 인구특성별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 - 2)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유지를 잘함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5.7	21.1	45.8	22.9	4.4	-
연령	50~54세	6.7	27.7	39.5	21.8	4.2	11.665 (.167)
	55~59세	6.4	19.9	48.2	19.1	6.4	
	60~65세	3.3	16.4	50.0	27.9	2.5	
지역	도시	5.1	19.7	45.3	25.2	4.7	5.930 (.655)
	도농	6.5	28.6	45.5	15.6	3.9	
	농촌	7.5	17.0	49.1	22.6	3.8	
학력	중졸 이하	8.8	17.5	50.9	21.1	1.8	10.633 (.223)
	고졸	7.5	26.9	42.5	18.7	4.5	
	대졸 이상	3.7	17.9	46.3	26.8	5.3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5.1	26.3	47.4	17.5	3.6	9.367 (.312)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7	16.7	46.0	27.3	3.3	
	600만원 이상	5.4	20.4	43.0	23.7	7.5	
취업 여부	취업	6.4	23.1	43.8	22.4	4.3	4.041 (.400)
	미취업	3.9	15.5	51.5	24.3	4.9	
배우자 유무	무배우	7.8	11.8	41.2	37.3	2.0	9.247 (.055)
	유배우	5.4	22.5	46.5	20.7	4.8	

주 : ***p<0.01, **p<0.1, *p<0.5

〈부록-14〉 인구특성별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 - 3)충분한 수면시간을 취하려는 노력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1.3	9.7	31.9	49.6	7.6	-
연령	50~54세	0.8	11.0	29.7	52.5	5.9	8.971 (.345)
	55~59세	1.4	11.3	36.9	41.1	9.2	
	60~65세	1.6	6.6	27.0	57.4	7.4	
지역	도시	0.8	9.9	30.4	50.6	8.3	6.953 (.542)
	도농	3.9	9.1	32.5	49.4	5.2	
	농촌	0.0	9.4	37.7	45.3	7.5	
학력	중졸 이하	1.8	3.5	31.6	52.6	10.5	7.384 (.496)
	고졸	2.2	11.9	34.3	46.3	5.2	
	대졸 이상	0.5	9.5	30.7	51.9	7.4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2.2	8.8	36.5	45.3	7.3	9.832 (.277)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0.7	10.7	26.7	56.7	5.3	
	600만원 이상	1.1	7.6	33.7	45.7	12.0	
취업 여부	취업	0.7	10.7	33.2	48.2	7.1	5.250 (.263)
	미취업	2.9	6.8	28.2	53.4	8.7	
배우자 유무	무배우	3.9	5.9	31.4	52.9	5.9	4.312 (.365)
	유배우	0.9	10.2	31.9	49.1	7.8	

주 : ***p<0.01, **p<0.1, *p<0.5

〈부록-15〉 인구특성별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 - 4) 정기적인 건강진단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2.1	9.6	29.2	46.9	12.2	-
연령	50~54세	4.2	10.9	23.5	52.1	9.2	16.887* (.031)
	55~59세	1.4	9.2	39.0	38.3	12.1	
	60~65세	0.8	9.0	23.0	52.5	14.8	
지역	도시	2.4	9.1	29.1	47.6	11.8	2.324 (.969)
	도농	1.3	11.7	31.2	45.5	10.4	
	농촌	1.9	9.4	26.4	45.3	17.0	
학력	중졸 이하	1.8	10.5	22.8	43.9	21.1	7.176 (.518)
	고졸	3.0	9.0	32.1	44.8	11.2	
	대졸 이상	1.6	10.0	28.9	49.5	10.0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5	14.6	33.6	35.8	14.6	19.410* (.013)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0	6.7	32.0	50.7	8.7	
	600만원 이상	2.2	6.5	19.4	58.1	14.0	
취업 여부	취업	1.8	10.0	28.8	47.3	12.1	0.687 (.953)
	미취업	2.9	8.7	30.1	45.6	12.6	
배우자 유무	무배우	0.0	13.7	25.5	45.1	15.7	3.120 (.536)
	유배우	2.4	9.0	29.7	47.1	11.7	

주 : ***p<0.01, **p<0.1, *p<0.5

〈부록-16〉 인구특성별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 - 5)보약이나 영양제 등 건강보조식품 섭취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χ^2 (p)
전체		6.8	16.1	30.5	35.9	10.7	-
연령	50~54세	7.6	21.8	30.3	34.5	5.9	16.683* (0.34)
	55~59세	7.8	15.6	34.0	28.4	14.2	
	60~65세	4.1	11.5	27.0	45.9	11.5	
지역	도시	7.5	13.0	30.3	37.4	11.8	10.729 (.218)
	도농	3.9	24.7	31.2	28.6	11.7	
	농촌	7.5	18.9	30.2	39.6	3.8	
학력	중졸 이하	12.3	10.5	24.6	47.4	5.3	12.946 (.114)
	고졸	6.0	18.7	26.9	38.1	10.4	
	대졸 이상	5.8	16.3	35.3	30.5	12.1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8.0	18.2	32.1	35.8	5.8	10.688 (.220)
	3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4.0	17.3	28.7	38.0	12.0	
	600만원 이상	8.6	11.8	31.2	32.3	16.1	
취업 여부	취업	7.5	16.0	31.3	34.2	11.0	2.063 (.724)
	미취업	4.9	16.5	28.2	40.8	9.7	
배우자 유무	무배우	7.8	11.8	35.3	33.3	11.8	1.425 (.840)
	유배우	6.6	16.8	29.7	36.3	10.5	

주 : ***p<0.01, **p<0.1, *p<0.5

참고문헌

참고문헌

Mark Friedman(2007), 『앙코르』, 김경숙 역, 프런티어

강성호, 김유미(2016), 고령화와 노후준비 2016, 한국보험연구원

강유진 (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30·40·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6(4)

금재호 외(2013),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김경아 (2015), 국내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현황과 확대방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젠더리뷰(2015,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도균 외(2016), 경기도 베이비부머 노후준비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김백수, 이정화(2010),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분석: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3)

김상우 (2014), 울산지역 베이비부머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예수문화활성화 방안, 울산발전연구원

김영란, 주재선(2010), 베이비붐세대 남녀 특성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지영 (2015), 대전광역시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대전복지재단

박성정 외(2014),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Ⅱ) : 노후설계를 통한 역량강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혜경 (2015), 강원도 중고령여성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노후준비 실태 사례 연구 및 정책적 지원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송현주 외(2018),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연금연구원

서미경 (2012), 중·고령기 여성의 재취업 경험과 생애적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Vol. 39

석상훈 외(201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와 기대 I, 국민연금연구원

성지혜, 김소정(2015), 대구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방안 II : 중고령 여성을 중심으로, 대구여성가족재단

- 성혜영, 김아람(2017), 은퇴 예정자를 위한 노후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민연금연구원
- 신은식 (2002), 독신미혼여성의 노후관련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심우정 외(2016), 여성 베이비부머 은퇴자 유형화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Vol. 12(3)
- 양정선 외(2011), 경기도 베이비 붐 세대의 가족생활 및 노후준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오영희 (2012), 성공적 노후에 대한 중장년층 인식,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 남, 한정란(2017), 중년 여성가구주의 노후준비 경험: 직업이 있는 여성가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Vol 37(1)
- 이소정 (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외(2010),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2013), 노후설계지원법(안)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2016), 노후준비 지원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여봉 (2011), 중년여성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세대와 이전세대, 가족과 문화, 제24집1호
- 이정화 (2009), 광주전남 중년층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 이철선 (2010),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과 향후 이슈, 「세대간 일자리 공유를 위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 자료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장미혜 (2013), 젠더관점을 반영한 여서노인의 노후보장, 젠더리뷰(2013, 겨울호)
- 장미혜 외(201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경희 (2013), 고령화 시대의 노년기 준비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3.10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외(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외(2016),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은정 (2013), 고령사회 보편적균형적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진주영, 하규수(2016),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지, Vol 17(2)

초의수 외(2015), 부산광역시 베이비부머 노후 복지를 위한 종합대책, 부산광역시·부산복지개발원

최경환 (2012),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일 외(2013),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대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 개발원

최은희 (2018), 충남 예비노년세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 노후설계서비스 상담매뉴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경혜, 김주현·백옥미(2012),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대한 재정적 준비와 건강 준비의 관련 요인 탐색 :심리적 요인과 자원요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 연구, Vol. 58

기본연구 2019-01

**전라북도 중고령여성의
노후준비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19년 5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71-4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